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 11. 26.(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9층)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 보수정비 공사 (2019년 국고보조사업 사전설계)	
2	사적 제442호「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주변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3	사적 제442호「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주변 현상변경(창고 증축)	
4	사적 제254호「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주변 현상변경(지하주차장 건립)	
5	사적 제284호「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임시도로 개설)	
6	등록문화재 제292호「경주 우안 양수장」 현상변경(양수장 이전)	
7	「목포 경동성당」 문화재 등록	
8	「전북대학교 구 본관」 문화재 등록	
9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문화재 등록	
10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 문화재 등록	
【검토사항】		
11	사적 제497호「서울 이화장」 종합정비계획 검토	
12	「논산 옛 상강경교」 문화재 등록 검토	
13	「보은 구 김연국 가옥」 문화재 등록 검토	
14	「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 문화재 등록 검토	
15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 문화재 등록 검토	
16	「동덕여고 교복」 문화재 등록 검토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19-11-01

1.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보수·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전북 익산시 소재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의 문화재구역 내 탐방로 등을 보수·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의 문화재구역 내에서 탐방로 등을 보수·정비(20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전설계에 해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라북도 익산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화산리)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화산리)

○ 사업내용 : 탐방로 정비, 외래수종 제거 및 잡목제거 등 식생환경 개선, 노후화된 기존 안내판 교체, 배수로 정비 등

○ 세부 사업내용

<수목 및 잡목 제거공사>

- 낙엽교목 23주, 상록교목 99주, 잡목제거 16,710㎡

<수목전정공사>

- 낙엽교목 10주

<철거공사>

- 안내판 11개, 빗물받이 1개, 석축 45m, 아스콘포장 15㎡, 아스콘 커팅 44m

<시설물 공사>

- 안내판 10개 설치, 난간도색 37m, 야자매트 187m, 아스콘 포장 5㎡, 쇄석포장 628㎡, 면고르기 260㎡, 측구수로관 258m, 스틸그레이팅 61m, 오물방지그레이팅 197m, 집수정 1개, 빗물받이 1개, 로프휀스 52경간

<제초공사>

- 제초작업 327㎡

<식재공사>

- 산철쭉 30주, 좀작살나무 40주, 황매화 60주, 잔디 327㎡

라. 현지 자문의견(2019. 9. 27.) : 문화재위원 OOO·OOO

○ 익산 나바위성당 방문객은 주로 노년층이 다수이고 또한 탐방로는 대부분 경사로이므로, 금회 보수정비는 방문객의 안전에 유의하여 계획하도록 함

○ 현재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지 않게 설치된 각종 안내판은 문화재청 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정비, 개선함.

○ 문화재 주변의 식생환경 복원과 개선을 위해 리기다 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외래수종은 제거함

○ 측구 수로, 집수정, 그레이팅 등을 보수, 정비하여 배수로 및 우수처리 환경을 개선함

○ 탐방로는 바닥 지반 정리 후 야자매트 등 친환경 재료로 포장하며, 경사가 급한 구간은 친환경 기법의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함.

○ 김대건 신부 착지처 탐방로는 기존 쇄석 포장과 지반을 정비하며, 경관을 해치고 있는 측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차폐할 수 있도록 조경, 식재함

○ 마애불 전면은 목재 데크 등 과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전면 지반 정비 후 외곽에 친환경 기법의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함

○ 자연 구릉에 따라 포장 및 식재 계획을 기존 환경에 맞추어 정비하되 지나치게 많은 수목을 제거하여 환경 및 경관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목의 정비 시 위치와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배수시설에 대한 설치는 중요하므로 수로 및 구배 등에 신경을 써서 정비할 것.

○ 과도한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새롭게 실시되는 시설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아름답게 설치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공사과정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근대 2019-11-02

2.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주변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주변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주변 건축물(신관 및 강의동)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북대학교 총장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동인동 2가)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동인동 2가)

○ 신청내용 :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주변 건축물(신관 및 강의동) 내진보강

-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 1층 19개소, 2층 14개소, 3층 4개소(내진보강)

→ 기존벽체 철거, 철골가새 조립/설치, 보강된 벽체는 기존마감과 동일한 마감으로 처리

- 신관 및 강의동

· 1층 4개소, 2층 4개소(내진보강)

→ 외부 기둥 및 단면적 증가, 마감은 기존과 동일한 마감으로 처리

라. 현지조사 의견(2019.11.21.) : 문화재위원 OOO

○ 현재의 내진보강 계획은 일반적 건물을 대상으로 한 진단과 설계 방식으로 계획되어, 문화재 건물에 적용할 경우 건물의 원형을 크게 훼손, 변형시킬 우려가 있음.

○ 본 문화재는 사적으로서 건물의 원형 보존이 우선적이므로, 문화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 원형의 훼손,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법에 의한 내진보강 계획 수립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 류**

- 제시된 안은 일반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한 진단 및 구조 보강공법으로 문화재 적용 시 원형훼손 우려가 크므로 관계전문가(문화재, 구조 등) 검토 필요

○ 출석 11명 / 보류 11명

안건번호 근대 2019-11-03

3.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주변 현상변경[교육연구시설(창고) 증축]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주변에 교육연구시설(창고)를 증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주변에 교육연구시설(창고)를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북대학교 총장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동인동 2가)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동인동 2가)(허용기준 1구역/문화재로부터 약 83m 이격)

○ 신청내용 : 사적 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주변 교육연구시설(창고) 증축

구분	기존	신청
건축면적(㎡)	8,277.85	8,286.85(+9.0)
연면적(㎡)	29,463.99	29,472.99(+9.0)
건축물 높이(m)	-	3.8m
건축물 구조	-	경량철골조

라. 현지조사 의견(2019.11.21.) : 문화재위원 OOO

○ 증축되는 건물이 매우 소규모 건물로 문화재와 멀리 이격되어 있고 또한 문화재 동측의 부속건물들에 의해 차폐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서는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므로, 문화재의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근대 2019-11-04

4.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주변 현상변경(지하주차장 건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주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주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지하주차장 건립" 관련 위원회 심의 이력

○ 2019. 9. 24. 제9차 심의

- 결과 : 보류

- 사유 : ①해당문화재를 고려하여 수목높이와 마감재(벽돌재료, 색상)조정 필요

②해당문화재의 건축 구조적 현황분석 및 이를 고려한 계획 제시 필요

③지반침하, 진동, 계측위치, 발파공법,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구체적 영향 분석, 관리기준, 대응방안 제시 필요

☞ 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보완 제출(2019.10.29.), 이에 따른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2019.10.30.) 후 추가 보완 자료 제출(2019.11.12.)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13번지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남현동 제1공영주차장 지하화 공사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1번지

○ 사업내용

- 현황 : 남현동 제1공영주차장(지상 1층 노외주차장, 총 주차면수 64대)

- 계획 : 지하주차장(지하 3층) 신설 및 지상 공원조성

· 공간구성 : 지하(총 주차면수 100대), 지상(조경 및 휴게공간, 차량진출입구, 계단실 등)

· 최고높이 : 5.6m(지상구조물 중 '계단실 1')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연 면 적 : 3,912.73㎡(지하 3,857.93㎡, 지상 54.80㎡)

· 건축면적 : 63.98㎡

라.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OOO·OOO,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 10. 30.)

- 굴착에 의한 침하 영향 검토 중, 건축물 손상한계 설계기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깊이 있게 수행하여 존치기간이 오래된 조적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 기준치에 진동관리 기준치를 추가하여 주시고,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하기 바람

- 계측기(문화재에 설치되는)는 진동계 위주로 하고 건물의 굴뚝에도 진동계측기를 설치하기 바람

* 공사 현장과 인접한 굴뚝하부(지붕안)에 설치할 것

- 안전관리계획에 참여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조적조 건축물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하기 바람

- 도면에 단면도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재위원 OOO,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 8. 7.)

- 문화재로부터 약 10m 이격된 인근 지역에서 지하 3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하 14m 깊이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재의 보존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진동, 지반침하, 지하수위 변화 등)에 구체적 분석과 그에 따른 대안 제시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근대 2019-11-05

5. 사적 제284호「구 서울역사」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4호「구 서울역사」주변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구 서울역사」주변에서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2) 대상문화재명 : 구 서울역사 (사적 제284호, '81.09.25 지정)

○ 소 재 지 :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25 일원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2구역(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신청내용 : 임시도로 개설, 지상작업장 가설 울타리 설치

※ 개착정거장 공사 완료 후 원래 상태로 복구

- 임시도로 개설(폭: 최대 6m , 길이: 최대 138m)

·기존 포장제거 없이 기존 광장면에 경계석 설치, 임시승강장 설치 및 차로 추가

- 사업범위 내 지장물 이동 설치 등

·자판기, 안내간판, 볼라드 및 가드레일, 흡연부스 등[가로수(이식), 가로등(철거)]

- 지상작업장 가설 울타리 설치(H=6m × L=375m)

라. 전문가 검토 의견(2019.10.30) : 문화재위원 OOO

○ 서울역 전면도로 중앙부에 GTX-A 정거장 설치 공사를 위해 일부 차로가 폐쇄되면서 공사기간 동안 서울역 광장 일부를 철거하고 임시통행로 2개 차로를 설치, 이용하려는 계획임.

○ 서울역 전면 GTX-A 공사와 그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공사로 판단되지만,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임시용 차로설치로 인한 공사 전후 문화재 경관의 변화를 평면도, 단면도, 3D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임시용 차로설치, 공사기간 동안 횡단보도 통행로 확보, 가설울타리 설치 등 주변 안전조치계획 제시가 필요함.

○ GTX-A 정거장 공사를 위해 서울역 전면도로 중앙부 일부를 개착 후 지상에 복공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계획수립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근대 2019-11-06

6. 등록문화재 제292호「경주 우안 양수장」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292호「경주 우안 양수장」의 이전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경주 우안 양수장」의 이전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우안 양수장 (등록문화재 제292호, '06.12.04. 등록)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

○ 신청내용 : 경주 우안 양수장 이전

- 우안 양수장 전체(바닥 및 기초 포함) 해체 → 해체 부재 자재적치장 설치 보관 → (이전대상지 부지 조성 완료 후) 우안 양수장 전체(바닥 및 기초 포함) 재설치

○ 문화재 보존방안

구분	보존방안	세부내용
1안	도로선형 변경	· 하천법선의 일부를 제외지로 이동(최대 18m) · 제내지 우안양수장 구간에 옹벽 설치 (H=6m, L=95.3m)
2안	홍수 방어벽 설치	· 제외지 우안양수장 구간에 옹벽 설치 (H=6m, L=320m)

※ 2019.10.11.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제출된 보존방안임

라. 전문가 검토 의견(2019.10.11) : 문화재위원 OOO, 전문위원 OOO

○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우안양수장 건물을 해체, 이축하고자 하는 현재의 계획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문화재의 진정성과 장소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해체, 이전 계획보다 먼저 우안 양수장 건물을 기존 위치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함.

마. 의결사항

○ **보 류**

- 시설물을 이전할 경우 양수장 건물 뿐만 아니라 주변 부대시설(시설 설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방안 제시 필요

○ 출석 11명 / 보류 11명

안건번호 근대 2019-11-07

7.「목포 경동성당」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 경동성당」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9.9.24.)를 거쳐 등록 예고한「목포 경동성당」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2) 대상문화재명 : 목포 경동성당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경동 2가 2-1
○ 용 도 : 종교시설
○ 소 유 자 :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건립시기 : 1954년
○ 수량 및 면적 : 1동(지상2층), 연면적 773.3㎡, (건축물대장)
○ 구 조 : 석조

(3) 추진경과

○ ('08.12.29) 문화재 등록 신청
○ ('10.03.04) 관계 전문가 등록검토 현지조사(붙임2 참고)
○ ('10.04.01)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 : **부결**(등록가치 미흡)
○ ('18.09.03) 문화재 등록 재신청
○ ('18.12.20) 관계 전문가 등록검토 현지조사(2차)
○ ('19.01.14) 고증자료 및 추가 보완자료 제출(목포시→문화재청)
○ ('19.09.24)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 : **원안가결**

(4) 등록예고 : 2019. 10. 2. ~ 2019. 10. 31.(30일간) *이건접수 1건

OOO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거주)

○ '10년 4월 '부결' 된바 있는「목포 경동성당」이 10년 전과 달라진 모습 없이 문화재 등록 검토가 진행되었음. 소유자 측에서 변형된 파사드와 종탑부에 대해 원형 복원 계획을 수립중이며, 복원의지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음
- 이에, 복원 계획이 있다면 복원 이후 복원상태를 검토하고 문화재 등록 추진이 필요하며,
- 복원을 전제로 한 문화재 등록이면 정확한 계획(안)이 필요하며, 그 계획(안) 또한 문화재 등록 예고와 함께 공개 필요
- 목포 경동성당의 문화재 등록 반대라기보다 제천 의림동 성당의 등록 부결에 대한 재고 요청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5)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OOO(2018.12.20.)

- 경동성당은 1954년 본관이 완공된 후 목포 구시가지의 중심적 건물로 역할을 하였고 같은 시기에 개원된 부설 성모유치원과 함께 종교, 교육, 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음.
- 경동성당 본당은 목포지역에서 산출된 석재를 주재료로 건축되었고 돔형 지붕 종탑을 포함한 전면부가 특징적이었지만 1965년 전면부가 증축되면서 현재는 일부 변형된 상태
- 본당은 전면부 등 일부가 변형되었지만 기본적 건축형식과 원형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 경동성당 측에서 변형된 부분을 1954년 신축당시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추진 중에 있음
- 이상과 같이 경동성당은 근대기의 역사성, 지역성, 상징성, 장소성을 지닌 건물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고 변형된 부분도 건축원형대로 복원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8.12.20.)

- 2010년 등록조사 당시 파사드 및 종탑부의 원형이 훼손되어 건축적 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 소유자측에서 변형된 파사드와 종탑부에 대해 원형 회복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변형된 부분 역시 현 시점에서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감안하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변형된 종탑부에 대한 원형 회복 시 철저한 고증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담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8.12.20.)

- 성당 정면의 사각형 종탑 부분이 변형되었으나 현재 경동성당에서 원형 복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 하에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축 당시에 조성된 건축물의 벽체와 지붕 구조는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존할 필요가 있음.

<붙임1>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천주교 목포 경동성당 (구) 천주교 목포 경동성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성당) (원) 종교시설(성당)

3.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33

4. 소 유 자 :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유지재단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석조
○ 준 공 일 : 1954년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건축면적 386.65㎡, 연면적 773.3㎡
○ 층수(높이) : 지상 2층

6.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OOO(2018.12.20)>

1) 개요

- 1800년경 목포 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된 후 1898년 산정동성당이 최초 본당으로 설립되어 전남지역의 중심적 성당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경동성당은 산정동성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
- 목포 및 주변 도서지역에 교세가 확장되면서 목포 해안 항구 중심지역에 본당 설립이 필요해졌으며, 본래 일제강점기 당시 목포부립병원이 있었던 현재 위치에 경동성당을 설립
- 경동성당은 1952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1953년 사제관을 먼저 완공한 후 1954년 7월 7일 본당을 완공하였으며, 건립 당시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해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건설
- 경동성당 설립 당시 성모유치원이 함께 개원하여 본당 1층을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사회복지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
- 경동성당 본당은 본래 2010년 등록문화재 심의를 거쳤으나 본래 원형에서 가장 특징적 부분이었던 종탑 등 전면부가 변형, 증축되었고 증축된 전면부분이 50년이 경과되지 않아 당시에는 등록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경동성당은 본당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자 1965년 증축, 변형된 전면부를 1954년 신축 당시의 원형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회 등록을 다시 신청
- 경동성당은 본당 복원을 위해 그 동안 과거 원형 관련 고증사진을 확보하고 복원 관련 재원을 성당 자체적으로 모금, 마련하였으며, 금회 등록 후 문화재청 및 관계

전문가와 협조하여 자체적으로 원형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경동성당은 과거 목포시립병원이 있었던 현재 위치에서 1952년 11월 7일 본당과 사제관 기공식을 가진 후 1953년 사제관을 먼저 완공한 후 1954년 7월 7일 본당을 완공.
- 본당은 목포 지역 채석장에서 채취된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건축되었으며, 양동교회(등록문화재 제114호, 1911년 완공) 등 목포 지역 근대건축물 다수가 이 석재를 주재료로 건축
- 본당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석조 외벽, 장방형 평면, 2층 규모, 목조트러스 박공지붕이며 1층에 유치원을, 2층에 예배당을 각각 배치하고 예배당은 전면에 설치된 외부계단을 통해 진입
- 본당 외관은 정면 중앙부에서 돌출되어 설치된 종탑이 특징적 요소로 정방형 평면 탑신(塔身) 위에 팔각형 평면 구조체를 가설하고 그 상부에 반구형 돔을 설치하였으며, 내부는 기둥이 없는 장축형 공간을 구성하고 볼트형 천장을 형성
- 본당은 이후 종탑 등 전면부가 구조적으로 훼손되자 1965년 종탑, 계단 등 기존 전면부를 전면 철거하고 예배당을 장축방향으로 더욱 확장하여 현재 모습으로 증축, 보수
- 1965년 종탑, 계단 등 본당 외관의 특징적 구성요소가 철거되고 전면부가 1954년 신축된 원형 부분과 규격, 질감 등 물성이 다른 석재로 마감, 증축되면서 본당 외관 일부가 변형된 상태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65년 전면부가 증축되면서 외관 일부가 변형되었지만 기본적 건축형식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1954년 신축 이후 본당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관리하였으므로 특별히 노후화된 부분 없이 관리상태도 양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경동성당과 교구청에서는 호남지역 천주교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역사적 건물로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며, 1965년 증축으로 변형된 전면부도 1954년 신축 당시의 원형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 소유주가 강력한 보존 의지를 지니고 있고 또한 성당이 현재 문화재청과 목포시에서 추진중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사업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경동성당과 교구청에서는 본래의 용도대로 본당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본당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증축, 변형된 전면부를 본래의 원형대로 복원하고자 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종교시설은 다수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동성당 본당은 종탑 등 특징적 외관을 형성하고 목포 구시가지의 상징적 요소로 역할을 하였고 또한 호남 및 목포지역의 천주교 역사를 보여주는 성당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경동성당은 1954년 본관이 완공된 후 목포 구시가지의 중심적 건물로 역할을 하였고 같은 시기에 개원된 부설 성모유치원과 함께 종교, 교육, 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는 역사성, 지역성, 상징성, 장소성 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경동성당 본당은 목포지역에서 산출된 석재를 주재료로 건축되었고 돔형 지붕 종탑을 포함한 전면부가 특징적이었지만 1965년 전면부가 증축되면서 현재는 일부 변형된 상태
- 본당은 전면부 등 일부가 변형되었지만 기본적 건축형식과 원형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 경동성당 측에서 변형된 부분을 1954년 신축당시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 중
- 이상과 같이 경동성당은 근대기의 역사성, 지역성, 상징성, 장소성, 지역성을 지닌 건물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고 변형된 부분도 건축원형대로 복원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목포 경동성당

<문화재전문위원 OOO(2018.12.20)>

1) 개요
- '천주교 목포 경동성당'은 아일랜드 '성 골롬반외방전교회'의 지원을 받아 1952년 착공, 1954년에 완공되었으며 '산정동성당(목포시 산정동 소재, 최초 1897년 건립되었으나 현재의 성당 건물은 1966년에 신축)'에 이에 목포에 두 번째로 설립된 천주교 본당 성당임.
-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 신안군 관할의 각 도서지방 등지에 많은 신자가 증가 하였음에도,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목포 해안의 항구 중심지역에 본당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1965년 성당 전면에 위치한 종탑부에 균열이 생겨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하였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신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 공간을 증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동 본당은 2010년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파사드 및 종탑부 모습에 변형이 있어 건축적 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현재 소유자측에서는 변형된 파사드와 종탑부에 대해 원형 회복 계획(관계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신중히 진행)을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변형된 부분 역시 현 시점에서 등록기준(50년 경과)에 부합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재추진함.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본당 외관은 석재를 쌓아 축조하였는데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지역 건축업체인 대동토건의 김인택(아오스딩)씨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석재는 '산정동성당' 인근의 산에서 채취해 왔다고 함. 또한, 석공사는 당시 목포에 거주하였던 석공(石工) 손양동(바드리시오)씨가 담당하였다고 함.
- 본당은 최초 건립부터 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1층은 유치원, 예배당은 2층에 위치하고 있음. 현재 본당 뒤편으로 유지원을 새롭게 신축, 이전한 상태임.
- 최초 건립 당시에는 정면부에 옥외계단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바로 2층의 예배당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여, 1층의 유치원 보행동선과 겹치지 않게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종탑부 개축 과정에서 옥외계단이 철거 되었고 대신 1층 현관에서 2층 예배당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였음.
- 예배당의 평면은 소위, 바실리카식 교회당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내부 공간은 네이브, 아일 등의 별도 공간을 구획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통간으로 구성하였고 출입구쪽 상부에는 성가대석을 두었음.
- 본래, 신자석과 제대 사이에는 목재로 제작된 장궤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제2차 바티칸공회 이후 미사방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제단의 위치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철거되었다고 함.
-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최초 건립 당시에는 미국 선적의 화물선에서 판재를 구해와 바닥에 깔았다고 하나, 현재는 모두 신재로 교체된 상태임.
- 지붕 가구는 천정 마감재로 인해 육안으로 직접 확인 할 수는 없지만, 과거 보수공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목조트러스 지붕틀로 지붕가구를 구성하고 그 위에 개판을 깔고 동판으로 마감 처리한 것으로 보임.
- 이밖에 개구부의 창호, 문은 대부분 새로운 재료로 교체되었으나, 외벽면은 본래 건립당시의 석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성당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역시 최초 축조한 원형의 모습 잘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최초 건립 당시 설치되었던 종탑은 이미 철거 되었으나, 종은 새로 건립한 종탑 상부에 그대로 달려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종탑부 및 파사드를 제외하고는 건립 당시 외관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어 보임. 또한, 소유자측에서는 변형된 종탑부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증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형을 회복할 계획임.
- 실내 일부 바닥 마감재, 창틀(문) 등 수장재는 대부분 새로운 재료로 교체되었으며,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성당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지자체 및 성당측에서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을 대표하는 천주교 교회 건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소유자측 및 관할지자체측에서도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성당측 및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천주교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지만, 과거 신안지역 내 여러 도서지방 선교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점에서 기존 사례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역사적, 종교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2010년 등록조사 당시 파사드 및 종탑부의 원형이 훼손되어 건축적 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 소유자측에서 변형된 파사드와 종탑부에 대해 원형 회복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변형된 부분 역시 현 시점에서 등록기준(50년경과)에 부합되는 것을 감안하면 등록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등록문화재로 등록 시에는 변형된 종탑부 및 파사드에 대한 원형 회복 시 철저한 고증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담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목포 경동교회」

<군산대학교 OOO(2018.12.20)>

1) 개요
- 천주교 목포 경동성당은 195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54년 7월 7일에 낙성식을 거행한 건축물로 석조 외관에 목조 트러스 지붕으로 처리된 2층 규모의 성당 건축물임. 아래층은 유치원으로 사용하였고 위층은 예배공간으로 사용함.
- 신축 당시에는 정면으로 사각탑 형식으로 돌출된 종탑과 주출입구를 두고, 종탑의 지붕은 돔 형태로 처리하였으나 1960년대 이 부분을 철거하고 성당을 정면 방향으로 증축하여 현재와 같은 건축물의 형태를 이루게 됨.
- 경동성당에서는 정면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종탑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52년 4월 당시 목포시립병원 부지 577평을 목포시로부터 매입하여 경동성당을 신축하게 됨. 초대신부 김성환, 대동토건 이기만 건축사, 석공 손양동의 노력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해군부대장 백기주 대령 등의 도움으로 공사를 진행함.
- 건축물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2층에 예배공간을 두고 1층에 부속시설을 두는 이 시기 일반적인 성당 건축의 공간 구성을 따르고 있음.
- 건축물의 외관은 석조 형식으로 20세기 중반 목포 지역에 다수 지어진 근대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석조 형식으로 마감됨.
- 정면으로 사각형의 종탑이 돌출되어 주출입구 역할을 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 철거되었고 증축되어 경사 지붕에 맞추어 정면을 구성함. 정면 중앙에 주출입구를

두고 그 상부에 첨두 아치 형태의 넓은 창을 두었음.
- 측면은 수직으로 긴 창을 1층과 2층에 연속시켜 구성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는 장방형의 평면이나 신축 당시에는 정면 방향으로 사각형 종탑이 돌출된 평면이었음. 1960년대 중반 종탑의 철거와 정면 부분의 증축으로 현재와 같이 변형되었음.
- 문과 창호 등의 개구부와 실내·외 마감재 등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에서 신축 당시 지어진 부분의 외관 보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경동성당은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에 근대건축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물리적인 보존 환경은 양호함.
- 향후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영역을 확장한다면 경동성당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근대역사경관 보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경동성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의 원형을 회복하고 현재와 같이 종교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원형 복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동성당 측의 복원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현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20세기 중반에 지어진 종교 건축물 중 교회와 성당 등이 등록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사례는 많음. 기존 등록문화재와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성당 정면의 사각형 종탑 부분이 변형되었으나 현재 경동성당에서 원형 복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 하에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축 당시에 조성된 건축물의 벽체와 지붕 구조는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존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천주교 목포 경동성당'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2>

□ 1차 문화재 등록 검토 현지조사 의견(2010.3.4)

< 문화재위원 OOO>

○ 이 성당은 6.25전쟁 직후에 세워진 성당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장면 국무총리와의 인연도 중요한 점의 하나임.

○ 그러나 건물 전반 현관부는 준공 당시와는 너무 큰 변형이 있어 그 건축적 역사성을 훼손하고 있음.

○ 건축물의 관리 상태는 육안으로 봐도 매우 취약하며, 특히 측면 버트레스 부분은 아주 열악함.

○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을 상실하고 있어 등록을 유보토록 함.

< 문화재전문위원 OOO>

○ 원래의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주변 여건도 좋아 보존가치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되나 전면 증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입구부분이 소실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소실되었음.

< 문화재전문위원 OOO>

○ 1954년 완공된 석조 성당으로 전반적 건축형식은 두드러진 특성이 없이 근대기 일반적인 단순화된 고딕양식 성당임.

○ 최초 완공 이후 몇 차례 개보수를 거쳐 내외부가 일부 변형된 상태이며, 특히 건축원형 중 가장 특징적 부분이었던 종탑이 철거되고 전면부가 기존부와 다른 마감방식으로 연결 증축된 상태임.

○ 목포 양동교회 등 유사한 건축형식이면서도 건축연도는 더 오래된 성당이 이미 등록문화재로 다수 등록되어 있으며, 천주교 경동교회는 이들을 능가할 만한 건축적 특성이나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상태임.

○ 따라서, 천주교 경동교회는 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안건번호 근대 2019-11-08

8.「전북대학교 구 본관」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북대학교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 구 본관」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9.9.24.)를 거쳐 등록 예고한「전북대학교 구 본관」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북대학교

(2) 대상문화재명 :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부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 용 도 : 교육시설

○ 소 유 자 : 전북대학교

○ 건립시기 : 1955년

○ 수량 및 면적 : 1동(지상2층), 건축면적 966㎡, (건축물대장)

○ 구 조 : 조적조 + 철근콘크리트조

(3) 등록예고 : 2019. 10. 2. ~ 2019. 10. 31.(30일간) *의견없음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OOO(2019.8.14.)

-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은 처음 지어졌을 때의 초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방 국립대학의 초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 함.
- 중앙의 계단실이 잘 유지되어 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하며 외벽을 형성하고 있는 담쟁이 넝쿨은 건물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는 않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8.14.)

-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은 서울이나 대형 사립대학 소재 본관 건축물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1950년대에 지어진 지방소재 거점 국립대학교 본부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 구성과 마감 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8.14.)

-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관은 1955년에 건립되어 대학의 역사와 상징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외부형태에 대한 보존은 양호하나, 내부공간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마감부분에서 변형이 진행되어 왔음
- 중앙 현관 부분을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의 평면과 입면 구성은 정면성과 상징성을 표현한 파사드의 디자인과 장식적인 요소는 당시 건축기술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에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립이후 사용되면서 일부 훼손된 굴뚝 상부와 지붕의 변형 이외에 원형 보존 상태는 양호 함
- 1955년 건립 당시에 외형을 유지하고 정면의 구성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부는 문화재로서 시대적이고, 역사적·건축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 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구) 전북대학교 본부

2. 용　　도 : (현) 교육연구시설　　(원) 교육연구시설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교내

4. 소 유 자 : 전북대학교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 시설물 개요

○ 구　　조 : 벽돌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건립년도 : 1955년, 동년 10월 3일 본부 이전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966㎡
○ 층수(높이) : 지상 2층

6.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 OOO(2019.08.14)>

1) 개요
- 대학본부로 사용되었던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준공된 2층 건물로서 벽돌조에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되었다. 외부 마감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었음. 건축물의 외관은 중앙의 박공면과 포치를 중심으로 6개의 굴뚝을 열주처럼 강조하여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음. 고전주의적 분위기를 지님으로서 대학본부로서의 엄정성과 권위를 표현하고 있음.
- 전북대학교가 1952년 개교하여 전주 객사에 임시 대학본부를 두었다가 1955년 10월 신축하였으며. 인접한 도서관과 함께 전북대학교 개교 초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돌과 열주 등을 활용하여 대칭성을 강조한 고전주의 건축에서 장식을 간략화시키면서도 엄정한 단순성과 유지하며 시멘트 몰탈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등 근대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건물임. 고전주의 건축에서 근대 모더니즘으로의 전환기적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음.
- 대학본부로서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굴뚝을 겸한 6개의 벽기둥과 중앙 양쪽으로 2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직창호를 3면씩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입면을 구성하고 있음. 중앙에는 길게 수직창을 설치하여 수직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중앙의 출입구에는 포치와 함께 삼각형의 박공면에 원형창을 뚫어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지붕부의 빗물처리는 파라핏에서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선홈통과 연결하고 있음.
- 내부의 평면 및 공간 구성은 중앙의 중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무공간을 배치시키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은 대학본부와 대학원, 박물관, 교육개발원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외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되어 초기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음.
- 내부의 마감과 창호, 지붕 구조와 마감 등에 있어서 다소 변화를 가져왔지만 외관은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전북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건물로서 건축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존관리 여건 및 환경은 양호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학의 교육시설로서 활용됨으로서 원래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함.
- 전북대학교의 실질적인 역사로서 전북대학교 기록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보존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보존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기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대학 소재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은 타 대학에 분포되어 있는 등록문화재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고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 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은 처음 지어졌을 때의 초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방 국립대학의 초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 함.
- 중앙의 계단실이 잘 유지되어 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하며, 외벽을 형성하고 있는 담쟁이 넝쿨은 건물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는 않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08.14)>

1) 개요
-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은 한국전쟁 직후에 지어진 전북대학교 본부 건축물로서 벽돌 벽체와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된 2층 규모로 외장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고 부분적으로 콩자갈 물씻기 공법이 사용됨. 건축물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구성하였고 절충주의 경향의 절제된 장식을 사용함.
- 공식적으로 1952년 개교한 전북대학교가 전주 객사에 임시 대학본부를 두었다가 1955년 10월 현재의 캠퍼스로 옮겨오면서 신축한 대학본부 건축물로서 인접한 도서관 등의 건축물과 함께 전북대학교 개교 초기의 역사와 공간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초기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외벽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고 절충주의 경향의 절제된 장식이 사용된 단순한 외관을 나타내고 있음.
- 건축물 중앙 부분에 낮은 박공 형태를 두고 벽체를 전면으로 돌출시켜 구성하였고 주출입구에는 원기둥으로 지지되는 캐노피를 두어 전체적으로 중심성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음.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고 전면 방향으로 돌출된 굴뚝이 수직 요소로서 입면 구성의 주요 요소로서 사용됨.
- 정면 중앙의 작은 박공면에는 원형 창을 두었고 그 아래로 좁은 수직창과 벽체를 교대로 배치하여 입면에 변화를 주었고, 주출입구 좌우의 입면은 굴뚝 사이에 수직창 3개를 연속시켜 반복적인 입면을 구성함. 외벽을 패러핏 형태로 연장하여 경사지붕을 그 안쪽에 구성하였고 우수는 외벽을 통과하여 바깥쪽 선홈통에 연결함.
- 내부 공간은 중복도를 중심으로 사무공간을 연속시켜 구성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대학본부 및 대학원, 박물관 부속 건물, 교육개발원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마감과 창호, 지붕 구조 및 재료 등에서 변형이 확인되지만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 및 전체적인 구성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정확한 수리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2012년 큰사람교육개발원으로 사용되면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보수 공사를 통해 지붕 구조와 마감 재료가 교체되면서 굴뚝 상부가 변형되었고, 내부 마감 및 창호가 교체된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까지 신축 당시와 동일하게 대학의 교육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측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동안 양호하게 관리해 왔던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보존관리 여건 및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와 같이 대학의 교육시설로서 활용하면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북대학교가 건축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수립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대학 소재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은 등록문화재인 타 대학 건축물과 비교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은 서울이나 대형 사립대학 소재 본관 건축물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1950년대에 지어진 지방소재 거점 국립대학교 본부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 구성과 마감 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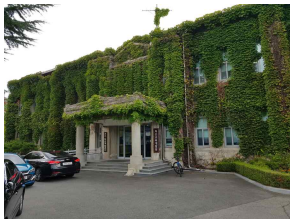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전북대학교 구 본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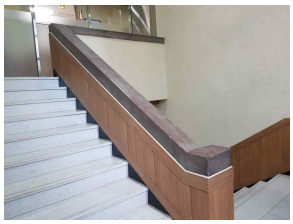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08.14)>

1) 개요
- 전북대학교는 1947년 10월 15일 개교한 도립 이리농과대학교를 근간으로 군산대학, 호남대학, 명륜대학을 흡수 통합하여 1951년 국립 전북대학교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 익산대학과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구 대학본부는 1982년 대학원으로 사용되다가 1998년 부속박물관 고고부, 2012년 현재의 큰사람교육개발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건축물 중 1955년 건립되어 1982년까지 30여년간 대학본부로 사용되면서 지역성과 역사성, 상징성에 대한 가치를 갖는 건물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에 배치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一'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장방형 건물로 남쪽으로 주출입구를 두고 있고, 북쪽에 부출입구를 두고 있음.
- 평면구성은 중복도형에 건물로 복도 좌우로 실이 배치되어 있음.
-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건물로 전면과 후면은 기둥이 외부로 돌출되어있으며 굴뚝 상단이 처마 윗부분까지 올라가 있음.
- 지붕은 처마가 돌출되지 않은 모임지붕의 형태이며, 지붕에 처마부분은 외벽 바깥쪽으로 돌출되지 않음
- 정면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중앙 부분에 페디먼트는 그리스 신전을 단순화　한 형태로 장식되어 있으며, 돌출된 포치 천정을 지지하는 원형기둥과 삼각형의 페디먼트 벽면에 세개의 원형은 직선으로 구성되는 형태에 변화를 주는 요소이며, 처마부분에 천정은 두꺼운 코너몰딩 처리와 전등 주변에 원형몰딩마감이 남아 있으며 모르타르 위 수성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음.
- 외벽의 마감은 벽돌조 위 거친 모르타르마감이고, 외부로 돌출된 기둥열, 동일한

크기에 창문이 건물에 수직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외벽 처마와 창문의 상·하부 인방은 수평띠가 마감되면서 수직과 수평적 요소를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볼륨감을 표현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부의 형태와 마감은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반면 내부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마감이 변형됨.
- 내부마감 중 과거 마감을 확인 가능한 부분은 중앙 계단실 난간에 인조석물갈기 마감 부분임.
- 당초 창문에 크기나 수직적인 형태로 보아 목재 오르내리 창호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알루미늄 창호로 변경됨.
- 지붕은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당초 목구조에 시멘트기와를 사용한 모임지붕으로 추측되며, 현재는 금속골함석 지붕으로 처마부분이 외벽에서 돌출되어 마감 됨.
- 당초 외벽으로 돌출된 굴뚝 부분은 처마 높이보다 높게 마감되었지만 현재 지붕 처마가 외벽에서 돌출되면서 수직으로 돌출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음.
- 전면 포치와 돌출된 원형기둥과 좌우출입구 등 과거 사진자료와 비교해 보면 바닥 마감과 단차 등이 일부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구 대학본부 주변에는 전북대학교 설립 이후 조성된 50년 이상된 건물이 분포되어 있고, 이 건물의 경우 지역사회와 전북대학교 내에서 역사와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 건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어 보존관리 여건이나 주변에 경관적 요소와 적절히 어우러져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교육시설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관의 변경요인이나, 훼손에 우려가 적어 보존관리 측면에서 문화재 등록 이후 관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북대학교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건물로서 대학에서 보존과 활용 의지가 강하고, 대학 구성원의 자부심을 반영한 적절한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사항
- 구 대학본부의 외벽에 자라는 넝쿨 식물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형이나 훼손 우려 여부에 대한 전문가을 통해 처리여부 판단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경기고등학교 본관(현 정독도서관)은 등록문화재 제2호로 1938년에 건립된 로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벽돌로 벽을 쌓아올린 3층 건물로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에 중앙을 강조한 전형적인 학교 건물로 주현관의 곡면부처리와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형태의 창호 등 철근콘크리트조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외에도 문화재로 등록(제758호, 2019.7.0.)된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은 1963년 당시 이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전문 교육기관인 이리농림학교의 제2본관으로 건립된 건물로, 학교의 역사와 흔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적조(組積造) 건물이면서 주출입구 상부의 계단실과 정면에 설치한 현관부(포치)를 화강석으로 쌓아 입면을 강조한 건축 기법 등이 특징임.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관은 1955년에 건립되어 대학의 역사와 상징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외부형태에 대한 보존은 양호하며, 내부공간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마감부분에서 변형이 진행되어 왔음
- 중앙 현관 부분을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의 평면과 입면 구성은 정면성과 상징성을 표현한 파사드의 디자인과 장식적인 요소는 당시 건축기술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에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립이후 사용되면서 일부 훼손된 굴뚝 상부와 지붕의 변형 이외에 원형 보존 상태는 양호 함
- 따라서 건립 시기가 50년이 경과 하였으며, 1955년 건립 당시에 외형을 유지하고 정면의 구성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부는 문화재로서 시대적이고, 역사적·건축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 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문화재 명칭은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부'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개보수 이력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사진자료를 통해 건물의 변경과정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안건번호 근대 2019-09-09

9.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북대학교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9.9.24.)를 거쳐 등록 예고한「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북대학교

(2) 대상문화재명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 용 도 : 교육시설

○ 소 유 자 : 전북대학교

○ 건립시기 : 1957년

○ 수량 및 면적 : 1동(지상3층), 건축면적 3,239㎡, (건축물대장)
*배면 증측부 제외

○ 구 조 : 조적조 + 철근콘크리트조

(3) 등록예고 : 2019. 10. 2. ~ 2019. 10. 31.(30일간) *의견없음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OOO(2019.8.14.)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1957년에 지어진 대학교 교사로서 강의를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강조된 건축물임. 1950년 후반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님.
- 배면에 추가된 부분은 제외하고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8.14.)

- 전북대학교 예술대 미술관은 1950년대에 지어진 대학교 교사로서 실용적인 목적이 강조된 건축물이나 단순한 외관과 1960년대 우리나라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표현되어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외관 구성 및 공간 구성, 구조 체계, 마감 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8.14.)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1957년에 건립되어 대학의 역사와 상징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외부형태에 있어서 건립당시 유행했던 교육시설의 건축양식과 함께 보수과정에서 부가된 조형적 요소는 건축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 중앙 주출입구 포치와 파사드의 수직 수평적요소, 과감한 블록의 처리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해져 예술성과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 단순화된 고딕 양식에 근대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에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립이후 지붕 등에 변형된 요소가 있으며, 배면에 기존 건물에 부가된 증축부분도 원형의 형태에 왜곡 또는 이질감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원형에 구조적 또는 외형적 변형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어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서 원형 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관　　(구)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2. 용　　도 : (현) 교육연구시설　　(원) 교육연구시설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교내

4. 소 유 자 : 전북대학교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 시설물 개요

○ 구　　조 : 벽돌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 건립년도 : 1957년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3,239㎡
○ 층수(높이) : 지상 3층

6.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OOO(2019.08.14)>

1) 개요

- 1957년에 지어진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사는 현재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벽돌조 벽체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3층 규모 건축물로 외장은 시멘트 몰탈과 벽돌로 마감함. 정면 주출입구의 캐노피와 그 상부 시멘트 블록에 의한 입면 구성은 모더니즘적 경향의 대학 건물을 잘 나타내고 있음.
-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부 및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과 함께 전북대학교 캠퍼스의 초기 공간 구성을 보여주는 건축물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용도가 달라 건물의 특성 또한 각기 다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음. 전북대학교 초기 캠퍼스 플랜을 확인할 수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부나 구 중앙도서관과는 달리 강의가 이루어지는 강의동 건물로서 장방형의 수직 창호가 강조된 모더니즘적인 건물로서 중앙의 높이 솟은 스크린 벽과 캐노피를 이용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음.
- 건립 초기에는 중앙 정면에 시멘트 블록을 활용하여 구멍이 뚫린 방형의 차양의 기능을 가진 루버장식이 설치되지 않았고 정면을 강조하는 4각 프레임만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짐. 1960년대에 조형성을 강조한 스크린이 설치된 것으로 여겨짐.
- 중앙부는 3층 구성을 하고 양단은 2층이지만 층고를 달리하여 각 부분의 입면성을 강조하고 있음. 전반적으로는 대칭성을 확보하고 있음.
- 전면 벽체 전체에 걸쳐 반복된 수직창을 강조하고 있으며 층과 층사이에 벽돌면을 두어 변화를 줌. 평면 구성은 편복도를 중심으로 강의실을 연속시켜 구성하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60년대에 부가된 중앙부 주출입구의 캐노피와 그 상부의 조형적 구성은 신축 이후 원형에서 변경된 것이나 다소 어색한 원형의 정면을 잘 보완한 것으로 이 건물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고 있음.
- 미술대학으로 사용됨으로서 배면에 덧붙여진 건축물들은 문화재 권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적으로 건물의 유지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여짐.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1950년대 후반에 지어진 대학본부, 중앙도서관과 서로 연계되어 문화재 권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 됨. 전북대학교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대학본부, 중앙도서관, 문리과 대학을 전북대학교 등록문화재 권역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이지만 각각 양식이 다르게 구축된 것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각각의 건물에 대한 용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북대학교가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보존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함.

다. 기타사항

- 배면에 우후죽순으로 추가된 건물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대학 소재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 전북대학교 예술대 미술관은 등록문화재인 타 대학 건축물과 비교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1957년에 지어진 대학교 교사로서 강의를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강조된 건축물임. 1950년 후반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님.
- 배면에 추가된 부분은 제외하고 등록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교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08.14)>

1) 개요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관은 1950년대 후반에 지어진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사로서 벽돌 조적조 벽체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3층 규모 건축물로 외장은 시멘트 몰탈과 벽돌로 마감함. 장식 없이 단순한 외관으로 디자인하였고, 정면 주출입구의 캐노피와 그 상부 시멘트 블록에 의한 입면 구성은 1960년대 우리나라 대학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모더니즘 경향의 특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전북대학교 구 본관 및 전북대학교 구 도서관과 함께 전북대학교 캠퍼스의 초기 공간 구성을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대학교 교사 건축물의 실용적인 측면과 함께 동시대 모더니즘 경향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초기에 지어진 건축물 중 하나로서 외벽은 시멘트 몰탈과 벽돌 등으로 마감하여 실용적이며 단순한 외관으로 처리함.
- 건축물 중앙 부분은 3개 층으로 구성하고 조형성이 강한 기둥으로 지지되는 캐노피가 있는 주출입구를 두었고, 그 위쪽으로 계단실의 외부는 구멍이 뚫린 시멘트 블록을 사용한 얇은 차양 형태로 처리한 조형적 표현을 통해 중심성을 강조함.
- 건축물 중앙 부분의 캐노피와 차양 형태의 입면 구성은 건축물 건립 이후인 1960년대에 추가된 부분으로 동시대 건축물의 조형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음.
- 정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2층으로 구성하고 좌우측 끝부분은 층고를 높게 처리하면서 전면 방향으로 돌출시켜 대칭성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음.
- 건축물의 입면은 연속된 수직창으로 구성하고 층과 층 사이는 수평의 벽돌면을 두어 변화를 주었음. 내부 공간은 편복도에 면하여 강의실을 연속시켜 구성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60년대에 부가된 주출입구의 캐노피와 그 상부의 조형적 구성은 신축 이후 원형에서 변경된 것이나 충분히 시간이 경과하여 건축물 원형과 동등하게 볼 수 있음.
- 최초에는 평지붕으로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나 계획대로 평지붕으로 시공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현재와 같은 지붕 재료로 변경되면서 지붕 패러핏이 변형됨.
- 창호, 지붕 재료 등에서 변형이 확인되지만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 및 전체적인 구성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까지 신축 당시와 동일하게 대학의 교육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측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동안 양호하게 관리해 왔던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보존관리 여건 및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와 같이 대학의 교육시설로서 활용하면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북대학교가 건축물의 역사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수립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대학 소재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 전북대학교 예술대 미술관은 등록문화재인 타 대학 건축물과 비교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북대학교 예술대 미술관은 1950년대에 지어진 대학교 교사로서 실용적인 목적이 강조된 건축물이나 단순한 외관과 1960년대 우리나라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표현되어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외관 구성 및 공간 구성, 구조 체계, 마감 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교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08.14)>

1) 개요
- 전북대학교는 1947년 10월 15일 개교한 도립 이리농과대학교를 근간으로 군산대학, 호남대학, 명륜대학을 흡수 통합하여 1951년 국립 전북대학교로 그 명칭을 바꾸었으며 2008년 익산대학과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57년 건립된 구 문리과대학은 현재 예술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의 구조 부분이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이에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건축물로 1960년대 대규모 미장공사를 진행하였고, 전면 파사드에 예술적 디자인을 부가하여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갖는 건물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에 배치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一'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좌우 끝단은 건물의 깊이보다 좀더 길게 앞뒤로 돌출되어 'H'형에 평면구성을 갖고 있음
- 평면은 중복도형으로 복도를 중심으로 남북방향에 실이 배치되어 있음
- 중앙 지상3층, 좌우 지상 2층으로 구분되며 정면 현관부는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 중앙 현관부의 파사드는 1층에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 "口"형태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그 안에 다시 수직 3등분할 되는 수직 구획 틀이 포치의 지붕까지 돌출되어 수직성이 강조되었고, 구획된 공간은 블록으로 처리하여 장식성을 부가함.
- 정면의 중앙부 파사드의 조형적 특징 외에도 주출입구의 포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Y'자형에 기둥이 육중한 직육면체의 초석위에 서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면은 중앙 현관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단조로운 입면구성을 가장 높은 건물고를 갖는 현관부 파사드와 중앙 3층 부분 그리고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좌우 날개로 계단형에 입면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물에 좌우 끝단은 2층의 높이보다 다소 높게 층고를 처리하였음, 또한 세로방향으로 장방형에 크기를 갖는 동일한 크기에 창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층을 구분하는 창문인방과 인방 사이에 벽은 색상에 변화를 주어 율동감을 표현.함
- 내부는 기존 벽체가 그대로 남아 모르타르 위 수성페인트로 마감 되어져 있고, 현관에서 들어서면 전실에 천정이 콘크리트 구조체를 그대로 노출시켜 깊이감을 부각시킨 우물천정 형태로 마감하고, 중앙에 천정등이 위치하는 부분은 원형 몰딩을 표현해 놓았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7년 준공이후 1968년 대규모 미장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고딕건축양식을 당신에 유행하던 모더니즘 건축양식에 적용하면서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하였고, 1964년 대규모 미장공사 이후 전면 파사드에 조형적인 요소를 부가하면서 고딕이 갖 는 강건하고 권위적인 건축풍을 탈피함.
- 현재 예술관으로 사용되면서 건물에 창호와 가벽, 천정마감, 시스템 등 유지관리 측면에 교체 및 시설 정비가 진행되었으며, 배면에 중앙부에 돌출된 계단실 좌우측으로 조적조와 경량샌드위치 판넬로 증축되어 있어 기존 건물과 이질감을 느끼게 함.
- 1964년 공사 이전까지는 자료에 의하면 평슬라브의 지붕구조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후 모임지붕형태의 양철식 지붕이 설치(시기가 명확하지 않음)되어짐.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구 대학본부 주변에는 전북대학교 설립 이후 조성된 50년 이상된 건물이 분포되어 있고, 이 건물의 경우 지역사회와 전북대학교 내에서 역사와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 건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어 보존관리 여건이나 주변에 경관적 요소와 적절히 어우러져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교육시설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관의 변경요인이나, 훼손에 우려가 적어 보존관리 측면에서 문화재 등록 이후 관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북대학교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건물로서 대학에서 보존과 활용 의지가 강하고, 구 문리과대학이 현재 예술대 미술관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변에 역사적인 건물군과 더불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미술관 등으로 활용방안이 마련된다면 문화와 예술, 역사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사항
- 건물의 배면에 설치된 증축부분에 대한 이력과 이질감이 부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보수 필요성이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경기고등학교 본관(현 정독도서관)은 등록문화재 제2호로 1938년에 건립된 로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벽돌로 벽을 쌓아올린 3층 건물로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에 중앙을 강조한 전형적인 학교 건물로 주현관의 곡면부처리와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형태의 창호 등 철근콘크리트조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외에도 문화재로 등록(제758호, 2019.07.08.) 된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은 1963년 당시 이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전문 교육기관인 이리농림학교의 제2본관으로 건립된 건물로, 학교의 역사와 흔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적조(組積造) 건물이면서 주출입구 상부의 계단실과 정면에 설치한 현관부(포치)를 화강석으로 쌓아 입면을 강조한 건축 기법 등이 특징 임.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1957년에 건립되어 대학의 역사와 상징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외부형태에 있어서 건립당시 유행했던 교육시설의 건축양식과 함께 보수과정에서 부가된 조형적 요소는 건축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 중앙 주출입구 포치와 파사드의 수직 수평적요소, 과감한 블록의 처리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해져 예술성과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 단순화된 고딕양식에 근대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에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립이후 지붕 등에 변형된 요소가 있으며, 배면에 기존 건물에 부가된 증축부분도 원형의 형태에 왜곡 또는 이질감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원형에 구조적 또는 외형적 변형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어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서 원형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1957년 건립 당시에 원형을 유지하고, 정면의 구성과 디자인적인 요소 등이 부가된 구 문리과대학 건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건립시점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고 문화재로서 시대적이고, 역사적・건축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 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문화재 명칭은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개보수 이력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사진자료를 통해 건물의 변경과정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안건번호 근대 2019-09-10

10. 「전북대학교 구 도서관」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북대학교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 구 도서관」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9.9.24.)를 거쳐 등록 예고한「전북대학교 구 도서관」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북대학교

(2) 대상문화재명 : 전북대학교 구 도서관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 용　　도 : 교육시설

○ 소 유 자 : 전북대학교

○ 건립시기 : 1957년

○ 수량 및 면적 : 1동(지상2층), 건축면적 1,353㎡(건축물대장)

○ 구　　조 : 조적조 + 철근콘크리트조

(3) 등록예고 : 2019. 10. 2. ~ 2019. 10. 31.(30일간)　*의견없음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OOO(2019.8.14.)

-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1957년에 지어진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건축물로서 도서관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 및 구조 체계가 특징적인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서고 부분이 원래 상태를 잘 간직하고 있어서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8.14.)

-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1950년대에 지어진 대학교 도서관 건축물로서 도서관 기능에 따른 건축물의 공간 구성 및 구조 체계의 구성 등이 특징적인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8.14.)

- 전북대학교 구 도서관은 1957년에 건립되어 대학의 역사와 상징성뿐만 아니라 석조건축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수장고의 공간적 특징 등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희소성을 내재하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 주고 있음
- 석조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고딕양식의 반영과 조형성을 가미한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에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957년 건립 당시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당초 도서관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수장고의 공간적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등록문화재로서 역사적·건축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 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구) 전북대학교 도서관

2. 용　　도 : (현) 교육연구시설　　(원) 교육연구시설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교내

4. 소 유 자 : 전북대학교(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 시설물 개요

○ 구　　조 : 벽돌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 건립년도 : 1957년 10월 15일(상량), 1958년 2월 15일(낙성식)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1,353㎡

○ 층수(높이) : 지상 2층2층(수장고부분 중2층 포함 3층으로 구성)

6.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OOO(2019.08.14)>

1) 개요

- 중앙도서관으로 사용되었던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1958년 2월 15일에 준공한 건물로서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에 퀼트형식으로 구성된 석조로 외부 마감을 하였다.
- 전체적으로는 T자형 평면 구조로서 2층 구조의 열람실 높이를 3층 구조의 책을 보관하는 서고와 맞추고 있다. 열람실과 서고의 구조적 성격을 달리해서 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다. 즉 열람식과 서고의 구조적 기능이 다른 점을 매우 효과적으로 구성한 건축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건축가는 김사옥으로 전북 지역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초기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 건물로서 서고와 열람실의 복잡한 구조체계를 잘 소화한 건축물로 판단됨.
- 정방형의 넓은 면과 이를 둘러쌓고 있는 장방형의 화강석을 결합시켜 단정하고 힘이 있는 대학 도서관으로의 인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건물이다.
- 열람실을 구성하고 있는 전면부는 중앙과 양쪽 측면을 돌출시켜 입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치를 형성하고 있는 중앙의 출입구 상부에는 도서관이라는 글씨가 있었으나 박물관으로 바뀌었음.
- 외부 입면 구성은 대칭적으로 보이나 내부에서는 한면에 계단실과 화장실을 배치하여 비대칭의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T자형 평면에서 배면 방향으로 연결되는 서고 영역은 3개 층으로 구성하고 있다. 3층은 기둥이 없는 넓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아래층은 헌치 보를 이용하고 있다. 서고공간을 위한 구조시스템이 독특하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서고와 사무실 및 열람실의 평면 구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자연사박물관으로 이용되면서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 및 전체적인 평면 구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옴.
- 2014년 자연사박물관으로 사용되면서 내부 마감 및 창호가 교체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전북대학교 구 대학본부와 연계되어 있고 자연사박물관으로 이용되면서 문화재 보존 여건이 양호 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학 도서관의 서고로 사용되었던 공간의 바닥마감과 공간 깊이, 각종 재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문화재로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함.

다. 구 대학본부와 구 중앙도서관 그리고 문리과 대학이 서로 인접해 있어서 이를 전북대학교 스스로 등록문화재 권역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등록문화재인 타 대학 건축물 즉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등과 비교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1957년에 지어진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건축물로서 도서관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 및 구조 체계가 특징적인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서고 부분이 원래 상태를 잘 간직하고 있어서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08.14)>

1) 개요
-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1950년대 후반에 지어진 전북대학교 도서관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2층 규모에 외장은 석재로 마감함. 건축물의 외관은 단순화된 고딕풍으로 디자인하여 근대기 우리나라 대학 건축물에서 자주 나타나는 외관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
-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사옥 건축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면부의 사무실 영역과 달리 배면 쪽의 서고 부분은 층고를 낮춘 3개 층으로 구성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넓은 개방 공간으로 기능적으로 구성하였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초기에 지어진 건축물 중 하나로서 외벽은 돌붙임으로 마감하여 단순화된 고딕 양식에 가까운 육중한 외관을 나타내고 있음.
- 건축물 중앙 부분을 박공 형태로 구성하고 전면 방향으로 돌출시켰으며 아치로 처리한 주출입구를 두어 전체적으로 중심성을 강조하여 표현함. 정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고 좌우측 끝부분은 박공 형태의 입면으로 처리하면서 전면 방향으로 돌출시켜 대칭성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음.
- 전면부의 사무실 영역은 중복도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였고 복도를 따라 건축물 좌측면에 계단실을 두어 2층과 연결하였음. 계단실 부분은 수직창으로 구성하여 사무실 부분과 입면 구성에 차이를 둠.
- 사무실 영역에서 복도를 통해 배면 방향으로 연결되는 서고 영역은 3개 층으로 구성하여 최상층은 기둥이 없는 넓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아래층은 헌치 보를 갖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개방 공간으로 서고에 적합한 공간 구성을 보여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중앙도서관 및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마감과 창호, 지붕 재료 등에서 변형이 확인되지만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 및 전체적인 구성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자연사박물관으로 사용되면서 이루어진 보수 공사를 통해 내부 마감 및 창호가 교체되었고, 전시실이 조성되었음.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붕 마감 재료는 2014년 이전에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굴뚝 부분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까지 신축 당시와 동일하게 대학의 교육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측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동안 양호하게 관리해 왔던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보존관리 여건 및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와 같이 대학의 교육시설로서 활용하면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북대학교가 건축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수립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대학 소재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등록문화재인 타 대학 건축물과 비교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1950년대에 지어진 대학교 도서관 건축물로서 도서관 기능에 따른 건축물의 공간 구성 및 구조 체계의 구성 등이 특징적인 건축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외관 구성 및 공간 구성, 구조 체계, 마감 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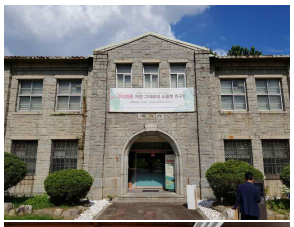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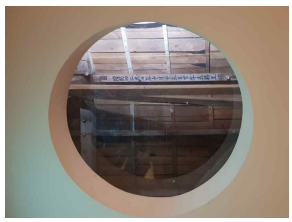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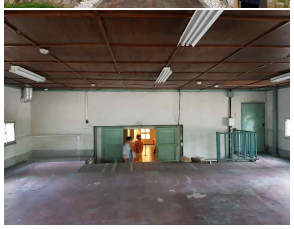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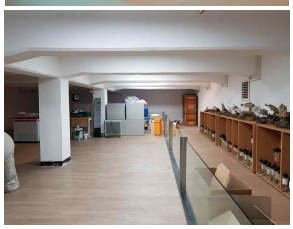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전북대학교 구 도서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08.14)>

1) 개요
- 전북대학교는 1947년 10월 15일 개교한 도립 이리농과대학교를 근간으로 군산대학, 호남대학, 명륜대학을 흡수 통합하여 1951년 국립 전북대학교로 그 명칭을 바꾸었으며 2008년 익산대학과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구 도서관은 1957년 도서관으로 건립되어 사용되다가 1979년 박물관으로 전용(轉用)되었으며, 2013년 현재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이에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건축물 중 1957년 도서관으로 건립되어진 전북대학교 최초의 도서관으로서 역사와 상징적, 학술적 가치를 갖는 건물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에 배치는 남북방향으로 'T'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정면을 서쪽으로 두고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수장고가 위치하고 있음
- 평면은 중복도 형식으로 복도의 좌우측에 실이 배치되어 있고, 중앙현관을 진입하면 정면에 옛 수장고가 위치함.
- 중앙현관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문서실과 학예연구실, 관장실 등이 위치하고, 좌측에 내부계단이 있는 반면 우측은 외부에 면하여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음
- 중앙 현관부와 양단부는 돌출된 페디먼트를 형성하고 있음. 돌출된 중앙부는 지붕이 삼각형 박공면이 그대로 돌출되어 있으며, 1층 현관 전실의 개구부는 석재 몰딩을 사용하여 아치를 형성하고, 상부 중앙에 오각형 형태의 키스톤이 마감과 그 위에 '박물관' 글씨가 음각되어 있음.(옛 사진자료에는 '도서관'으로 음각되어 있어 이후 박물관으로 전용되면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됨)
- 전북대학교 내에서 1950년대 지어진 건물 중 유일하게 석조로 건립됨.
- 창호는 중앙 페디먼트 부분 2층에 3개의 창이 좌우 균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 전면은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의 입면에 취하고 있고 대부분 창문의 크기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전면 좌측 계단실 창은 폭이 좁고 수직으로 길게 구성되어 있어 입면상 대칭의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음.
- 수장고의 창문에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구성하여 내부로 받아들이는 빛에 양을 줄임.
- 창문은 상하부분에 석재로 인방을 설치하였으며, 1층 창문 하인방 하부는 한반물림 바른층쌓기, 외벽을 구성하는 석재는 거치돌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마감됨.
- 전체 건물 높이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수장고는 중2층이 추가되어 층수로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부 공간 중 수장고는 옛 건축적 형태를 그대로 노출시켜 보존・운영하고 있으며, 기둥과 보 부분에 마감 뿐만 아니라, 목재마루와 계단, 창호, 소방시설 등 당초 구성된 건축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음.
- 지붕은 목구조에 박공지붕이며, 당초 지붕마감이 현재는 변형되어 옛 마감재 확인이 어려움, 2층 우측 전시실 천정 일부를 유리로 노출시켜 지붕부의 구조와 상량문을 확인할 수 있음.
- 처마부분(entablature)은 동일한 규격에 다듬어진 석재로 띠돌림하여 마감되어 졌으며, 그 하부에는 동일한 규격에 석재를 벽돌건축에서 치형쌓기 형식으로 돌려쌓아 마감함.
- 지붕에서 내려오는 선홈통은 돌출기둥 내에 매립하여 외부로 돌출시키지 않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7년 준공이후 박물관으로 전용되면서 수장고와 계단실 난간 등을 제외한 내부는 2017년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리모델링을 통해 변경되어 있음.
- 수장고는 목조 마감과 창호 및 설비부분에 대한 건축적 요소가 잘 남아 있으나, 일부 마감부분에 박락 현상이 확인됨.
- 목구조 지붕의 형태는 일부 확인이 가능하며, 지붕마감재는 당초 원형에서 변경된 것으로 사료됨
- 건물의 원형보존 상태나 노후화 정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구 대학본부 주변에는 전북대학교 설립 이후 조성된 50년 이상된 건물이 분포되어 있고, 이 건물의 경우 지역사회와 전북대학교 내에서 역사와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 건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석조로 건립된 구 도서관은 전반적으로 원형보존과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주변에 경관적 요소와 적절히 어우러져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교육시설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관의 변경요인이나, 훼손에 우려가 크지 않으며, 따라서 보존관리 측면에서 문화재 등록 이후 관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북대학교의 역사와 상징성, 희소성이 높은 건물로서 대학에서 보존과 활용의 지가 강하고, 향후 주변환경 개선과 교육적 차원에 전시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적절한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사항
- 수장고 부분에 대한 보수 계획과 활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 제679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은 지하 1층, 지하 2층 석조건물로 감리교 부인선교부의 한국 사업 간사였던 토머스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35년 석조건물로 세워진 후 1963년 체육대학 무용관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건축조형미의 우수성과 전체적인 외관과 내부 마감 그리고 공간구조 등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수직 창호의 상・하부에는 화강암 창대석을 놓아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창틀 좌・우면에는 화강석을 요철 형식의 패턴으로 쌓아 의장적인 효과가 높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북대학교 구 도서관은 1957년에 건립되어 대학의 역사와 상징성뿐만 아니라 석조건축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수장고의 공간적 특징 등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희소성을 내재하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 석조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고딕양식의 반영과 조형성을 가미한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에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건립시점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고, 1957년 건립 당시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당초 도서관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수장고의 공간적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등록문화재로서 역사적・건축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 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문화재 명칭은 '전북대학교 구 도서관'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건물의 설계자가 김사옥 건축사로 확인되는 만큼 관련인 들로부터 추가자료를 확보하면 더 정확한 건물평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19-11-11

11. 사적 제497호「서울 이화장」종합정비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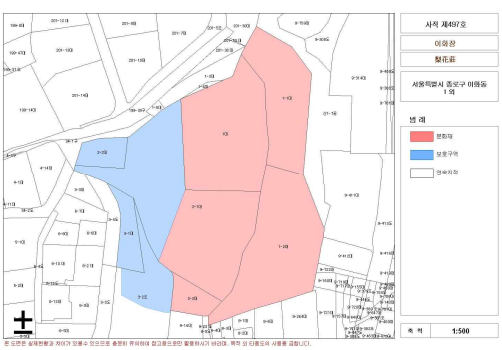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497호「서울 이화장」의 종합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497호「서울 이화장」의 종합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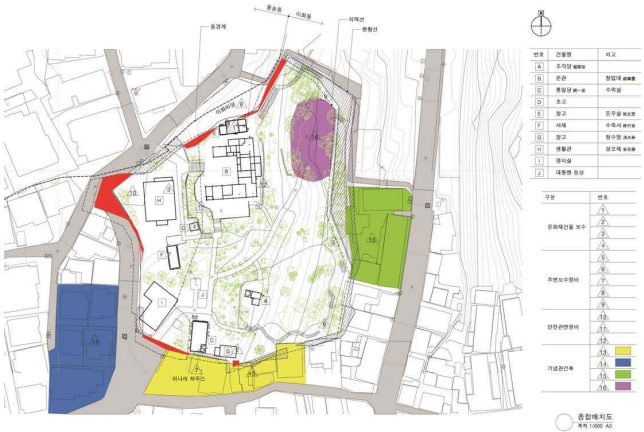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497호「서울 이화장」
-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이화장1길 32 (이화동)
- ○ 소 유 자 : 이인수
- ○ 지정면적 : 6,571㎡(문화재구역: 4,799.1㎡ / 보호구역: 1,771.9㎡)
- ○ 지정일자 : 2009. 4. 28.
- ○ 지정현황도면



(2) 추진경과
- ○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지원(종합정비계획 수립)
- ○ 2018.05.31. :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 ○ 2018.07.25. : 1차 자문회의
- ○ 2018.11.08. : 2차 자문회의
- ○ 2018.11.26. :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완료

(3) 종합정비계획 주요내용
- ○ 종합정비계획



- ○ 종합정비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업년도
문화재 건물 보수	1	돈우실 지붕교체 및 리모델링	-지붕재 철거 교체 -내부 수납공간 설치, 외장도색	2019~2020
	2	청수정(창고) 보수 혹은 철거	-건물 철거 자문 -건물철거 주변 정비	2020~2021
	3	생활관 지붕 보수	-기와 해체 -서까래 보수, 기와 보수	2020~2021
	4	초고 정비	-목재 보수 -도장 보수	2019~2020

구분	항목		내용	사업년도
주변 보수 정비	5	낙산 토목 옹벽 보수	-치장 벽돌 정비, 토목 옹벽 진단 -옹벽 마감정비	2020~2021
	6	영내 암반 보수	-바위 틈 충진 -바위 사면 고이기, 계측기 설치	2020~2021
	7	남측 인접지 보수	-현황 측량, 불량 옹벽 철거 -토목 옹벽 보수, 도색 및 정비	2021~2022
	8	이화마당 담장정비	-기존 담장 철거 자문 -사고석 담장 해체 후 막돌 담장 설치	2022
	9	지적정비, 대장정비	-지적공사 측량, 토지 매입 -행정사항 진행, 대장정비	2022~2025
안전관련 정비	10	생활관 다용도실 증축	-담장내부 지하층 증축 -다용도공간 설치, 기존 지하층 연결	2022~2025
	11	운동실 정비	-내부정비 -수납공간, 다용도공간 설치	2021~2022
	12	본관 석축부분 증축	-기존 석축 제거 -다용도실 증축	2020~2021
기념관 건축	13	기념관 건립	-기념관 건립(건립위치 4가지 안)	2020~

라. 의결사항

○ **보 류**

- 문화재 보존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기념관, 소유자 편의시설 등)은 본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원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과 도면화 작업 필요
- 종합 정비 후 일반인 대상 개방 및 구체적인 활용계획 제시 필요

○ 출석 11명 / 보 류 11명

○ 소유자 : 논산시(교량), 한국농어촌공사(방조수문)
○ 수량 및 면적 : 1기 / 길이 150m 및 폭 5.9m
○ 건립시기 : 교량 1933년, 방조수문 1941년
○ 구조 : 철근콘크리트 T빔교, I빔교

라. 추가 현지조사 의견

○ OOO 문화재위원, OOO 前문화재위원(2019.11.13):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금번 조사대상인 상강경교와 방조수문은 사회적 화두인 '등록문화재'와 '한옥등 근대건축자산진흥에 대한 법' 뿐 아니라 근대역사공간조성과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할 수 있는 근대문화자산이라는 점이 가치평가와 보존여부에 고려되어야 함.

○ 1933년에 가설된 상강경교와 함께 설치된 방조수문은 물의 도시인 강경의 역사와 물을 삶의 근거지로 상업이 발달했던 조선후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강경의 역사를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근대유산으로 가치가 높아 보존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9.11.19)

- 옛 상강경교는 1933년 건설된 이후 시간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몇 차례 개보수 하면서 보와 난간 등에서 원형과 다르게 보수된 부분이 많고 1985년 신 상강경교 건설 이후 옛 상강경교는 차량통행을 하지 않아 거의 모든 구조부에서 노후와 파손이 진행되고 있어 본래 원형에서 많이 변형되어 있음.
- 1941년 설치된 농업용수용 방조수문은 교량과 제수문이 함께 있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나, 원 설계시 T-빔과 슬래브 연결부에 헌치가 있었으나, 현재는 헌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수문 교량구간 상부 보강시 바닥판을 철거 후 상부를 재 시공한 것으로 추정됨.

안건번호 근대 2019-11-12

12.「논산 옛 상강경교」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옛 상강경교」의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본 건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확산사업」 공모('18.12~'19.3월)를 통해 접수된 논산시의 공모사업 신청서에 포함된 개별 문화재 등록 신청 건이며,

○ 2019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19.10.22) 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옛 상강경교와 제수문에 대한 고증자료 요청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재 부의하는 건임

【「옛 상강경교」문화재 등록 관련 추진경과('19년)】

* (논산시) 옛 상강경교 등록문화재 신청('19.3.27)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 시 등록문화재 신청
* (논산시) 옛 상강경교 철거 반대 서명부(김진호 시의회 의장 등 9명) 제출('19.5.16)
* (문화재청) 논산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관련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5.23)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옛 상강경교 등록문화재 지정 관련 검토의견서 제출('19.6.12.)
  - 옛 상강경교 존치 시 치수안정성 미확보(홍수시 주변 인명·재산피해 우려 등)
  - 존치 시 추가사업비 필요(약 65억원) 등
*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 종합평가 알림(논산 미반영/'19.7.18)
* (문화재청) 옛 상강경교 등록문화재 검토 현지조사('19.8.30)
  - OOO·OOO 문화재위원, OOO 문화재전문위원, OOO 前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청) 옛 상강경교 등록문화재 검토 현지조사('19.11.13)
  - OOO 문화재위원, OOO 前문화재위원
* (문화재청) 옛 상강경교 등록문화재 검토 현지조사('19.11.19)
  - OOO 문화재전문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논산시장
(2) 대상문화재 : 옛 상강경교
○ 소재지 :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번지 외
○ 용 도 : 교량

라. 등록조사보고서 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OOO 문화재위원(2019. 8. 30.)

- 구 상강경교는 1933년 교량과 방조수문이 결합된 형식으로 건설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 개보수로 주요 부분이 변형되어 본래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또한 연관된 시대적 내용과 역사적 사건도 두드러지지 못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OOO 문화재위원(2019. 8. 30.)

- 상강경교는 1933년 건설한 교량으로 희귀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시공당시의 형식과 외형을 가지고 있을 뿐 보수공사로 인한 훼손과 유지관리의 미비로 재료학·기술학적 관점에서 진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문화재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강경방조수문(준공 1941년, 농어촌공사 자료)은 지금도 건설당시의 기능 그대로 약 955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제수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문의 개폐방식과 구조체의 변형 등으로 산업시설로의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가는 구조물임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9. 8. 30.)

- 과거 강경지역은 상업도시로 발달하였고,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일제강점기에는 군산과 함께 물자를 수탈해 가는 거점이 되었음. 오늘날 강경읍 내에는 이와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으며, 옛 상강경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보수·보강 공사로 인해 중요한 구조적 특징들이 훼손되어 진정성 측면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는 별개로, 옛 상강경교가 하천관리상의 문제로 철거될 경우 별도로 '수문'만을 계획 중인 인근 공원 부지 내로 이전하여, 역사의 장소로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OOO (사)OOO원장(2019. 8. 30.)

- 옛 상강경교는 1930년대 건립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I형교의 도로교량 2개소 중 그 하나로 희귀성이 있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나, 보존을 위하여서는 거의 모든 구조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재료로 재가설해야 하므로 문화재로서 가치의 진정성 훼손이 심함. 특히 홍수 시 이 교량이 유수를 방해하여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문화재로 등록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방조수문은 아직까지 문화재로 등록되거나 지정된 사례가 없고, 강경 방조수문은 광범위한 평야를 가지고 있는 논산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음. 강경

방조수문과 같이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당초와 같은 기능으로 현재까지 사용 중인 예가 많지 않아 강경방조수문은 보존이 필요한 귀중한 근대산업유산임.

마. 의결사항

○ **보 류**

- 추가 현장조사 후 재검토

○ 출석 11명 / 보류 11명

<붙임1>

상강경교와 방조수문에 대한 현장조사 의견(OOO, OOO)

2019.11.13

금번 현장조사에서는 상강경교와 방조수문에 대한 근대문화자산으로서의 진정성과 홍수시 예상되는 위험의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1933년에 건설된 상강경교와 방조수문(제수문)은 일체로 건설되었으나, 본 의견서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강경교의 교량부분과 방조수문을 나누어 검토한 후,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다리**: 교량부분은 기 조사된 바와 같이 교각 일부와 교량 상판의 구조에 원형이 남아있다.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는 보강이 이루어졌으나 신설 당시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보강이 이루어져, 신구 구조의 상태가 잘 남아있다. 교각도 원형교각의 숫자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다리 하부의 접근 가능한 곳에서 원 교각이 원 모습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교량의 양단 부분은 강경천의 제방과 주변 도로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변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량의 난간과 양단의 진입부 교명주(橋名柱)가 철거되었다. 양단 진입부의 석물 일부는 제수문 상부에 옮겨져 있으나 방조수문(제수문) 상부로 접근할 수 없었다.

2. **방조수문**: 현 방조수문(제수문)은 해방 전 신설 당시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시점에 현재 모습으로 바뀌었다. 1981~82년 경 강경교 상부보강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방조수문(제수문)은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지만, 신설 당시의 모습을 유지되고 있으며, 현 방조수문 상부에는 방조수문(防潮水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석물이 보존되어 있다.

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상강경교는 계획홍수위 대비 교량 여유고가 1.7미터가 부족하여 교량시설물의 치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철거대상 구조물로 결정되었다.
   철거의 주 이유는 홍수시 여유고와 경간장의 부족이며, 이는 홍수시 다리의 구조를 위협하는 잡물이 교량과 충돌하면서 교량을 훼손시켜 홍수의 위험을 배가시킬 뿐 아니라, 교량 주변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가 상강경교의 철거 이유이나, 이는 일반적인 교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량이 근대역사유산으로 토목구조 기술이나 강경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유산으로

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 역사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나 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 등의 성공적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교량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철거여부에 대한 판단보다 시설물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고, 역사적 가치의 보존을 위해 예상되는 홍수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검토 후 철거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2001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등으로 근대유산의 보존범위가 확대되고, 정착되면서, 국토부 주관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면서, 고도중심의 역사도시나 근대이전의 건축유산에 대한 보호를 넘어 근대도시공간이나 근대역사유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근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뉴딜정책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된 상황이지만, 현재의 철거에 대한 규정은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기존의 기준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철거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조사대상인 상강경교와 방조수문은 사회적 화두인 '등록문화재'와 '한옥등 근대건축자산진흥에 대한 법' 뿐아니라 근대역사공간조성과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할 수 있는 근대문화자산이라는 점이 가치평가와 보존여부에 고려되어야 한다.

1933년에 가설된 상강경교와 함께 설치된 방조수문은 물의 도시인 강경의 역사와 물을 삶의 근거지로 상업이 발달했던 조선후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강경의 역사를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근대유산으로 가치가 높아 보존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상강경교
   (구) 강경방조수문 및 상강경교(江景防潮水門 及 上江景橋)[1]

2. 용　　도 : (현) 인도교량　　(원) 도로교량 및 방조수문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번지 외

4. 건축물 개요

<건축년도>
- 교량 1933년[2], 방조수문 1941년

<구　　조>
- 폭 5.9m, 총연장 150m, 당시 제3등도로로 서천논산선상[3] 강경천을 건너 논산시 강경읍과 채운면 장화리를 연결하는 도로 교량 및 방조수문으로, 시작과 끝부분 각각 5경간(徑間長 12m, 총연장 120m)은 순수 도로교량이고, 중앙부 5경간(경간장 6m, 총연장 30m)에는 교량 상류측 전면에 5련의 방조수문을 덧달아 내었다.

- 도로의 총 폭은 5.9m, 유효폭은 5.5m이다. 교량의 설계하중은 10.0ton, 교각은 門形 라맨(Rahman)구조이며, 교좌장치는 평강판(平鋼板)이다. 기초는 나무말뚝기초이다.

<교　　량>
- 교량의 상부구조는 교량의 시작과 끝구간은 I형교(桁橋)이고, 조수문(潮水門)을 덧달아 설치한 중앙구간은 철근콘크리트 T형교로 구성되어 있다.
- I형교 구간
  * 보(거더, Girder)[4] : I형강 4본 / 지간장 : 12.0m / 총연장 : 120.0m
- 철근콘크리트 T형교 구간
  * 보 : 철근콘크리트 T형보 4본 / 지간장 : 6.0m / 총연장 : 30.0m

1) 일제 강점기 작성된 '江景防潮水門 及 上江景橋 架設工事 變更設計書'에서 명명한 동 시설에 대한 명칭임
2) 1933년10월10일 동아일보 5면, 江景川大橋 盛大한 竣工式'제하 기사
3) 위 변경설계서 0214쪽에서 인용
   3등도로는 인접 부·군·도내 중요지점, 항진, 정거장 또는 도로 상호를 연결하는 도로로 1911년 4월 제정한 도로규칙에 조선시대의 대·중·소로 나누었던 도로를 1-3등 도로로 나누고, 3등도로는 노폭을 2간(약 3.6m)로 잡았다(대한토목학회, 한국토목사, 2001년인쇄, 399쪽에서 인용)
4) 교량의 교대와 교각위에 놓여 교량 상부판을 받치고 있는 교량 진행방향의 보

<방조수문>

- 교량의 중앙부 30m구간 교량 상류측 전면에 덧달아 철근콘크리조 5련의 방조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 제원
  * 수 문 폭 : 5.15m[5](변경설계도상에서는 수문 내폭이 5.25m로 보인다)
  * 수문 높이 : 3.5m
  * 총 높 이 : 수문 바닥에서부터 13.45m[6]
  * 문비(門扉) : 철제(鐵製), (농업기반공사 유지관리 이력에 문비의 규격이 폭 5.57m×높이3.5m로 되어있다)
  * 권양장치(捲楊裝置) : 도르래와 무게추를 이용한 인력권양(현재는 무게추와 전동모터 동력을 이용한 기계권양)
  * 기초 : 길이 13.5m, 말구직경 20cm, 나무말목을 지중에 박아 넣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콘크리트 타설
  * 차수(遮水)를 위하여 상류쪽에 12m깊이로 하류쪽에는 6m 깊이로 각각 연장 48m에 걸쳐 강(鋼)널말뚝 타설

그림 1 교량 평면 위치도

그림 2 교량 전경사진(종점부(동흥리)▶시점부(장화리)

그림 3 교량 및 방조수문 전경(시점부▶종점부)

5) 앞의 변경설계서0214,0216쪽에서 인용하였으나, 동 설계서의 내역상에는 수문폭5.15m, 설계도상에는 5.25m로 보임. 그러나 설계도의 상태가 좋지를 않아 명확한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원 자료의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
6) 위와 같은 이유로 원설계도서의 확인이 필요함

6. 조사자 의견

< OOO 문화재위원 (2019.8.30.) >

1) 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상강경교를 세 가지 명칭으로 구분하여 지칭하며, 1933년 건설된 상강경교는 구 상강경교로, 1985년 구 상강경교 옆에 건설된 상강경교는 신 상강경교로, 구 상강경교를 철거하고 건설 예정인 상강경교는 새로운 상강경교로 각각 지칭
- 구 상강경교는 금강의 지류 하천인 강경천 상부에 1933년 건설되었으며, 근대기 포구로 번성하였던 강경읍과 그 동쪽의 평야지대였던 채운면을 연결하는 교량과 주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방조수문을 결합하여 건설
- 방조수문(防潮水門)은 해수 조류가 어떤 한 방향으로 흐를 때는 열려서 해수가 자유롭게 통과하지만 조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수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수문으로, 상강경교 방조수문은 강경천의 물을 비축하여 주변 평야지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역할
- 강경천은 원래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었으나 1940년대 하천개수사업으로 하구가 논산천으로 옮겨지면서 논산천을 거쳐 금강으로 유입되었으며, 강경천 연안에는 충적지가 넓게 발달되어 평야지대를 형성
- 구 상강경교는 건설 이후 대전에서 군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85년 신 상강경교가 바로 옆에 건설된 이후 차량은 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상태
- 2016년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은 구 상강경교가 예상홍수위 대비 교량 여유고(餘裕高)와 교량 경간당 경간장(徑間長)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므로 철거 후 새로운 상강경교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
- 2016년 수립된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구 상강경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상강경교를 건설하는 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구 상강경교에 대한 보존 의견이 있어 보존 가치를 평가하고자 등록문화재를 신청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현재 구 상강경교는 총연장 150m, 너비 6m 규모이며, 너비 6m의 방조수문 5개로 구성된 단순 RC T-Beam 형식의 제수문교를 중심으로 각각 너비 12m의 경간 5개로 구성된 I-Beam 형식의 접속교가 양측에 연결된 형식
- 현재 구 상강경교는 부분적으로 상이한 구조형식, 공법, 기법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1933년 최초 건설 이후 그동안 몇 차례 개보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현존하는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
- 구 상강경교의 1933년 최초 건설 당시 전체적인 구조와 형식은 국가기록원의 '강경방조수문 및 상강경교 가설공사설계서(1932년)' 등의 문서에 의해 확인 가능
- 1978년 국립건설연구소에서 발간한 '건설연구소자료'의 구조물안전도연구(교량내하력조사) 내용에 의하면, 구 상강경교는 I-Beam 형식이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중앙부 제수문교가 RC T-Beam으로 복구되어 두 가지 형식이 혼합된 교량으로 변형
- 1985년 신 상강경교 건설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상강경교가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에서 기존교량 즉 구 상강경교의 현황에 대해서 교량의 구조형식은

상부가 I-BEAM, RC SLAB이고 하부가 RC 단주식(短柱式) 라멘이며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상부를 전면 재가설, 보강한 것으로 기록
- 1981~82년 공사 당시 주요 내용은 중앙부 제수문교는 기존 4개의 RC T-Beam 사이에 3개의 강재 I-Beam을 추가 설치하여 보강하고 상부 바닥판을 재시공하였으며, 양측 접속교는 일부 경간에서 기존 4개의 강재 I-Beam 사이에 3개의 강재 I-Beam을 추가 설치하여 보강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3년 최초 건설 이후 그동안 몇 차례 개보수, 변형이 있었으며, 특히 1981~82년 당시 교량 상부 바닥판 재가설, 바닥 하부의 강재 I-Beam 추가 설치 등 많은 변형이 있었음
- 1985년 신 상강경교가 대체 교량으로 건설된 이후 구 상강경교는 교량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상실된 채 오랜 기간 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2016년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홍수대비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구 상강경교는 철거되고 새로운 상강경교가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지역에서 구 상강경교에 대한 보존 의견도 제시된 상태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철거가 예정된 상태이므로, 활용계획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교량으로서는 철원 승일교, 파주 경의선 장단역 죽음의 다리, 울산 구 삼호교, 태백 장성이중교, 철원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공주 금강철교, 서울 한강철도교, 영천 구 화룡교, 구 만경강 철교, 정암철교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상태.
- 기존 등록문화재 교량들에 비해 구 상강경교는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연관된 역사적 내용과 사건도 두드러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구 상강경교는 1933년 교량과 방조수문이 결합된 형식으로 건설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 개보수로 주요 부분이 변형되어 본래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또한 연관된 시대적 내용과 역사적 사건도 두드러지지 못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논산 상강경교 또는 논산 상강경교 및 방조수문

< OOO 문화재위원 (2019.8.30.) >

가. 현지조사 내용

(1) 대상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1) 교량부분
- 한국전쟁(6.25동란)으로 상당부분 훼손되어 1954년에 상판과 교각 및 방조수문의 보수공사가 시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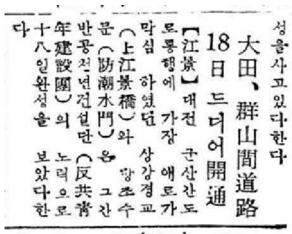

성을사고있다한다
大田、群山間道路
18日드디어開通
【江景】대전 군산간도로통행에 가장 애로가 막심하였던 상강경교(上江景橋)와 방조수문(防潮水門)은 그간 반공청년건설단(反共青年建設團)의 노력으로 十八일 완성을 보았다한다

그림 1. 신문기사(1954년 6월 27일 경향신문 2면)

- 1985년 동 교량에 근접한 하류쪽에 폭 11.5m, 연장 140m의 (신)상강경교를 건설하면서 동 교량은 인도교로 사용됨.

2) 방조수문(제수수문) 부분
- 방조수문은 1941년 1월10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20일 준공된 것으로 기록됨. (농어촌공사 내부망, 일반제원 조회/ 시설제원 상세조회/사주교 제수문 기타, 표준코드 44230Z0001, 시설명:사주교 제수문 참조)
-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방조수문 구조체의 콘크리트 균열보수, 출입문 및 난간설치, 전동권양기 고정식으로 전환, 문비(폭 5.57m× 높이 3.5m) 5련 교체를 하였음.
- 현재는 원격으로 수문을 개폐하고 있으나 정확한 변경 시기는 알 수 없고 문비 규격도 당초 설계도서상의 수문규격은 5.15×,3.5m이나, 현재 문비의 규격은 5.57×3.5m로 기록되어있음.

(2) 현지조사 내용

1) 교량부분
- 교량의 난간은 시·종단에서 홍수범람을 대비하여 콘크리트벽체로 변형되어 있음. 또한 중앙부 난간도 이형철근을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난간으로 원형이 아니며 상판 역시 배수구 단면에서 이형 철근이 육안으로 확인됨.
- 상판을 받치는 교각 상부의 박탈된 부분에서 관찰된 이형철근과 주근과 늑근의 긴결 형태는 1954년 이후에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보수·보강공사 자료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는 없음.)

- 접속교의 7경간은 보 사이에 추가로 보(I-460x170x20)를 설치하여 보강함.(1982년에 성능향상을 위해 보를 증설하여 재가설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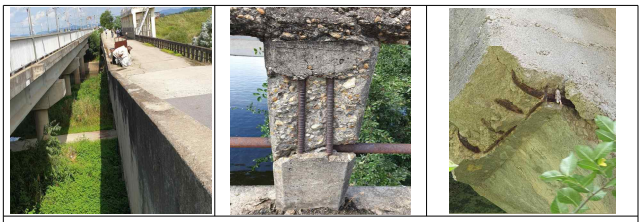


그림 2. 보수된 교각 부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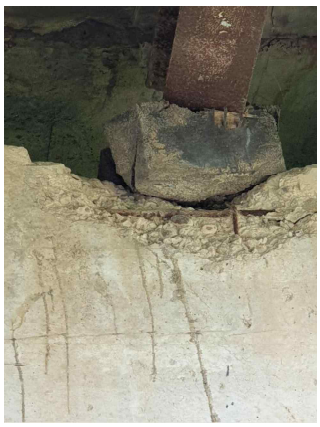


그림 3. 보강된 I형강 보

2) 방조수문

- 방조수문의 관리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현장조사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았음. 상판 상부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와 일부 구동장치만을 관찰할 수 있었음.
- 상판 상부 콘크리트의 상태는 육안 상으로는 박리나 박탈, 철근 녹 등이 관찰되지 않았고 미세 균열도 관찰되지 않았음. 현 상태에 대한 육안관찰 결과로 존치기간을 추정하면, 아주 잘 관리되는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습윤한 지역임을 고려하면 50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도면과 상강경교 구조변경 및 손상조사 검토의 견서의 사진을 비교하면 교량부분의 교각은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수문의 구조체는 시공 당시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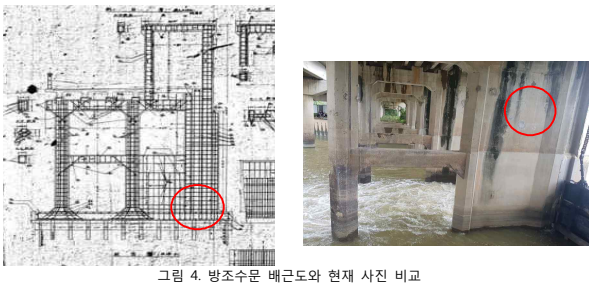


그림 4. 방조수문 배근도와 현재 사진 비교

나. 검토 의견

(1) 개요

1) 교량

- 상강경교는 1933년 당시 최첨단 기술과 자재인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한 교량으로 희귀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시공 당시의 형식과 외형을 가지고 있을 뿐 보수공사로 인한 훼손과 유지관리의 미비로 재료학적 관점과 기술학적 관점에서 진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방조수문

- 강경방조수문은 상강경교가 준공 시기는 농어촌공사 자료에 1941년 12월로 되어있음. 이 방조수문은 지금도 건설당시의 기능 그대로 강경천을 제수하여 농경지약 955ha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제수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문의 개폐방식과 구조체의 변형 등으로 산업시설로의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가는 구조물임.

(2) 양식 및 주요 특징

1) 교량

- 상강경교는 교량 중앙부에 방조수문이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각구조는 전 구간에 걸쳐 문형식이고 상부구조는 두 형식으로 되어있음.

2) 방조수문

- 현재는 수문마다 전동모터를 설치하여 원격으로 작용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1) 교량

- 원형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판 하부의 보 부재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교각에 박리현상이 있음. 습한 지역이여서 콘크리트의 강도와 상태는 양호하지 않음.

2) 방조수문

- 강경 방조수문은 설계도서가 잘 남아있고, 형태만 남아 있을 뿐 재료적, 기술적 관점에서는 변형되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원형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방조수문은 더 어려움 상황에 빠질 수 있음. 주변 환경은 수변공원이 있고 강경 초입이어서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특별한 활용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근대기에 건설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량 중에서 상강경교는 희귀성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견

- 공학적 관점에서는 진정성이 떨어지고 기술적 가치나 재료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등록문화재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없음

< OOO 문화재전문위원 (2019.8.30.) >

1) 개요

- 오늘날 논산시 강경읍에 위치한 '옛 상강경교'는 과거 금강의 지류 하천인 강경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으로 농업용수비축을 위한 수문(水門)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 강경지역은 일제강점기 군산과 함께 물자를 수탈해 가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으며, 옛 상강경교는 군산까지 육로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음.
- 최초 1933년 건립되었으며, 건립 당시의 모습은 국가기록원에 소장중인 '강경 방조수문 및 상강경교 가설공사 설계서철(1933)'에 수록된 설계도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밖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옛 상강경교는 한국전쟁 당시 일부 파괴되어 전후 복구사업으로 보수되었고, 그 후에도 수차례(60년대, 80년대 등)의 보수·보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그 후, 1985년에 이르러 교통량 증가 및 홍수로 인한 범람 등의 이유로 옛 상강경교 북쪽편에 인접하여 새로운 상강경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임.
- 현재 옛 상강교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 하천기본계획 상 철거 대상 구조물이므로 관계기관 측에서는 교량 존치 시 하천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의견 제시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교량은 길이 150m, 폭 5.9m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로 모두 15개의 경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형태는 크게 중앙부의 수문교와 양측단의 접속교로 이루어져 있음. 수문교는 5개의 경간으로 각 경간의 거리는 6m이고 양측단의 접속교 역시 각 5개의 경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경간사이의 거리가 12m임.
- 교각 상부에는 'I형보'와 'T형보'를 설치하여 상판을 지지하고 있는데, 수문교 구간에는 'I형보'와 'T형보'거 혼용되어 있고, 접속교 구간에는 'I형보'가 사용됨.
- 최초 설계 당시의 도면과 비교해 보면, 수문교 구간에는 T형보만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판 슬래브와의 연결부에도 본래는 헌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의 모습에서는 헌치를 확인 할 수 없어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접속교의 경우에도 시점 1개 경간과 종점 2개의 경간에는 'I형보'가 4개씩 설치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7개씩 확인 되므로 선,후로 추가적인 보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됨.
- 이밖에, 교량의 난간에서도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종점부에서는 소위, 벽체 형태를 보이는 반면, 기타 구간에서는 기둥식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다만, 일부 교각 중 피복이 벗겨진 모습에서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와 부식된 원형철근 등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철거공사 시행자 측에서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한 조사기록(상강경교(구) 구조 변경 및 손상조사 검토의견서)에서도 80년대 '보'와 상부 슬라브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보강 공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1933년 준공 당시의 모습이 크게 변형되었던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3년 최초 건립된 이후, 수차례의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1985년 새로 건립된 상강경교로 인해 오랫동안 교량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의 보존 관리 상태 및 노후화 상태는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할 지자체인 논산시에서는 강경지역의 근대기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함.
- 다만, 현재 옛 상강교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 하천기본계획 상 철거 대상 구조물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상 시설물이 교량인 만큼, 특별한 활용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논산시에서는 강경의 역사적 산물인 만큼 근대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존치하고자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으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존치 시 하천 관리상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화천 꺼먹다리(등록문화재 제110호)' 등 교량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고 대부분 최초 건립 당시의 구조적 특징 등을 비교적 잘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옛 상강경교'의 경우 보수·보강 과정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적지 않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과거 강경지역은 상업도시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일제강점기에는 군산과 함께 물자를 수탈해 가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음. 오늘날 강경읍 내에는 이와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으며, 옛 상강경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건립되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보수·보강 공사로 인해 중요한 구조적 특징들이 훼손된 점은, 진정성 측면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는 별개로, 옛 상강경교가 하천관리상의 문제로 철거될 경우 별도로 '수문'만을 계획 중인 인근 공원 부지 내로 이전하여, 역사의 장소로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논산 구)상강경교 및 수문」

< OOO (사)OOO원장 (2019.8.30.) >

가. 현지조사 내용

(1) 선행 조사자료 요약 및 분석

1) 교량부분
- 1933년 서천과 논산을 잇는 3등도로의 강경천을 건너는 도로교량으로 건설되어 6.25동란으로 상당부분 훼손되어 1954년에는 큰 개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
- 1978년 국립건설연구소와 경희대학교 교수 백영식과 공동연구로 상강경교 등 5개 교량에 대한 안전도연구를 하였다.[8] 이보고서에 의하면 상강경교는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량슬래브 전체에 균열이 심하고, T빔[9]이 경사되어 있으며, 특히 교량 양 갓부분이 취약하여 당시의 교통량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여 교량의 폐쇄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교각부분은 결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1985년 동 교량에 근접한 하류쪽에 폭 11.5m, 연장 140m의 (신)상강경교를 건설하면서 동 교량은 폐쇄 되었다(제한적으로 소형차량 통행 및 인도교 역할).
- 2019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논산천 부적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수행기관인 (주)평화엔지니어링에서 '상강경교(구) 구조 변경 및 손상조사 검토 의견서'[10]를 제출하였다. 동 의견서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원설계 대비 변형부분>
* 보의 보강 : 교량 시점(장화리쪽) 1경간과 종점(동흥리쪽) 2경간을 제외한 나머지 12경간에는 기존의 보(4본) 사이에 鋼材보 증설(I형강 3본)하여 총 보의 수 7본 (1981년~1982년 증설 추정)으로 보강
  ※ 시점(장화리쪽) 1경간과 종점(동흥리쪽) 2경간은 원형 유지
* 철근콘크리트 T형교 구간의 T형보의 헌치 멸실(공용중(供用中) 어느 시기에 교량 상판 슬래브를 재시공 한 것으로 추정)
* 교량 난간 변형 : 시종점부 교량난간이 당초 투시형에서 막힌 콘크리트벽으로 변형

<주요 손상 및 기능저하 내용>
* 교각 : 철근노출, 골재분리 및 부분탈락
* 전체적으로 I형강의 부식 심화
* I형교 구간 슬래브 하면 흑화 및 열화, 백태 및 균열 심화
* 교좌장치[11]가 부식이 심하거나 파손 또는 이완 되어 제기능 상실
* 보강한 보의 제기능 상실 : 증설 보강한 보와 상판 슬래브사이 이격이 있어 하중 지지기능 상실
* 슈미트 햄머에 의한 간이 압축강도측정결과 교각 콘크리트강도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7) 경향신문, 1954년 6월 27일자 경향신문 제2면, '대전, 군산간도로 18일 드디어 개통' 제하 기사인용
8) 국립건설연구소, '건설연구자료' NO383, 1978.07. 구조안전도연구(제2보, 교량 내하력 조사)
9) T형보를 말함
10) 검토자 토목구조기술사 정*구
11) 교량의 상부구조인 상판과 하부구조인 교대나 교각 사이에 설치돼 상판을 지지하면서 교량 상부구조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교량안전의 핵심장치

2) 방조수문 부분
- 현재 방조수문은 한국농어촌공사[12] 논사지사에서 '사주교 제수문'이라는 명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 공사자료에[13] 의하면, 방조수문은 1941년 1월10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20일 준공한 것으로 되어있다.
- 위 공사자료의 유지관리이력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방조수문의 콘크리트 균열보수, 출입문 및 난간설치, 전동권양기 고정식으로 전환, 문비(폭 5.57m×높이 3.5m) 5련 교체를 하였다. 이로 미루어 어느 시기엔가 수동식 권양장치를 이동식 전동권양장치(전동기 1대를 이동하면서 5련의 수문 개폐)로 교체하였고, 2002년에서 2004년사이 다시 각 문마다 전동모터를 설치하는 고정식 전동식 권양장치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비 규격도 당초 설계도서상의 수문규격은 5.15×,3.5m이며, 현재 문비의 규격은 5.57×3.5m로 기록되어있다.

<주요 손상 및 기능저하 내용>
* 전술한 '상강경교(구) 구조 변경 및 손상조사 검토 의견서에는 방조수문에 대하여 손상되거나 기능저하에 대한 의견이 없다. 다만 수리 이력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있어 보수하였고, 문비도 교체하였으며, 난간 및 출입문도 보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현지조사 내용

① 교량부분

현지조사 결과 전술한 (주)평화엔지니어링의 토목기술사가 검토 보고한 '상강경교(구) 구조 변경 및 손상조사 검토 의견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형 보존부위>
* 교량 시점(장화리쪽) 1경간과 종점(동흥리쪽) 2경간의 보는 당초 설계도와 같이 4본의 I형강으로 되어있다. 다만 이 구간 교량의 난간은 당초 투시형에서 막힌형 콘크리트벽으로 변형되어있다.

그림 1 시점부의 I형교 원형 보존구간

그림 2 종점부 I형교 원형 보존구간

12) 1938년 당시 농지개량사업을 담당하였던 '조선토지개량협회'를 모체 시작하여 여러차례 개편을 거쳐 2008년 현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었다. 주 업무로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 종합기반시설 종합관리가 있다.
13) 농어촌공사 내부망, 일반제원 조회/ 시설제원 상세조회/사주교 제수문 기타, 표준코드 44230Z0001, 시설명:사주교 제수문

<원설계 대비 변경내용>
* 보의 증설 보강 : 교량 시점(장화리쪽) 1경간과 종점(동흥리쪽) 2경간을 제외한 나머지 12경간에는 기존의 보(4본) 사이에 鋼材보 3본을 증설하여 총 보의 수 7본
  ※ 시점(장화리쪽) 1경간과 종점(동흥리쪽) 2경간은 원형 유지
* 교명주 멸실 및 교량 난간 변형 : 1933년의 변경설계서상에는 上江景橋라는 교명주가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교량의 시·종점부는 올려쌓은 하천둑에 맞추기 위해 한천둑 쪽으로 경사져 올라가 있으며, 난간도 투시형에서 벽체형으로 바뀌었다. 이때 교명주도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I형교 구간 보의 증설

그림 4 T형보구간 보의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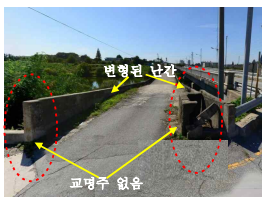


그림 5 시점구간 변형된 난간 및 교명주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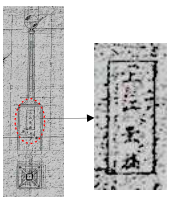


그림 6 원 설계도상의 교명주

<주요 손상 및 기능 저하 내용>
* RC[14] T형교 구간의 T형보의 헌치 파손 및 부분적인 철근 노출
* 교각 : 극히 일부 철근노출, 골재분리 및 부분탈락
* 전체적으로 I형강의 부식이 심함
* 교량 상판슬래브 하면의 흑화 및 열화, 백태 및 균열 심하고 일부 철근 노출
* 교량 상판의 포장면의 균열이 심하고, 일부 탈락 부위 다수 확인
* 교좌장치 부식이 심하거나 파손 또는 이완 되어 제기능 상실
* 보강한 보의 제기능 상실 : 증설 보강한 보와 상판 슬래브사이 이격이 있어 T형보 일부에서 하중 지지기능 상실
* 교량 난간 기둥의 파손 및 철제난간봉의 부식이 심함

14)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그림 7 T형보 헌치파손(▲) 철근노출(↖)

그림 8 교각 철근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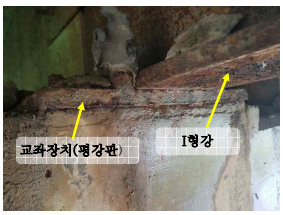


그림 9 심하게 부식된 교좌장치 및 I형강

그림 10 교량 슬래브 하면 균열 및 백태와 일부 철근 노출, 부식된 I형강

그림 11 교량 슬래브 포장면 균열 및 탈락

그림 12 교좌장치 파손 및 이완

그림 13 슬래브와 T형보 이격

그림 14 난간기둥 파손 및 강관난간대 부식

② 방조수문 부분

현지조사 결과 전술한 '상강경교(구) 구조 변경 및 손상조사 검토 의견서'에서도 방조수문에 대하여 손상이나 기능저하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현지조사에서도 방조수문에서 특별한 손상이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방조수문 전경

그림 16 방조수문 문비(門扉)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설계 대비 변경내용>

* 1933년 변경설계서상에 권양장치가 무게추와 도르래를 이용한 수동권양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무게추를 이용한 전동식 권양장치로 바뀌었다.
* 방조수문의 명칭은 일반적으로는 강경방조수문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는 '사주교 제수문'이라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다.[15]
* 기타는 원래의 모습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손상 및 기능 저하 내용>

* 1941년 건설된 이래 콘크리트 균열보수, 난간보수, 문비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가 있었으나 권양장치가 수동식에서 전동식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15)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앞으로 관련기관의 기록물과 일제강점기 기록물 조사 등을 통하여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부의 손상이나 기능에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그림 17 농어촌공사 내부자료 방조수문 명칭 '사주교 제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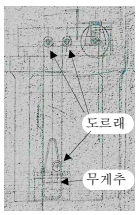


그림 18 당초 설계도상 권양장치

그림 19 방조수문 권양장치

그림 20 방조수문 인제책과 무게추

나. 검토 의견

(1) 개요

1) 교량

우리나라에서의 콘크리트 사용은 1899년 개통된 경인철도 교량하부구조에 무근콘크리트사용이 최초로 추정되고 있으며 1910년경부터 국도가 건설되면서 콘크리트 슬래부교, T형교가 전국에서 건설되기 시작 하였다.[16]

지금까지 남아있는 준공년도를 알 수 있는 콘크리트 도로교량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1926년 준공된 충남 논산시의 산동교이다.[17] 이 외에도 1920년대에 건설 된 콘크리트 다리는 전북 무주의 사전교, 경남 창원시의 풍호교, 울산 중구의 울산교 등이 있으며, 준공년도가 미상인 다리를 감안하면 더 있을 수 있다.

16) 대한토목학회, 한국토목사, 2001년 동화인쇄공사, 534,535쪽에서 인용하여 편집,
우리나라에 최초의 제철소인 겸이포제철소가 황해도 송림에 1918년 세워졌고 최초의 시멘트공장이 평남 강동부에 세워지게 된다. 이때까지는 우리나에서 사용한 시멘트와 철근은 모두 수입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7) 국토교통부,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2019, ㅠㅠ쪽

상강경교는 1933년 당시 최첨단 기술과 자재인 철근콘크리트와 I형강을 사용하여 건설한 교량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도로의 콘크리트 교량 중 상 강경교와 비슷한 시기인 1930년대 이전에 건설된 콘크리트 교량은 모두 27개소이며, 상강경교와 같은 형식인 I형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인후교 1개소로[18] 상강경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기술사적, 재료학적 등 학술적 가치 이외에도 희귀성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1]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1930년대 이전 건설된 도로교량 현황

구 분	RC 슬래브교	RC T형교	I형교	라멘교	기타	계
교 량 수	12	6	1	5	3	27

2) 방조수문

강경방조수문은 상강경교와 같이 1933년 설계되었으며 교량의 경우 1933년 준공되었음이 당시 신문기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방조수문은 이때 같이 준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위 기사제목이나 기사내용에서 방조수문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이때 방조수문은 건설되지 않았을 수 있다. 동 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자료에는 이 수문을 '사주교 제수문'이라는 시설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준공시기가 교량 건설 후 8년 뒤인 1941년 12월로 되어있다.[19]

이 방조수문은 지금도 건설당시의 기능 그대로 강경천을 제수하여 농경지약 955ha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제수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양식 및 주요 특징

1) 교량

상강경교는 교량 중앙부 30m에 걸쳐 5련의 방조수문을 덧달아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각구조는 전구간에 걸쳐 RC2주형ㅠ구조(또는 문형식)이고 상부구조는 두가지 형식으로 되어있다.
그 하나가 조수문이 있는 중앙부 5경간 30m(경간장 6m)구간의 RC T형보이며, 다른하나는 조수문 좌우 각 5경간 120m(경간장 12m)구간의 I형교이다.
1930년대 이전에 건설된 상부구조가 I형교로된 도로교량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 전체에서 전주의 인후교와 함께 2개소에 불과하여 남아있는 도로교량 중에 희귀한 형식의 교량에 속한다.

18) 국토교통부,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2019, 엑셀자료에서 인용하여 편집
19) 방조수문의 건설시기에 대하여는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방조수문

총 5련의 방조수문이 있으며, 콘크리트조이다. 문비는 철제(5.57×305m)로 되어 있고, 건설당시 설계도에는 무게추와 도르래를 이용한 수동식 권양장치였으나, 어느 시기엔가 무게추를 이용한 이동식 전동권양장치로 바뀌었다가 2002-2004년 사이 5련의 수문마다 전동모터를 설치하여 현재는 무게추를 이용한 고정식 전동권양자치로 바뀌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1) 교량

상강경교는 1933년 건설되어 한국전쟁 등과 공용중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영향으로 파손되거나 노후 되어 많은 보수를 거치는 동안 원형과는 다르게 보수된 부분이 많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형은 당초 4본의 보에 3본의 I형강을 보강하여 7본의 보구조가 되었으며(총 15경간 중 12경간 변형), 높아진 하천둑으로 인하여 교량의 시종점부 각 20m내외의 난간을 경사지게 하천둑에 올려붙이면서 형태도 투시형에서 벽체식으로 바뀌었다. 당초 설계에 도시되어있던 교명주도 없는 상태이다.

이 교량의 노후상태도 심각하여 교좌장치의 파손 또는 심한 부식과 이완 등으로 지지기능 약화 및 상실, 상판슬래브 철근콘크리트 열화 및 부분 파손으로 철근노출, T형보의 헌치 파손, 보강보의 지지기능 상실[20], 난간부 기둥의 파손과 철근노출, 철제 난간대의 심한 부식 등으로 인하여 현 상태로 유지관리가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교량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교각이외 모든 구조물을 헐고 다시 재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방조수문

강경 방조수문은 설계도서가 잘 남아있고,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원래 기능을 유지하며 사용하고 있는 근대 산업유산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1) 교량

상강경교는 건설 후 86년이 경과되어 노후가 심하고 각 구조부의 기능 약화되었거나 상실되어 지속적인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서는 교각이외 거의 모든 구조부를 해체하여 재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다리는 하천기본계획상 부적합 시설로 치수안정성이 결여되어 폭우시 교량이 유수흐름을 저해하여 주변 농경지 및 가옥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홍수피해를 우려하여 강경천의 둑을 높이고 교량을 설치해 주도록 민원을 제기 한 바 있어[21] 이 교량의 원형을 보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방조수문

방조수문의 경우 그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현재까지 건설당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거의 1000여ha에 이르는 채운평야의 농업용수를 위하여 사용 중에 있는 근대기 수리시설로 보존해야할 중요한 근대산업유산이다.

이 교량 및 방조수문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로개설 할 경우에도 별도로 현재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방조수문을 설치해야 하고, 또한 동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러한 요구를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하였으며, 국토관리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방조수문은 현재대로 보존하고 여기에 붙여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도로개설과 문화재보존을 함께 이룰 수 있어 방조수문 보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1) 교량

- 문화재로 등록된 도로교량으로 1930년대 이전에 건립된 RC조 교량은 울산 삼호교 등 3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상강경교와 같이 I형교로 된 교량은 없다. 뿐만 아니라 근대기에 건설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량 중에서 상 강경교와 같이 I형강과 RC T형보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교량은 우리나라에서 상강경교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강경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는 학술적 가치와 지역사적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특히 희귀성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표 40 문화재로 등록된 도로교량 현황

교량 명칭(등록번호)	건설시기	구조	문화재가치	비고
파주 경의선 죽음의 다리(79)	1905년	RC T형교	한국전쟁사적 가치	
울산 구삼호교(104)	1924년	RC T형교	교량사적 가치	
영천 구 화룡교	1929년	RC T형교	교량건설사적 가치	
고성 합축교(143)	1960년	RC T형교	남북 합작교	
철원 승일교(26)	1958년	RC 아치교	역사적 가치, 조형미	
태백 장성 이중교(111)	1935년	상 RC 아치교, 하 RC T형교	석탄산업관련 시설	
공주 금강철교(232)	1934년	트러스교	교량건설사적 가치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1930년대 이전에 건설된 도로교량 중 아직 남아있는 교량이 27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교량이 점차 용도 폐기되어 철거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문화재 등록조사를 통하여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여 문화재로 등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유형별 최초로 건설된 다리나 디자인이나 예술적으로 뛰어나거나 특색이 있는 다리도 선별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별첨 '1930년대 이전 건립된 도로교량 목록 참조)

20) 보강보와 교량슬래부사이 공간이 있어 슬래브지지 기능 상실로 보강효과 없음, 앞의 '상강경교 구조 변경 및 손상조사 검토의견서' 9쪽에서 인용하여 편집

21) 연합뉴스, 2011.09.29., '논산·익산 주민 강경천 둑 높이고 교량 설치 요구'제하 기사내용에서 인용

2) 방조수문

강경 방조수문과 유사한 근대 수리시설로는 강경방조수문의 북서방향 1.15km위치에 있는 강경갑문[22]이 근대기 수문(水門)으로는 유일하게 2014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기능면에서 강경 갑문은 하역과 선적을 위한 수위조절장치이고, 강경 방조수문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제수문으로 그 기능이 다르다. 또한 원형 보존 상태도 강경방조수문의 경우 강경 갑문 못지않게 매우 양호하고 건설당시 기능도 강경 갑문의 경우에는 상실 된 것에 반하여 강경 방조수문은 건설된 이래 지금까지 건설당시 모습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여 아직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강경갑문의 가치에 뒤지지 않는 보존해야 할 중요한 근대 산업유산이다.

(6) 등록가치의견

1) 교량

상강경교는 1933년 건설된 이래 인위적인 또는 자연적인 손상과 훼손으로 인하여 보수하면서 보와 난간 등에서 원형과 다르게 보수된 부분이 많고 특히 바로 옆에 (신)상강경교 건설 후에는 도로로는 용도 폐기되어 주로 인도용으로 공용되면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각과 교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조부에서 노후와 파손이 진행되어 현 상태로는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불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다리는 1930년대 건립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I형교의 도로교량 2개소 중 그 하나로 희귀성이 있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나, 보존을 위하여서는 교각과 교대를 제외한 이 교량이 특징인 I형강 등 거의 모든 구조부를 철거하고 대부분을 새로운 재료로 재가설해야 하므로 문화재로서 가치의 진정성 훼손이 심하고, 특히 홍수시 이 교량이 유수를 방해하여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방조수문

방조수문은 아직까지 문화재로 등록되거나 지정된 사례가 없고, 강경 방조수문은 광범위한 평야를 가지고 있는 논산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삼한시대의 제천 의림지에서부터 일제강점기의 군산 구 제1수원지 제방 등과 같이 수리시설 관련 많은 유산들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삼국시대 조성된 김제 벽골제에서는 고대의 저수지의 제수문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제강점기의 농업용수를 위한 수문시설인 강경 방조수문은 수리시설의 기술발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산을 문화재로 등록 할 경우 등록문화재로서는 유일한 농업용수용 방조수문이 되어 희귀성차원에서도 그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조수문들이 일제강점기 방조제나 조수가 드나드는 하천에 상당수 설치하였으나 용도 폐기되어 헐렸거나 남아있는 것도 낡고 노후가 심하여 헐고 다시 건설하여 강경방조수문과 같이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당초와 같은 기능으로 현재까지 사용 중인 예가 많지 않아 강경방조수문은 보존이 필요한 귀중한 근대산업유산이다.[23]

붙임 : 1930년대 이전 건설된 도로교량 목록

22) 갑문은 조석(潮汐)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화물의 하역과 선적작업을 위한 제수문(制水門)으로서 강경갑문은 등록문화재 제601호, 충남 논산시 금백로 101-9에 소재, 문비는 남아있지 않고 개폐장치 유구는 남아있다.

23) 조사자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방조수문과 이와 유사한 수문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와 관련되어 공개된 자료나 관련기관의 보유 자료가 없어 확보하지 못하였다.

[붙임]

1930년대 이전 건설된 콘크리트교량 현황(년도순)

도로 종류	노선명	시설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총길이	총폭	상부구조	하부구조	설계하중	교통량	준공년도
시도		무명교(덕동1)	경상북도	경주시	덕동		6.5	6.5	RC슬래브교	반중력식	미상		0000
시도		무명교(덕동2)	경상북도	경주시	덕동		6	6.5	RC슬래브교	반중력식	미상		0000
시도		무명교(구정동)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7.7	4.6	RC슬래브교	벽식	DB-13.5		0000
시도		상우2교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29	5	라멘교	기타	기타		0000
군도		무명교(서동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12	10	라멘교	벽식	미상		0000
시도		산동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2	9	RC슬래브교	중력식	기타	2242	1926
군도		사전교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24	5.5	RC T형교	중력식	DB-13.5	120	1927
시도		풍호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5.9	25	RC슬래브교	반중력식교대	DB-13.5	25000	1927
구도		가오교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5.4	4.5	RC슬래브교	중력식교대	DB-13.5		1928
구도		울산교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356.2	8.9	RC T형교	반중력식교대	DB-18		1930
시도		인후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	13	RC슬래브교	중력식교대	T9 또는 D9	0	1931
시도		중앙교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20	5	RC T형교	반중력식	미상	1000	1932
시도		금강교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513.5	6.5	트러스교	구주식	DB-13.5	7520	1932
군도		남호교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30	5.4	RC T형교	중력식	기타	979	1933
구도		부동교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60	5.5	RC슬래브교	중력식	DB-13.5	2000	1933
시도		소양1교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395.6	6	강I형교	중력식	DB-13.5	12580	1933
군도		대흥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12	5.6	라멘교	기타	DB-13.5	813	1933

도로 종류	노선명	시설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총길이	총폭	상부구조	하부구조	설계하중	교통량	준공년도
국가지원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15호선	사거리교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6	12.5	RC T형교	중력식교대	DB-13.5	12618	1934
시도		망원교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5	9.9	RC슬래브교	T형 교각식	T6 또는 D6	11500	1934
일반국도	일반국도14호선	월포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11	17	RC슬래브교	중력식	DB-18	31269	1934
시도		행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9	10	라멘교	기타	DB-13.5	1210	1934
시도		백신교(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동		5	8	라멘교	기타	미상	9720	1934
일반국도	일반국도1호선	정주교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88	19	RC슬래브교	T형 교각식	미상	13851	1935
구도		이섭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0	5.1	RC슬래브교	T형 교각식	T12 또는 D12		1936
군도		강구교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00	6.5	기타	기타	DB-24	6921	1937
특별,광역시도		한강대교(구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841	20	아치교	라멘식	DB-24	112986	1937
시도		영암교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11	6.8	RC T형교	중력식	DB-13.5	10000	1939

1930년대 이전 건설된 콘크리트교량 현황(교량 상부구조 별)

순 번	상부구조	하부구조	설계하중	교통량	준공년도
1	RC T형교	중력식	DB-13.5	120	1927
2	RC T형교	반중력식교대	DB-18		1930
3	RC T형교	반중력식	미상	1000	1932
4	RC T형교	중력식	기타	979	1933
5	RC T형교	중력식교대	DB-13.5	12618	1934
6	RC T형교	중력식	DB-13.5	10000	1939
1	RC슬래브교	벽식	DB-13.5		0000
2	RC슬래브교	중력식	기타	2242	1926
3	RC슬래브교	반중력식교대	DB-13.5	25000	1927
4	RC슬래브교	중력식교대	DB-13.5		1928
5	RC슬래브교	중력식교대	T9 또는 D9	0	1931
6	RC슬래브교	중력식	DB-13.5	2000	1933
7	RC슬래브교	중력식	DB-18	31269	1934
8	RC슬래브교	T형 교각식	T6 또는 D6	11500	1934
9	RC슬래브교	T형 교각식	T12 또는 D12		1936
10	RC슬래브교	반중력식	미상		0000
11	RC슬래브교	T형 교각식	미상	13851	1935
12	RC슬래브교	반중력식	미상		0000
1	강I형교	중력식	DB-13.5	12580	1933
1	라멘교	기타	기타		0000
2	라멘교	벽식	미상		0000
3	라멘교	기타	DB-13.5	813	1933
4	라멘교	기타	DB-13.5	1210	1934
5	라멘교	기타	미상	9720	1934
1	기타	기타	DB-24	6921	1937
2	아치교	라멘식	DB-24	112986	1937
3	트러스교	구주식	DB-13.5	7520	1932

<붙임3>

제수문 유지보수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 사주교 제수문 유지관리 이력

지구명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사업내역	비고
고할지구	'02.09~'04.12	478,918	- 콘크리트 균열보수 - 유입문(8조), 난간(101m) 설치 - 문비(5.57m × 3.50m × 5련) 교체 - GATE LEAF 도장 및 보수 - GUIDE FRAM부 안전커버 설치 - VERTICAL SEAL부 교체 - BOTTOM SILL부 교체 - 고정식 전동 권양기로 교체 - 권양기 도장 및 보수 - WEIGHT 도장 및 보수공사 - 동력 및 조명공사	

사 진 대 지

구조물 도장 및 보수보강

단면복구

사 진 대 지

조작대부

안전울타리

사 진 대 지

계량기함

조작함

사 진 대 지

가로등 설치

수문 제어반

<붙임4>

제수문 개보수사업 준공 정산서 및 도면(2004년)

2017년도 전수조사 논산·금산지사 수자원관리부
1-3142612-002165

충청남도
논 산 시

2004. 12.

고합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 정산서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

사주교 제수문 개보수공사 가계 (03개년)

공 사 비 명 세 서

일 금 : 93,748,465 원

'03까지

종 별	재료 또는 치 수	員수	단위	총액 단가	총액 금액	노무비 단가	노무비 금액	재료비 단가	재료비 금액	경비 단가	경비 금액	비고
1. 수문보수공사		1	식		27,300,790	17,412,700	17,412,700	6,560,555	6,560,555	3,327,535	3,327,535	
2. 권양기보수공사		1	식		66,341,595	34,079,525	34,079,525	25,411,015	25,411,015	6,851,055	6,851,055	
3. 가설 권양전동장치 철거공사		1	식		247,920	235,100	235,100	4,894	4,894	7,926	7,926	
4. 고재대		1	식		- 141,840		-	-141,840	-141,840		-	
계					93,748,465		51,727,325		31,834,624		10,186,516	

전기 공사비총괄표

고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기공사 **공사비총괄표**

2004년

일금 : 17,232,000 원정

공종 / 내역				계
공사원가		재료비	7,239,936	7,239,936
	노무비	직접노무비	6,211,818	6,211,818
		간접노무비 (11.00%)	683,299	683,299
		계	6,895,115	6,895,115
	경비	[illegible]	271,172	271,17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소 계	271,172	271,172
		기타경비 (4.30%)	607,807	607,807
		계	878,979	878,979
	소 계		15,014,090	15,014,090
일반관리비 (2.50%)			375,350	375,350
계			15,389,380	15,389,380
이윤 (3.40%)			276,620	276,620
총원가			15,666,000	15,666,000
부가가치세(10.00%)			1,566,000	1,566,000
계			17,232,000	17,232,000
한전납입금				
총공사비			17,232,000	17,232,000

일 반 공 사

일 금 : 13,722,924 원

종 별	재료 또는 치 수	員수	단위	총액 단가	총액 금액	노무비 단가	노무비 금액	재료비 단가	재료비 금액	경비 단가	경비 금액	비고
1. 한전 납입금		1	식		11,518,000>							
2. 동력 및 조명공사		1	식		12,114,173		5,651,844		6,207,956		254,373	(외시)
3. AUTO 조작반		1	식		1,608,751		559,972		1,031,980		16,799	
소 계					13,722,924		6,211,818		7,239,936		271,172	

2017년도 전수조사 논산·금산지사
2-3142603-000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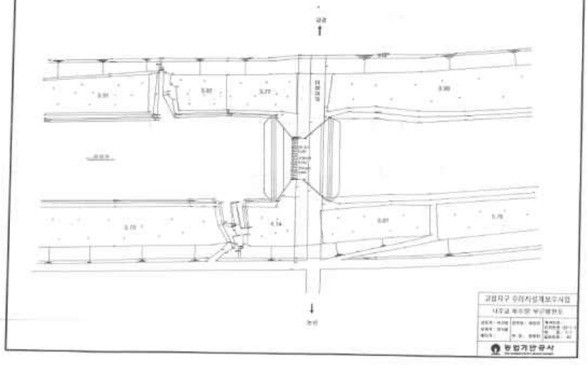
충 청 남 도
논 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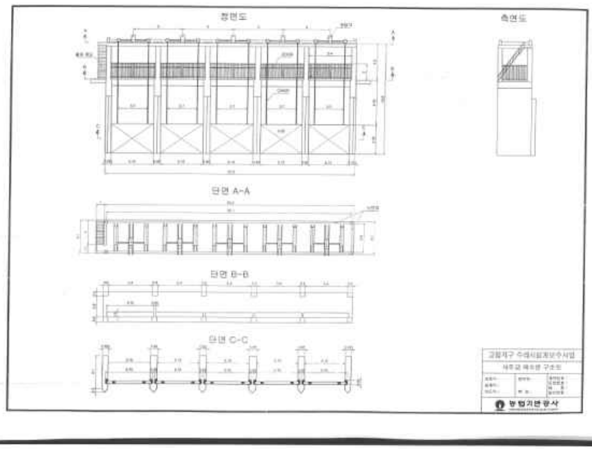
20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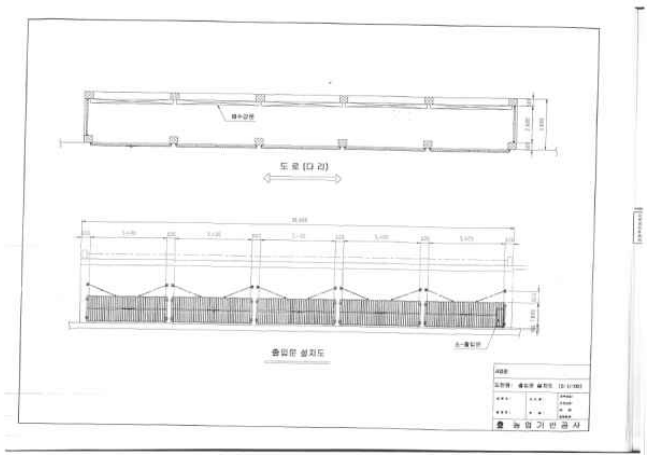
고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준공정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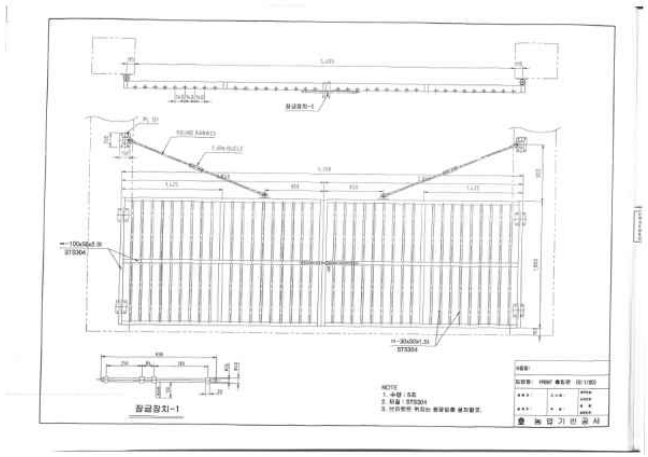
농 업 기 반 공 사
논 산 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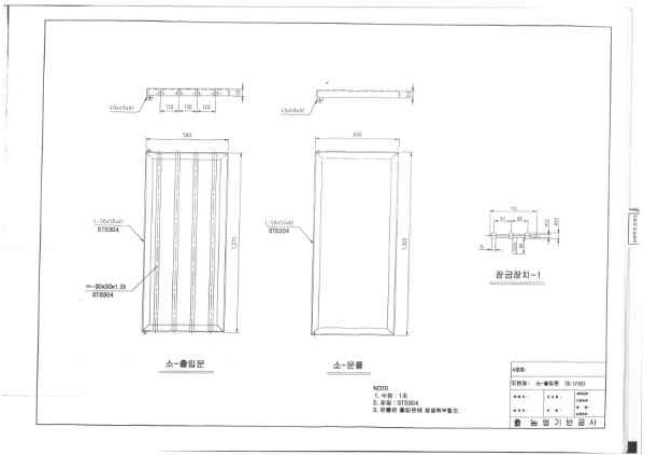
사주교 제수문 부근평면도 (S=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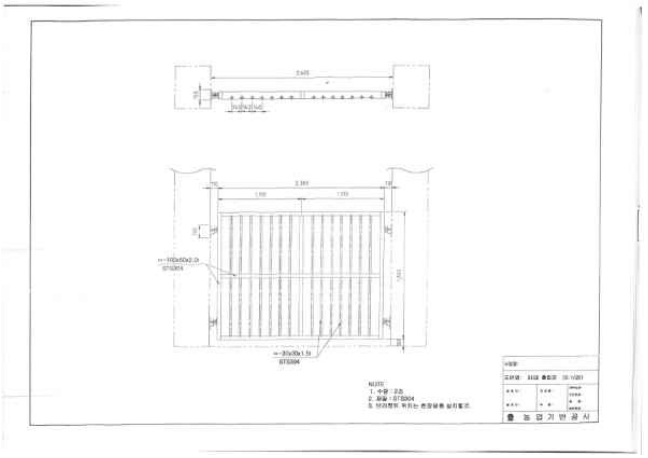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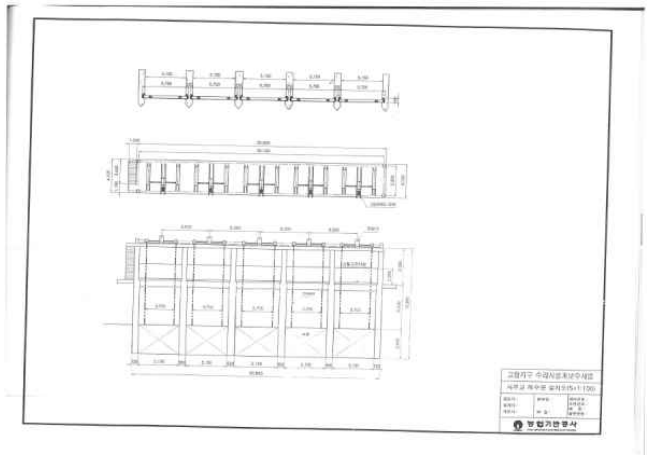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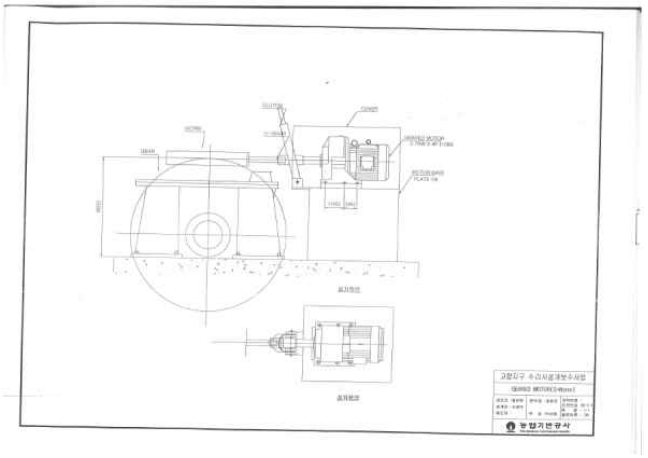

도 로 (다 리)
출입문 설치도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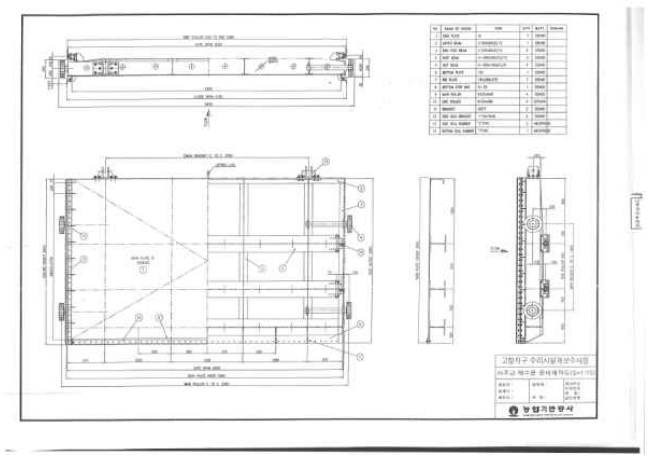

환금장치-1
NOTE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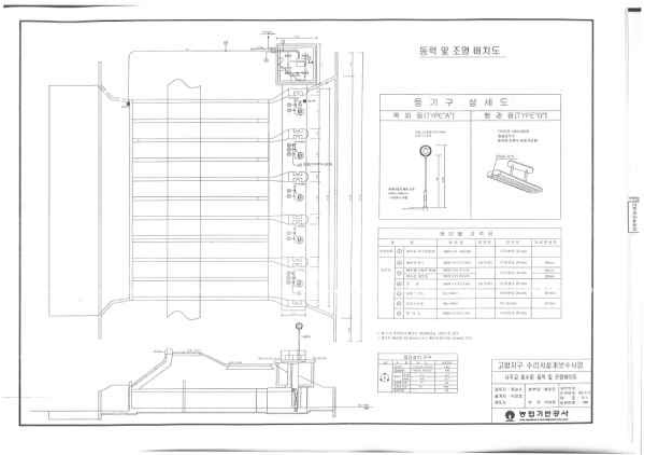

소-출입문
소-문틀
환금장치-1
NOTE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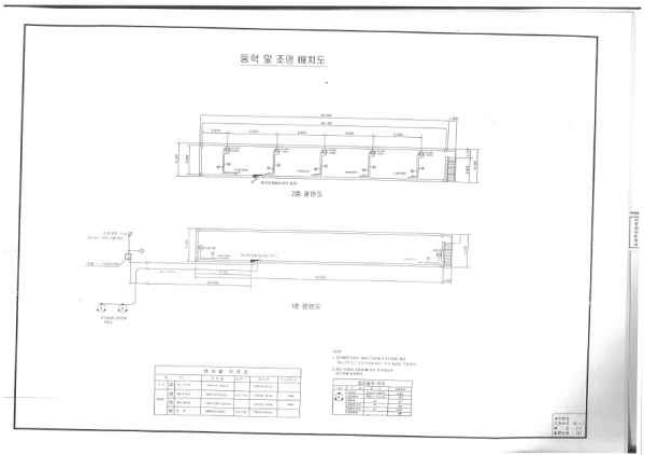

NOTE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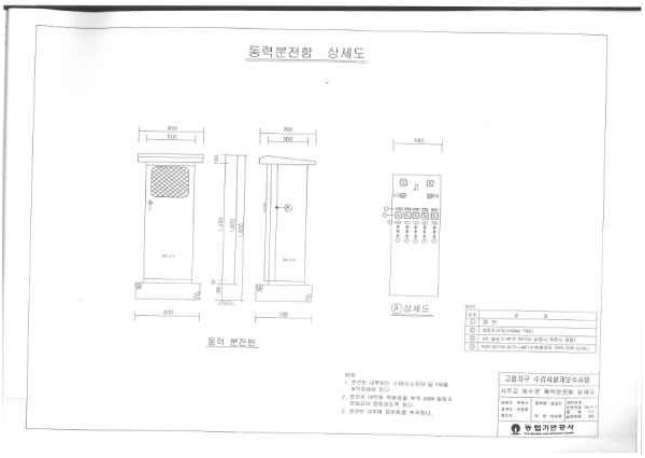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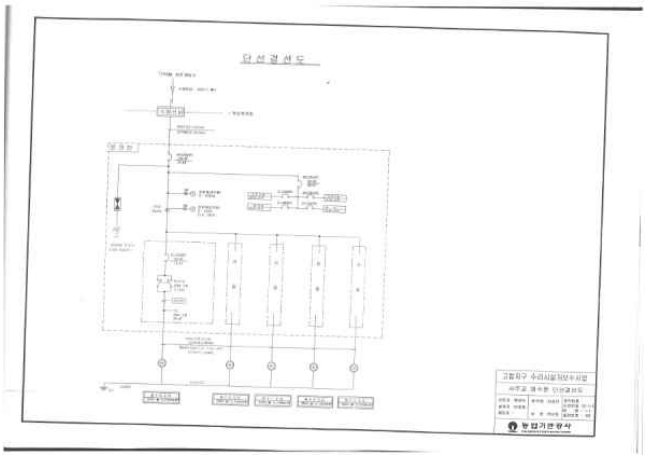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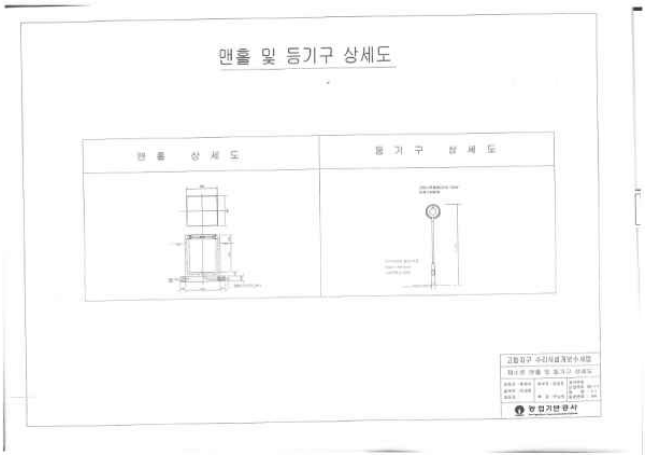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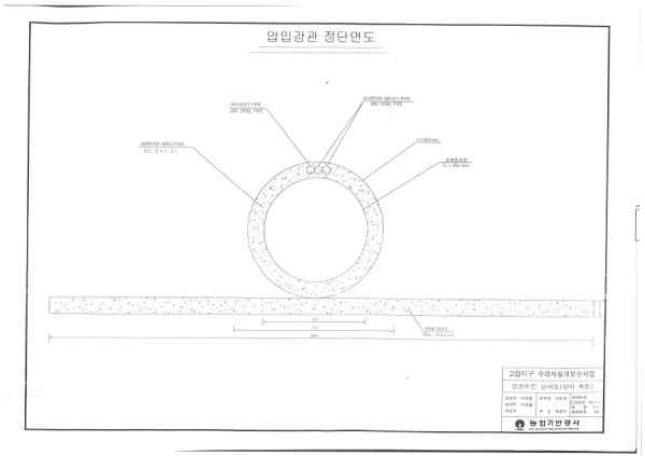

동력 및 조명 배치도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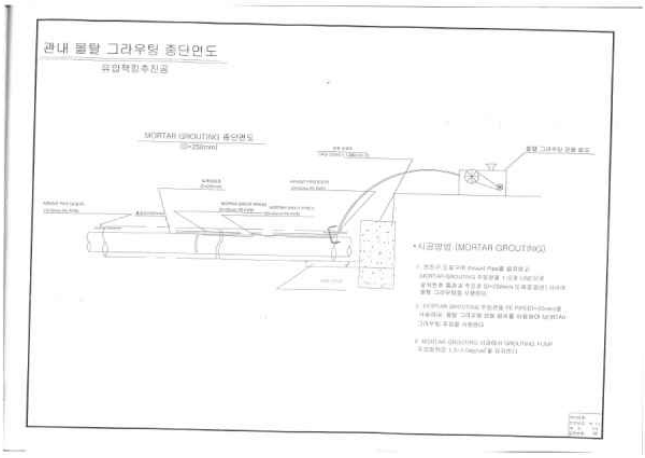

동력 및 조명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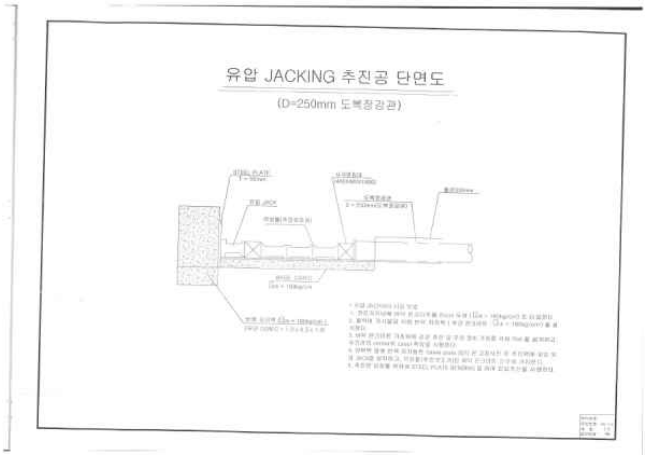

동력분전함 상세도


단선결선도


맨홀 및 등기구 상세도


암입강관 정단면도


관내 몰탈 그라우팅 종단면도
유압책킹추진공


유압 JACKING 추진공 단면도
(D=250mm 도복장강관)

안건번호 근대 2019-11-13

13. 「보은 구 김연국 가옥」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구 김연국 가옥」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보은 구 김연국 가옥」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9.11.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종중(회장 OOO)

(2) 대상문화재명 : 보은 구 김연국 가옥

○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새말길 86-5

○ 용　　도 : (현)재실

○ 소 유 자 : OOO종중(회장 OOO)

○ 건립시기 : 1922년 신축, 1986년 이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98.78㎡(건축물대장)

○ 구　　조 : 한식 목조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OOO(2019.11.4.)

- 김연국의 가옥은 신도안에서 보은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장소성에 있어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의 건물은 ㅡ자형 평면의 칸 수가 6칸에서 7칸으로 늘어나 있고 기둥 하부도 동판을 씌어 원래의 상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원래는 가운데 부분이 대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문을 달아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기능 자체도 상제교의 종교적 기능을 겸한 김연국의 가옥에서 여흥민씨의 재실로 사용되어 기능 자체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11.4.)

- 상제교 창립자인 김연국이 거처한 공간으로서 신흥종교사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장소라고는 할 수 있음.
- 다만, 최초 신축 당시의 상황과 또한 현재의 위치로 이축 하는 과정 등을 고증 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동 가옥이 등록문화재로서의 진정성 등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 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를 검토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11.4.)

- 신청대상 건축물에 역사적 가치, 원형과 이축에 대한 연구와 고증에 대한 자료 조사가 우선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소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과 보존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신청 건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 결**

- 원형과 이축에 대한 고증 자료가 미흡하여 진정성 확인이 어려움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보은 구 김연국 가옥　　(구) 김연국 가옥

2. 용　　도 : (현) 여흥민씨 승지공 사영파 종중 재실　(원) 가옥

3. 소 재 지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새말길 86-5(내망리 110-3)

4. 소 유 자 : OOO종중(주소 : 서울 서초구 동광로 22길 23, 531)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준 공 일 : 1922년 신축, 1986년 이축

○ 수량 및 면적 : 1동(1층) / 건축면적: 198.78㎡

6.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OOO(2019.11.4)>

1) 개요

- 1913년 서울 가회동에서 창립된 동학계의 신흥종교인 천진교(天眞敎) 전신인 시천교 교주인 김연국(金演局; 1857~1944)의 가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김연국은 일찍이 동학에 들어가 최시형의 제자가 되어 손병희와 손잡고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여 대도주가 되었다. 그러나 손병희와 뜻이 맞지 않아 1908년 이용구의 시천교(侍天敎)로 들어가 대례사(大禮師)가 되었다. 이용구 사망 후 1926년 계룡산 신도안에 이전하여 교명을 '상제교(上帝敎)'로 바꾸었다. 이 집은 이전을 위해 신축한 건물로 조선총독부 산하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新都內 寫眞帖』에 의하면 1920년에 기공하여 1922년 3만원 공사비로 완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이후 김연국의 아들 김덕경(金德卿)이 1960년 종통을 이어 받아 '천진교(天眞敎)'로 바꾸었다.
- 이후 1983년~1984년 군본부 계룡대 이전 사업에 따라 여흥민씨 소종중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여 1986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삼승산 선인봉 아래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110의 3번지)에 이축하였다. 조사 대상 건물은 이때 이축한 건물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신도안에 위치하였을 때의 건물 사진을 보면 전체 평면은 L 자 형으로 ㅡ 자형 평면에 누마루가 붙어 있는 형식이다. 누마루에 붙어 있는 ㅡ자형 평면은 6칸을 형성하여 양쪽 2칸씩은 방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운데는 2칸이 대청으로 사용된 듯하다. 누마루의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누마루에 붙어 있는 지붕은 맞배지붕인지

팔작지붕인지가 불명료하다. 누마루에는 창호와 벽체가 없었다. 이는 김연국의 가옥으로 사용되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집회를 하는 종교적 기능으로 누마루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보은의 삼승면 새말길로 이전했을 당시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누마루에 창호와 벽체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현재 보여지는 기둥 밑에 동판으로 감싼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의 건물은 L 자에 붙어 있는 ㅡ자형 평면의 칸 수가 6칸에서 7칸으로 늘어나 있다. 기둥 하부도 동판을 씌어 원래의 상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래는 가운데 부분이 대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문을 달아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김연국의 가옥이 신도안에서 보은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장소성에 있어서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기능 자체도 상제교의 종교적 기능을 겸한 김연국의 가옥에서 여흥민씨의 재실로 사용되어 기능 자체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여흥민씨의 소종중의 재실로 사용되고 있어 건물 자체의 보존에 대한 여건은 양호하고 주변 여건 또한 양호하다. 그러나 이미 건물의 원형에는 변화가 있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원래의 건물의 위치가 신도안에서 보은으로 이전하였고, 여흥민씨의 재실로 사용되어 기능도 변화되었다. 평면의 칸수와 공간 구성도 변화가 되었다.
- 원형과 많은 변화가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원형 사진을 철저하게 고증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대전 자운동의 수운교 본부에 있는 봉령각, 본부 법회당, 용호당, 장실 등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들은 원래의 위치에서 원래 수운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원형을 유지한 채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반면 구 김연국 가옥은 위치에서부터 형태 및 기둥의 하부를 동판으로 감싸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재의 건물은 ㅡ자형 평면의 칸 수가 6칸에서 7칸으로 늘어나 있고 기둥 하부도 동판을 씌어 원래의 상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래는 가운데 부분이 대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문을 달아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김연국의 가옥이 신도안에서 보은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장소성에 있어서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함.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11.4)>

1) 개요
- '구 김연국 가옥'은 신흥종교 '상제교(上帝敎)'의 설립자 김연국(金演局,1857~1944)이 1922년 계룡산 신도안(오늘날 계룡시 계룡대 일대) 지역에 신축한 주거용 건물임. 그 후 '계룡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철거 예정이던 동 가옥을 여흥민씨 소종중에서 매입하여 1986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축(移築)한 뒤, 문중 재실로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음.
- 상제교는 동학(東學)의 한 분파로서 천도교(天道敎) 다음으로 교세를 자랑하던 신흥종교로 1905년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최시형에 이어 제3세 교주가 되자, 김연국은 이용구(李容九)가 조직한 시천교(侍天敎)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용구 사후인 1920년에 교단본부를 서울 가회동에서 계룡산의 신도안으로 이전한 뒤, 1925년에 교명을 상제교로 개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관련 기록에 의하면, 동 가옥은 김연국이 교단본부를 계룡산의 신도안으로 이전하던 해인 1920년에 오늘날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에 터를 잡아 착공하여 2년 뒤인 1922년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보임(…侍天敎主金演局別莊(龍洞里)……大正九年起工同十一年十二月竣工…).
-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당시 시천교의 교주였던 김연국의 별장으로 건립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을 뿐, 최초 가옥의 건립 상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음. 또한 문중측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본래의 가옥을 그대로 현재의 위치로 이축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정황 역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
- 다만, 과거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이축 과정에서 평면 및 입면상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가옥은 크게 삼문과 ㄱ자형의 재실,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위로는 한식담장이 둘러싸고 있음(삼문과 창고는 문중에서 재실로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건립한 시설로 보임).
- 재실은 정면8칸×측면2칸 규모의 一자형 본채와 본채 정면 좌측으로 정면3칸×측면3칸 규모의 내루(內樓)가 덧붙여져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음. 본채 전면과 우측면에는 툇마루를 돌렸으며, 중앙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측을 온돌방으로 구성하였음. 내루는 내부공간을 통칸으로 구성하였고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음.
- 과거(현재의 위치로 이축되기 이전) 사진 자료와 비교해 보면, 이축 과정에서 일부

공간구성(대청마루 및 툇마루)과 지붕형태 등에서 변화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가구(架構)는 대청에서 1고주7량, 내루는 5량으로 짜여져 있고, 기둥 상부에는 주두를 놓고 그 위에 숭어턱맞춤으로 하여 보를 설치하였으며, 주두 아래에는 보아지를 설치하여 보를 받게 하였음. 다만, 과거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원형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지붕 역시, 현재는 본채와 내루 모두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과거 기록사진에 따르면 내루의 경우에는 팔작지붕, 一자형의 본채는 맞배지붕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대청과 내루, 툇마루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음.
- 다만, 기둥 및 보, 연목 등의 용재(用材) 규격과 초석(장주초석 및 원형초석) 등의 형식,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종의 거주용 가옥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과도할 만큼의 재력이 투입되어 건립된 것으로 보임. 즉,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증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의 모습을 알 수 없으나, 문중측 관계자에 따르면 1986년 이축 공사 당시 단청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나, 과거 기록 사진을 근거로 하면 평면 등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현재로서는 원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현재, 여흥민씨 문중에서 재실로 사용하고 있어 일부 목부재가 이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여흥민씨 문중에서는 동학의 한 분파인 상제교의 설립자인 김연국이 거처한 공간으로서 일종의 시대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현재에도 문중에서 재실로 사용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동학 및 신흥종교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인근 초, 중학교 학생의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동 가옥이 상시 거주용 시설이 아닌, 문중 재실로 사용하고 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상제교와 관련된 종교시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으나, 신흥종교 시설로서는 '대전 수운교 봉령각(등록문화재 제331호)' 등이 있음. 다만, 이들 시설과 달리 동 가옥은 건축사적 가치 및 시대적, 인문학적 배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고증 자

료가 부족하여 그 가치를 비교,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상제교 창립자인 김연국이 거처한 공간으로서 신흥종교사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장소라고는 할 수 있음.
- 다만, 최초 신축 당시의 상황과 또한 현재의 위치로 이축 하는 과정 등을 고증 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동 가옥이 등록문화재로서의 진정성 등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 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를 검토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보은 구 김연국 가옥」

<문화재전문위원 OOO(2019.11.4)>

1) 개요
- 동학 천진교(天眞敎)의 전신인 서울 가회동 시천교(侍天敎) 교주 김연국(金演局, 1857~1944)의 가옥으로 당초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에 1922년(충청남도 발행 「신도 내(新都 內) 사진첩」 기록)에 완공됨
- 이후 1980년대 군본부의 계룡대 이전사업으로 대상건물은 1986년 현 위치(충북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110-3)로 이축됨
- 현재는 여흥민씨승자공사영파종중의 재실로 사용되어 있으며, 사모각(思慕閣)으로 불리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김연국 가옥은 폭 4M이하의 비포장길(새말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가옥은 전체적으로 'ㄱ' 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지는 북동과 남서 방향의 45도 방향의 축을 갖는 장방형의 대지이며 건축물의 배치는 북서쪽에 위치한 솟을삼문을 통해 진입하고 정면에 마주하는 본채와 좌측에 누각이 앞툇마루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마당의 우측에 부속동이 위치함
-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김연국 가옥의 전체 연면적은 198.79㎡이며, 정면8칸 측면 2칸의 규모의 건축물로, 3칸 규모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3칸, 우측에 2칸과 툇마루로 구성되어 있음.
- 누각은 본채의 좌측 두칸과 앞툇마루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으며, 각 실의 용도는 좌측부터 주방(1칸 규모)과 방(2칸 규모), 중앙부에 대청마루(3칸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대청 우측편의 2칸은 각각 1칸 규모 방이 두 개가 연속되어있음.
- 본채는 주거와 재실(대청마루)로 사용되고 있으며, 누마루는 집기류 등을 보관하는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음.
- 기단은 마당에서 4단 규모의 화강석 기단이며 원형 초석 위 원형기둥이 세워짐

- 지붕은 팔작지붕에 겹처마 구조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22년 건립 이후 이축전 촬영된 사진자료와 비교했을 때 우측면에 툇마루의 형성 여부와 정면 상인방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김연국 가옥의 목구조 부재의 상태는 양호하고 이격이나 뒤틀림 등의 현상은 확인되지 않음.
- 이축된지 약30년이 경과하였고 전반적으로 벽체와 지붕의 상태도 양호함.
- 기단 상부 이질의 대리석판석과 콘크리트 미장 마감 등은 원형이 아닌 이축시 변형된 것으로 사료됨.
- 1922년 건립당시 도면 등이 남아있지 않고, 이축 당시 해체와 건립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원형에 대한 진정성의 확인이 어려움.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상건축물은 보은 삼승탄부로에서 직선거리 800m의 삼승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음.
- 건립이후 건축물의 활용 용도가 불명확하고, 건축물의 이축에 관련된 이력과 고증자료가 부족하여 향후 원형에 대한 보존 근거가 약하고, 현재 제실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활용여건 변화가 예측 불가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이축 이후 사용 연한의 경과 년수가 짧고, 건물의 내·외부와 주변 시설이 거주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비교적 관리 상태가 양호함
- 원형에 대한 수리 등에 이력이 없고, 배치 형태와 가옥에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 보존관리에 관한 계획이 미수립 되어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청자료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에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보존과 활용계획이 수립이 필요함
다. 기타사항
- 신청대상 건축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증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며 역사와 장소, 학술적 가치 등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고증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광주 광산구 장덕동 근대한옥(등록문화재 제146호)은 1920년대 건립되었으며 효령대군의 손자인 율원군의 후손들이 거주한 주택으로 근대기에 지어진 개량한옥이다. 이 가옥은 2004년에 수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조상 대대로 살던 터와 가옥을 지키고자하는 소유자의 강력한 의지로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이전하여 보존되고 있음, 장덕동 근대한옥은 기단부와 축부, 지붕부 및 주변정비 등 전반적인 보존과 관리상태가 양호함

-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검토해 볼 때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기록과, 건축에 대한 기술, 형태와 시대성의 반영 등과 같은 문화재 등록을 위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특정할 수 없음.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신청대상 건축물에 역사적 가치, 원형과 이축에 대한 연구와 고증에 대한 자료 조사가 우선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소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과 보존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신청 건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명칭은 '보은 김연국 가옥'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됨

안건번호 근대 2019-11-14

14.「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 6~10월) 등에서 조사된「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7.3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총 5종 11점)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3종 6점	편지 20.3×25.2㎝, 봉투 9.7×15.0㎝ 등	1932년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2종 5점	이력서 28.0×17.8㎝, 봉투 14.7×10.3㎝ 등			

(2) 추진경과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6~10월)
- 유상근 및 이덕주 이력서, 이덕주 서간문 등 조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9. 7. 31.)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등록 명칭·번호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1) 김영구 관련 자료
○ '김영구(유상근 추정)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의 등록 여부
- 해당 유물을 타 건들과 함께 등록
- 보류 후 나머지 건들에 대하여만 등록

○ 김영구 관련 자료 등록 시, 명칭 관련 검토의견
- (1안) 김영구(유상근 추정)
- (2안) 김영구(유상근)
- (3안) 유상근

2) 등록 번호 및 명칭 관련 검토의견
○ (1안) 문화재 종류별로 묶어서 부여
- 000-1호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 000-2호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 (2안) 문화재 종류별로 묶어서 부여하되, 인물 이름 병기
* 기등록된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와의 통일성 측면
- 000-1호 한인애국단원(김영구(유상근), 최흥식, 이덕주) 편지 및 봉투
- 000-2호 한인애국단원(유상근, 이덕주,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 (3안) 모두 등록번호 각각 부여
- 등록번호 : 000-1호 ~ 000-5호
- 등록 명칭
· (1안 / 예시) : 최흥식이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 (2안 / 예시) : 최흥식 편지 및 봉투
* 기등록된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와 통일성 유지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라. 세부목록

1.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3종 6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규격
1	김영구(유상근 추정)가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2점 (편지1, 봉투1)	ㅇ편지: 25.2×20.3㎝ ㅇ봉투: 9.7×15.0㎝
2	최흥식이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2점 (편지1, 봉투1)	ㅇ편지: 26.0×24.4㎝ ㅇ봉투: 8.9×18.0㎝
3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2점 (편지1, 봉투1)	ㅇ편지: 17.9×26.1㎝ ㅇ봉투: 8.5×20.8㎝

2.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2종 5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규격
1	유상근, 이덕주 이력서 및 봉투	3점 (이력서2, 봉투1)	ㅇ 유상근 이력서(2장) : 17.8×28.0㎝ ㅇ 이덕주 이력서(1장) : 24.9×16.2㎝ ㅇ봉투 : 10.3×14.7㎝
2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2점 (이력서1, 봉투1)	ㅇ이력서: 17.8×26.1㎝ ㅇ봉투 10.3×14.7㎝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OOO 문화재위원(2019.7.31.)
- 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은 1931년 김구가 소수의 인원으로 일본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인애국단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자료임. 해당 자료들은 그들의 활동과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희귀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등록방식은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은 "-1",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는 "-2"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ㅇ OOO 대구대학교 교수(2019.7.31.)
- 한인애국단원의 이력서, 봉투, 편지는 김구의 기획으로 창건된 한인애국단원의 활동상과 이력 등을 보여주는 자료임. 편지 및 봉투류는 국내 및 만주의거의 추진 실황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이며, 이력서는 청년 독립투사들의 신상을 가장 정확히 밝혀줄 원본 희귀자료임. 해당 유물들은 한인애국단의 국내외 거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ㅇ OOO 서강대학교 교수(2019.7.31.)
-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초 김구의 주도하에 일본 수뇌 암살을 목적으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였으며, 이들의 의열투쟁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큼. 이들의 의열투쟁은 비밀스럽게 전개되어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해당 유물들은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음. 따라서 이들 자료들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등록명칭은
· 000-1호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 000-2호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ㅇ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1>

「한인애국단 관련 문건」 조사보고서

1. 명　　칭 : 한인애국단 관련 문건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3. 소 유 자 : 국립중앙박물관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위원(2019.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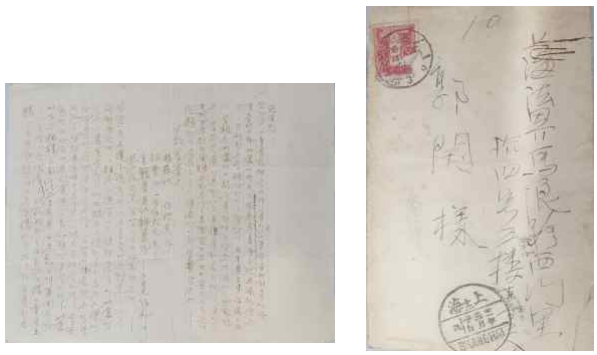
1) 현상 : 부분적인 보존처리 필요
2) 내용 및 특징
- ○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은 김구(1876~1949)가 소수의 인원으로 일본에 최대한 타격을 주는 한편,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931년 10월 일본 정부 및 군부 수뇌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임. 이 단체의 간부는 단장 김구를 비롯해 이유필(李裕弼, 1885~1945), 이수봉(李秀峰, 1896~1933), 안공근(安恭根, 1889~1940) 등이며, 단원으로는 이봉창(李奉昌, 1900~1932), 윤봉길(尹奉吉, 1908~1932), 이덕주(李德柱, 1909~1935), 유진만(兪鎭萬; 異名은 兪鎭軾, 1912~1966), 최흥식(崔興植, 1909~1932), 유상근(柳相根, 1910~1945) 등이었음. 1932년 4월에 이덕주, 유진만의 조선총독암살미수사건, 최흥식, 유상근의 국제연맹조사단원암살미수사건 등이 발각되어 배후인 이 단체가 알려지게 되었음.
- ○ 이번에 조사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한인애국단 유물은 1932년 5월 5일에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1932년 5년 28일에 최흥식이 곽윤에게 보낸 편지, 1932년 3월 31일에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1932년에 작성된 유상근과 이덕주의 이력서, 1932년 3월 18일에 작성된 유진식(兪鎭軾, 유진만의 異名)의 이력서 등 6점임. 이 6점은 이력서와 편지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므로 둘로 나누어 살피면 다음과 같음.

가.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1) 김영구(유상근 추정)가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편지:20.3×25.2㎝, 봉투:9.7×15.0㎝)

- ○ 김영구(金永九)가 [1932]년 5월 5일 저녁에 써서 곽윤(郭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임. 김영구는 유상근(柳相根, 1910~1945)의 암호명 또는 이명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1932년 거사를 앞두고 곽윤(김구)에게 편지를 보낸 한인애국단원이었다는 점과 유상근 이력서의 자필서체와 이 편지의 서체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됨. 그러나 "<자료1> 김정구와 유상근 글씨체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의 서체 감정으로도 동일인으로 확증하기가 어렵다고 하므로 여기에서는 김영구(유상근 추정)으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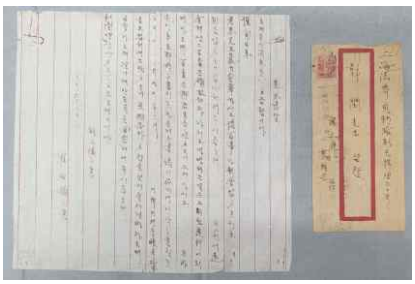
- ○ 편지는 백지에 검은 잉크로 쓰여져 있으며, 반흘림체의 국한문 혼용문이다. 편지 봉투의 발신인은 대련 북대산통의 김영구, 수신인은 상해의 곽윤임. 내용은 "학교 입학은 걱정 없으며 학비를 보내어 주되 그 가부를 속히 회신해 달라."는 것이나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알기가 어려움. 편지를 쓴 시기는 편지 끝의 "伍月五日夕"과 같이 1932년 5월 5일임.



<사진1> 김영구(유상근 추정)가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2) 최흥식이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편지:26.0×24.4㎝, 봉투:18.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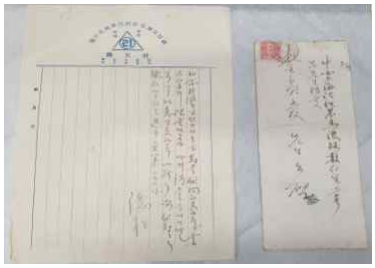
- ○ 1932년 5년 28일에 최흥식(崔興植, 1909~1932)이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임. 최흥식은 1931년에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뒤 이듬해 국제연맹조사단 환영식 참석을 위해 방문할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本庄繁) 등을 암살하기 위해 만주로 갔음. 그러나 이듬해 5월 국제연맹조사단이 대련(大連)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련에서 잠복하던 중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였음. 1968년에 대통령표창, 1991년에 건국훈장애국장이 추서되었음.
- ○ 이 편지는 1932년 5월 대련에 잠복할 때 김구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되며, 『白凡金九全集』 제4권(587~588)에 수록되어 있음. 편지는 백지에 붉은 줄이 있는 얇은 종이에 검은 잉크로 쓰여 져 있으며, 국한문혼용체임. 편지봉투의 발신인은 대련의 최흥식이고, 수신인은 상해의 곽윤임.
- ○ 내용은 "전에 송금해준 2백만은 수령하였고,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며 1백만은 柳君(유상근 추정)에게 주었으니 그리 아십시오. 돈을 받고 즉시 편지를 보내지 못한 것은 사정이 있었으니 그리 알아 달라." 또 "뱃사람을 교섭하였으니 물품과 사람을 보내주시되 빨리 회답해 달라."는 것임. 거사하기 직전의 긴급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임.



<사진2>최흥식이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3)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편지: 26.1×17.9㎝, 봉투:20.8×8.5㎝)

- ○ 1932년 3월 31일에 이덕주(李德柱, 1909~1935)가 김정애(金貞愛)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임. "朝鮮黃海道信川邑李商店用箋"이라고 찍힌 전용지에 검은 잉크로 쓰여져 있으며 국한문혼용문임. 발신인은 이덕주이고 수신인은 상해의 김정애임. 내용은 "회신이 없어서 궁금하고 현재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임.
- ○ 이덕주는 황해도 신천읍(信川邑)에서 1909년 1월 2일에 태어났고, 17세에 과수업(果樹業), 19세에는 재목상을 하다가 20세에 상해로 갔음. 신천읍 이상점 전용지에 쓴 이 편지는 그가 재목상을 할 때의 전용지를 보관하였다가 이때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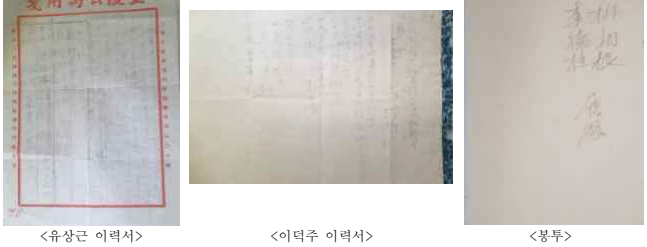


<사진3>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나.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1) 유상근 · 이덕주 이력서 및 봉투
(유상근 이력서(2장): 28.0×17.8㎝, 이덕주 이력서(1장): 24.9×16.2㎝, 봉투: 14.7×10.3㎝)

- ○ 1932년에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상근(2장)과 이덕주(1장)의 이력서 2점(3장)이 하나의 봉투에 삽입되어 있음.
- ○ 유상근 이력서는 "金陵公寓用箋"이라는 문자가 붉은 색으로 인쇄된 용지에 연필로 쓰여져 있으며, 반흘림체의 국한문혼용문임. 전용지의 "금릉공우(金陵公寓)"란 단동(安東) 포백로(蒲柏路)에 있는 여관으로 그가 숙박했던 곳으로 추정됨.
- ○ 유상근(柳相根, 1910~1945)은 강원도 통천군(通川郡)에서 태어났음.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유춘기(柳春基), 어머니는 김성녀(金姓女)고, 김구의 소개로 버스공사로 직장을 얻어 9개월 일하다가 다시 홍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함. 유상근은 만주국의 일본요인을 처단하기 위해 김구의 지시를 받고 대련에 도착하였음. 그러나 결행 이틀 전인 5월 24일 새벽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하루 앞둔 1945년 8월 14일 순국하였음.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음.
- ○ 이덕주 이력서는 백지에 연필로 흘림체로 쓰여 져 있으며, 국한혼용문임. 이덕주(李德柱, 1909~1935)는 황해도 신천읍(信川邑)에서 1909년 1월 2일에 태어났고, 17세에 과수업(果樹業), 19세에는 재목상을 하다가 20세에 상해로 갔음. 아버지는 이원국(李源國), 어머니는 배현후(裵賢厚)임. 1926년에 중국으로 가서 항일 거사를 준비하다가 1932년 4월에 잡혀 복역 중에 옥사하였음.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음.



<유상근 이력서>　　<이덕주 이력서>　　<봉투>

<사진4> 유상근(右上) · 이덕주(左上)의 이력서 및 봉투(左下)

2)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이력서: 26.1×17.8㎝ , 봉투 10.3×14.7㎝)

- ○ 1932년 3월 18일에 작성한 유진식(兪鎭軾, 1912~1966)의 이력서임. 봉투에 쓰여진

"兪鎭軾 履歷"은 김구의 글씨임. 이력서는 주색으로 된 쌍변의 테두리가 있는 14행의 백지에 검은 잉크로 국한문흘림체로 쓰여 져 있음. 4장의 이력서는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묶어 놓았음. 이력서에는 자신의 가계와 학력, 경력 등이 자세히 적혀져 있음. 그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재학했으며, 주로 충청도에서 동맹휴학·파업·폭동을 선동하고 격문을 살포하는 등 항일운동을 하였음. 이력서 말미에 그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음.

> 革命은 大衆의 覺性과 支持를 必須條件으로 하노니
> 目的을 達成하려면 좀 더 宣傳에 主力을 기울여
> 大衆을 引受함과 共히 自治的 精神下에
> 團體的 訓練을 圖謀하라.

○ 유진식의 다른 이름은 진만(鎭万·振萬), 진식(鎭軾) 등이나 유진만(兪鎭萬)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음. 출생은 경기도 광주군이고, 당시 거주지는 충남 공주읍이었음. 1932년 1월 상해에서 한국 청년들의 혁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인청년당(韓人靑年黨)을 조직하였고, 김구가 주도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하였음. 1932년 3월에 조선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등을 암살하기 위하여 이덕주와 함께 입국하였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음.

<사진5> 유진식(兪鎭軾) 이력서 및 봉투

<자료1> 김영구와 유상근 글씨체 분석 결과

○ 한편 김영구와 유상근이 동일인으로 추정되어 4명의 전문가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동일인으로 확신 1명, 동일인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음 1명,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있음 1명, 유사점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동일인으로 단언할 수는 없음 1명" 등으로 나타났음.

○ 오래된 편지의 서체의 흔적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영구(유상근 추정)"으로 명칭에 반영하고, 후일 동일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록이나 유물이 발견되면 그 때 "(추정)"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듯함.

> 1) 강태이(전문위원): "김영구의 서간문에 기재된 필적과 유상근의 이력서에 기재된 필적은 필법 및 자획의 구성형태 등에서 여러 유사점이 관찰되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음."
>
> 2) 곽노봉(전 위원): "동일인이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유사한 점이 너무 많음. 따라서 동일인 쓴 것이라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3) 김남형(전문위원): "유사점과 상이점이 함께 발견됨. 이력서는 22세에 쓰여 진 것이고 서간문은 중년이후(?)에 쓰여 졌기 때문일 수도 있음. 서풍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력서 필적의 선명도가 너무 낮아 단언할 수는 없음."
>
> 4) 선주선(전 위원): "동일인의 필적임이 증명될 것으로 보며, 직관상 一見시에도 또한 그러하기에 두 문건은 동일인의 필적임을 확인함."

3) 참고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2. 서한집.

○ 『白凡金九全集』 제4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와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는 1932년에 소규모의 인원으로 일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중국과는 친교를 더하겠다는 의도로 설립된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료임. 당시 성공하지 못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이나 단원 그리고 그들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거의 유일함. 이와 같이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시대 중국내에서 활동

하던 한일애국단에 관련된 희귀한 자료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항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등록방식은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은 "-1",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는 "-2"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OOO 대구대학교 교수(2019.7.31.)>

1) 형식

○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柳相根 이력서는 상단 가로 좌향의 '金陵公寓用箋'이라는 朱色 모필 큰 글씨와 우측 세로의 "上海 法租界 蒲柏路 蘭馨坊 第四〇六號" 및 좌측의 "新建 三層 朝南洋房地點 適中空氣充足"이라는 朱色의 활판 작은 글씨로 둘러싸인 굵은 4각선 안의 괘선지에, 李德柱 이력서는 갱지에, 우측에서 시작하여 좌향 식의 국한문 縱書로 작성되어 있음

○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이력서는 굵은 4각선 안의 세로 괘선지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나갔고, 사항마다 '一.'을 적어 구분하며 국한문의 縱書로 작성

○ 한인애국단원 이덕주 편지 및 봉투

- 편지는 木材商의 사무용 괘선지에 국한문의 縱書로 작성

○ 한인애국단원 최흥식 편지 및 봉투

- 백지에 직접 선을 그어 만든 괘선지에 국한문 縱書.
  편지 작성 후 2장을 가로로 이어 붙여 1장으로 만든 흔적이 보임

○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

- 편지는 괘선 백지 2장에 국한문 縱書. 봉투는 장방형 사각.

2) 현상

○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조성연대 : 1932.2.24.)

- 두 장의 이력서는 가로, 세로로 한 번씩 접혔던 흔적 외에는 여하한 훼손 없이 상태 양호하며, 全文 판독이 거의 가능할 만큼 正字의 필서임. 다만 유상근 이력서의 제1면은 글씨가 흐릿해져 판독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음.
- 두 이력서를 같이 담고 있던 가로장방형 봉투의 앞면에는 白凡 金九의 필체로 "柳相根 李德柱 履歷"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씌어 있고 역시 상태 양호함. 봉투의 뒷면은 아무 표기 없이 봉함용 날개만 달려 있음

○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조성연대 : 1932.3.10.)

- 이력서와 봉투 모두 전문의 완전판독이 가능하리만큼 충분한 필압의 正字 필서로 작성되었음. 이력서는 3장을 겹쳐 오른쪽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고 흰색 실끈으

로 묶었으며, 두 번 접혔던 흔적 외에는 훼손 없이 상태 양호함

○ 한인애국단원 이덕주 편지 및 봉투(조성연대 : 1932.3.31)

- 편지와 봉투 둘 다 명료한 필체여서 전문 판독되며, 훼손 없이 상태 양호함

○ 한인애국단원 최흥식 편지 및 봉투(조성연대 : 1932.5.28.)

- 편지와 봉투 둘 다 명료한 필체여서 전문 판독됨. 얇은 미농지인 편지지의 좌우 양측 상단에 약간의 찢김과 천공이 생겨 있고, 그것 말고는 다른 훼손 없이 대체로 상태 양호함.

○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조성연대 : 1932.5.5.)

- 편지와 봉투 둘 다 정자체로 또박또박 쓴 글씨체여서 전문판독이 가능하고 보존상태 양호함.

3) 내용 및 특징

가.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① 유상근 이력서에는 원적과 나이를 적은 후, 작성 시점까지의 이력 내용을 소년기의 학력, 가족 전체의 북간도행 출향과 그 후의 수차 이주, 혼자만의 하얼빈→대련→상해→홍콩→광동→상해 전전 경험과 직업 경력 순으로 요약해 서술하고, 부모·형제들의 가족사항도 본인과의 관계 및 성명을 열거하는 식으로 모두 밝혀 적었음. 또한 상해에서 김구의 소개로 직업을 얻은 적이 있으며, 民團 義警隊員을 거쳐 韓人愛國團員이 되어 특별 임무를 받고 2월 24일에 某處[大連임]로 향한다고 적어놓았음.

이력서 제1면의 사각선 밖 우측에 북간도의 가족 주소를 '現住'로 적어놓았으니, 만일의 경우에는 그리로 알려주기를 바라는 뜻을 표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본인 성명과 작성일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앞의 '2월 24일'이 본 이력서의 작성일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터임.

② 이덕주 이력서는 원적(황해도 신천읍) 및 현적(상동), 생년월일(檀紀로 표기했는데 서기로는 1909년에 해당), 본인 성명을 차례대로 적은 후, 유년기 이후 현재까지의 학력과 직업경력을 5행으로 간단히 열거해 적고, 마지막 행에 20세 때[1928년 혹은 1929년에] 상해로 왔음을 밝혀 적었으며, 맨 마지막에 부모와 백형·중형의 이름을 적어놓았음. 유상근 이력서에 비하면 내용이 간략하고 速筆로 쓰인 것으로 보이니, 본인의 快淡한 성품의 일단을 드러내 보여주는 듯도 함. 작성일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③ 유상근 이력서의 우측 상단에 '22', 이덕주의 이력서에도 같은 위치에 '23'이 적혀 있음. 이는 김구가 받아 보관해두려 했던 이력서 류의 일련번호였던 것으로 보임. 이 번호는 봉투에도 똑같이 병기되어 있음.

나.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① 이력서 작성자인 兪鎭軾은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면서 내용도 신뢰할 수 있게끔 쓰려 했음이 엿보임.

② '이력서'라는 제목을 적고, 출생지(경기도 광주군), 주소, 이름, 생년(단기 4245년 즉 서기 1912년)과 월일을 차례로 적은 후, '가사, 학업'이라는 소제목 아래 번호를 붙여가며 만5세('5년')부터 만19세까지의 수학경력과 8개월간의 투옥 경험을 적었음. 이어서 '사회'라는 소제목 아래 만15세부터 만20세(즉 1932년) 1월까지의 학생·사회단체 활동 및 항일운동 경력을 상세히 적었음. 1932년 1월에 '상해한인독립운동청년동맹'의 위원으로 피선되자 동맹의 개조를 목적으로 유상근과 함께 해소-재조직을 부르짖어 '상해한인청년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당의·당강·당칙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同黨의 이사로 재직 중임을 밝혔음. 그리고는 작성일(4265년 3월 10일; 18일이 아님)과 이름을 적은 후, 혁명은 대중적 참여와 지지에 기초해야 한다는 소신도 두 줄로 첨기하였음.

③ 이력서의 우측 상단에 '24'라는 숫자가 연필로 별기되어 있으니, 이는 유상근과 이덕주의 이력서 번호에 바로 이어지는 숫자였고, 김구가 받아 보관해두려 한 이력서 류의 일련번호였음이 확실시됨.

④ 이력서가 두 번 접어 담긴 장방형의 봉투 앞면에는 백범 김구의 필체로 '유진식 이력'이라는 글씨가 한자로 크게 씌어 있고, 그 중 '식'은 '植'이라 썼다가 〈 표시를 해 지우고 '軾'으로 고쳤음. 봉투 상단에도 '24'라는 숫자가 연필로 별기되어 있음. 봉투의 뒷면은 아무런 표기 없이 봉함용 날개만 달려 있음.

다. 한인애국단원 이덕주 편지 및 봉투

① 장방형의 사각봉투 앞면의 수신자는 "中國 上海 法租界 馬浪路 敦仁里 三号 呂先生 轉交 金貞受 先生님 啓"라고 달필로 적혀 있고, 3전짜리 '대일본제국 우표'가 붙여진 위에 3월 31일자 소인이 찍혀 있음. 위 주소의 '여선생'이 누구인지는 판명되지 않으나, '김정수'는 김구가 통신연락용으로 만든 가명이었을 것으로 보임.
봉투 뒷면에는 주소 없이 '信川 宵'라고만 발신인을 적었고, 그 위에 '상해, [민국]21년[1932] 4월 10일 11[시?]'로 도착지 우편국의 스탬프가 찍혀있음. 이 편지 및 봉투의 진위 여부가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해지는 대목임.

② 편지지 상단에 황해도 신천읍의 합자회사 목재상인 李商店의 用箋으로 인쇄되어 있음.

③ 속필의 흘려쓰기로 적힌 편지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음. "日前 片紙난 보섯

난지오 下敎을 伏聞치 못하와 궁금하옵기 限量 엄나이다 나의 請을 들어시면 萬事如意일듯 하오니 以后事 次伏望了 現在 나로서는 速[束]手無策이나이다 德柱".
이는 김구로부터 특별임무 수행을 명령받고 상해에서 국내로 들어와 연고지인 황해도 신천에 잠복해있던 이덕주가 앞서 보낸 도착보고 서신에 답신이 없음을 의아해하면서 속히 행동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 한인애국단원 최흥식 편지 및 봉투

① 장방형의 봉투 앞면 우측에 수신자가 "上海 法界 貝勒路 新天祥里 二十号 郭潤先生 台啓"로, 좌측 아래쪽에 발신자가 "寓 大連 崔興植"으로 적혀 있음.
발행처 판독불능인 3전짜리 우표에 일자도 판독되지 않는 소인이 찍혀 있음.

② 봉투 뒷면에는 상단의 봉함 부위에 '緘封'이라고 적혔고, 세로 방향의 중간 접착선을 따라 "五月 二十八日"이라고 발송일이 적혀있음. 소인이 반쯤 찍혀 있는데, 도착지가 상해 우편국인 것만 알 수 있고 일자 등의 다른 부분은 판독되지 않음.

③ '先生님 앞'이라고 서두를 연 편지는 선생의 안부를 묻고 나서 자신도 별고 없이 잘 있다고 하였으며, 일전에 송금해준 200弗을 잘 수령하여 일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음과 아울러 그 중 100弗은 柳君에게 주었다고 적었음. '유군'이란 한인애국단의 만주거사를 위해 최흥식보다 한 달쯤 먼저 특파되어 대련에 가있던 柳相根을 말하는 것임.
이어서 이쪽에서는 뱃사람을 교섭해 놓았으니 곧 물품과 사람을 보내주길 바라며 일자가 오래 걸리지 않도록 바로 회답해 달라고 적었음. 그리고 "5월 28일 최흥식 上書"라고 적어놓아 작성일과 본명이 확인됨. 여기서의 '물품'이란 거사용 폭탄, '사람'은 거사 실행자, '뱃사람'은 현지 조력자를 가리키는 隱語였을 터임.
요컨대 이 편지는 최흥식 본인이 상해를 떠나오기 전에 受命했던 거사실행 준비가 대련에서 상당 부분 진행 완료되었음을 暗喩的으로 보고하면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호이기도 했던 것임.

④ 관련 자료와 연구결과(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732-748쪽;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9-274쪽)에 따르면, 이 편지 봉투의 '郭潤'은 김구의 작전용 가명, 쓰인 주소지는 김구의 오른팔 격이던 嚴恒燮의 거처였다고 함.

마.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

① 봉투 앞면에는 "上海 法界 馬浪路 西門里 拾四号 三樓 專[轉]交 郭潤 様"으로 수신인이 적혔고, 3전짜리 '대일본제국우표' 위에 찍힌 소인은 大連 우편국의 21년[1932] 5월 5일자인 것으로 판독됨.
봉투 뒷면에는 "大連 北大山通 二—五(혹은 二ノ五?) (金)正順方 金永九 拜上"으로 발신인이 적혔고, 겹치고 뭉개져버린 듯한 3개의 소인 옆에 반 정도만 찍힌

소인이 있는데 '上'자가 보이니 수신지인 상해 우편국의 것일 터임.

② 관련 자료와 연구결과(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732-748쪽;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9-274쪽)에 따르면, 이 편지 봉투의 '郭潤'은 김구의 작전용 가명, 쓰인 주소지는 김구의 오른팔 격이던 嚴恒燮의 거처였다고 함.

③ 편지 서두에 "앗가도 上書을 하였"는데 "굳이 또 붓슬 들게 되"었다고 썼음. 그리고는 입학참고서와 옥편을 구한 얘기, 입학 예정 학교가 바뀐 사정, 일기가 춥지만 감기는 안 들었다는 소식, 교복대·여비·서적비·기타잡비 등으로 도합 5백원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장래의 성공을 기약한다는 다짐 등이 이어짐. 그런데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만 송금해주기를 신신당부하는 대목에 이르면, 위 내용이 단순 학비지원 호소가 아니라 다른 목적의 자금지원을 거듭 요청하면서 보안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인 것임을 엿볼 수 있음.

④ 편지 중간에 "此處에 있는 植樣"을 거명하면서 그가 전에 부쳐 받은 200元을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80원을 추가지원 요청했음을 환기시킴과 아울러 본인의 돈을 나누어 쓰고 있다고 적었음. 문제의 인물 '植'은 만주거사를 위해 유상근의 뒤를 이어 특파되고 대련에 도착해 있던 崔興植인 것이 분명함. 이 건과 같이 심의될 문건인 '한인애국단원 최흥식 편지 및 봉투'와 그것의 문화재등록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점이 입증됨.

⑤ 한인애국단의 만주(대련)거사에 관한 김구의 회고, 일제관헌의 정보 및 수사보고 자료들과 기왕의 연구결과로 볼 때 그 거사계획에 가담했거나 관련이 된 인물 중에 '김영구'라는 이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없었음. 따라서 이 편지의 발신인인 '김영구'란 누군가의 보안용 가명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본 보고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실물조사(2019.7.31)에 참여했을 때 이 편지 및 봉투의 필체와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의 자필 이력서 필체가 매우 흡사함을 발견하고, 조사진의 상의 결과 동일 필적 여부 감식 판정을 사계 전문가에게 위촉토록 동행 실무자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은 이행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도 받아보게 되었음. 그 결과, 감정인 4인 중 3인의 의견이 두 문서의 필적은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보아야만 한인애국단 만주거사 기획의 실제적 맥락 및 전후 정황과도 부합함.

⑥ 이 편지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부주의하게도 본인의 실명을 편지에 노출시켰던 최흥식과는 달리 유상근은 통신보안에 매우 유의했으며 그래서 영리하게도 거사 실행을 '입학'으로, 거사용 폭탄과 권총 등을 '입학참고서'와 '옥편'으로, 거사비용을 '학비'로 代喩하고 발신인도 임시 가명 '김영구'로 위장하여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것임. 따라서 이 문서의 명칭도 당초의 관리명칭이던 '김영구 편지 및 봉투'가 아니라 사실과 상부하게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고 사료되는 것임.

4) 기타 참고사항

① 한인애국단의 국내의거 계획과 좌절 (개요)
1931년 12월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장 김구에게 전권이 위임되어 임정 직할의 특임 결사대로 발족한 비밀조직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의 도쿄의거를 필두로 윤봉길의 상해의거, 유상근 등의 대련의거 등을 기획, 추진했음. 김구는 상해의거와 대련의거에 앞서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를 암살 처단키 위한 국내의거를 기획하고 그 실행요원으로 兪鎭軾과 이덕주를 3월 초순부터 밀파했는데, 이덕주는 고향 신천에서 거사실행의 명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중에 일경의 첩보망에 포착되어 1932년 4월 중~하순경에 유진식과 더불어 체포되고 말아서 거사가 실행되지 못하였고, 이는 후속거사로 예정되고 있던 대련거사 계획의 탄로와 실패로도 이어지고 말았음.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732-748쪽;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3-258쪽.

② 한인애국단의 대련의거 계획과 좌절 (개요)
1931년 12월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장 김구에게 전권이 위임되어 임정 직할의 특임 결사대로 발족한 비밀조직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의 도쿄의거를 필두로 윤봉길의 상해의거, 유진식·이덕주의 국내의거 등을 기획, 추진했음. 위의 두 의거를 추진함과 동시에 김구는 만주사변 발발의 진상을 조사 파악하려는 국제연맹 리튼조사단의 入滿 시점을 노려 관동군사령관 本庄繁, 만철 총재 內田康哉 등의 폭살 응징을 위한 의거를 기획하고, 그 실행요원으로 상해교민단 의경대원 유상근과 최흥식을 1932년 2월과 4월에 만주로 밀파하였음. 조사단의 행로를 따르며 여러 도시를 거쳐가다 최후로 대련에 도착한 유상근·최흥식은 李盛元·李盛發 형제의 협조를 받으며 거사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그 정황이 일제 정보망에 포착되어 5월말 경에 체포되고 마니, 대련의거 계획은 결국 실행이 좌절되어버렸음.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732-748쪽;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9-274쪽.

③ 유상근의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ㅇ이명: 朱天懸

ㅇ생년월일 미상, 사망 1945년(추정)

ㅇ본적: 강원도 통천군 順嶺面 五柳里 186

ㅇ주소: 間島 延吉縣 蜂密溝 甲山村

ㅇ생애와 공적: "10세 때 통천보통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던 중 1923년 가족이 북간도로 이주함에 따라 길림성 연길현 이도구(吉林省 延吉縣 二道溝)로 들어갔다가 다시 봉밀구 갑산촌(蜂密溝 甲山村)으로 옮겨 약 1년 반 동안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 16세 때에 다시 용정촌(龍井村)으로 옮겨 동명학교(東明學校)에 들어가 1년간 수업하다가 가정형편으로 중도 포기하고 야학을 설치하여 거류동포들의 계몽사업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 후 다시 화룡현(和龍縣)으로 이사하여 19세 때에는 하얼빈에 있는 이모부 이종익(李鍾翊)의 집에 우거(寓居)하게 되었다. 21세 되던 1930년 이모부에게서 약간의 노자를 얻어 하얼빈을 떠나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국무위원의 일원인 백범 김구(白凡 金九)를 만났으며, 백범의 소개로 우선 영국인 경영의 버스회사의 검표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주 백범을 찾아 독립운동의 방략을 듣고 헌신·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는 또한 인삼행상으로 광동(廣東)·홍콩(香港) 등지를 두루 다니기도 하였으며 1932년 봄에 다시 상해로 돌아가 백범이 단장으로 있던 한국 교민단(僑民團)의 의경대원(義警隊員)으로 시무하게 되었다. 한편 이즈음 일본의 만주침략으로 중국이 국제연맹에 제소(提訴)하였으며 국제연맹에서는 그 해 봄 만주에 조사단을 파견하자, 백범이 주관하는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서는 본국과 대련에 단원을 파견하여 조사단이 보는 앞에서 일제 고관들을 폭살하여 우리의 독립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선발하였다. 5월 4일 상해를 떠나 대련으로 가서 아옥정(兒玉町)에 있는 만철(滿鐵) 기숙사안 어느 동포의 방에 은거하면서 연락책임을 맡은 최흥식(崔興植), 무기 반입 등의 책임을 맡은 이성원(李盛元)·이성발(李盛發) 등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였다. 동월 24일 거사를 이틀 앞두고 대련우체국에서의 비밀 전문(電文)이 단서가 되어 최흥식이 붙잡히고 그와 이성원·이성발 등도 차례로 붙잡혔다. 그는 관동청(關東廳) 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2차대전의 발발과 함께 여순(旅順) 감옥으로 이감되어 무려 13년 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4일, 옥중에서 일제에 의해 참살을 당하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④ 이덕주의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ㅇ이명: 徐利均

ㅇ생몰: (1908.5) ~ (1935.2)

ㅇ본적 및 주소: 황해도 신천군 신천읍 사직동 219

ㅇ생애와 공적: "일찍이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김구(金九)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특히 1923년 1~2월 경에는 김구의 지시로 유진만(兪鎭萬)과 함께 조선총독을 폭살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휴대하고 국내로 잠입하였지만 4월 19일, 일경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1933년 7월 29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언도받고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35년 12월 순국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⑤ 유진식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ㅇ본명: 柳鎭萬

ㅇ생몰: 1912.2.16 ~ 1966.12.13

ㅇ본적: 충청남도 연기군 西面 菊村里 269

ㅇ생애 및 공적: "1932년 1월 중국 상해에서 김철(金哲)·이덕주(李德柱)·유상근(柳相根) 등과 함께 애국청년들의 항일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한인청년당(韓人青年黨)을 조직하는 한편 김구(金九)가 주도하는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도 가입하여 무장의열투쟁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동년 3월 조선총독 우원일성(宇垣一成)을 비롯한 일제고관을 주살하기 위하여 권총 2정을 소지하고 이덕주(李德柱)와 함께 국내로 파견되어 계획된 공작을 실행하다가 1932년 4월 7일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2년 7월 1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및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⑥ 최흥식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ㅇ생몰 연대: 미상

ㅇ본적: 서울 黃金 22

ㅇ생애 및 공적: "일찍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김구(金九)가 주도·조직한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가입한 그는 1932년 4월 1일 유상근(柳相根)·이성원(李盛元)·이성발(李盛發) 등과 함께 김구 단장의 명을 받아 만주(滿洲)로 갔다. 그것은 일제(日帝)의 만주침략에 관한 국제연맹의 릿튼 조사단 일행이 만주에서 조사를 끝내고 대련(大連)에 이를 때, 그 조사단을 환영하기 위해 일제의 관동군 사령군과 남만철도 주식회사 총재 등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대거 출영한다는 정보를 받고, 그 침략의 우두머리들을 폭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련에 도착하여 동지 김정순(金正順)의 집에 은거하면서 봉천(奉天)·장춘(長春) 등지를 다니며

일제 관헌의 국제연맹조사단에 대한 경비상황을 탐지하였다. 그러던 중, 동년 5월 중순 대련우체국에서 발송한 비밀전문이 단서가 되어 김정순의 집에서 일경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유상근과 함께 1933년 11월에 관동주(關東州) 재판소에서 무기징역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가.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ㅇ 이들 이력서와 봉투는 1932년 초부터 봄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한인애국단이 김구의 기획으로 창건되고부터 거기 입단하여 대일 의열투쟁 거사 추동의 최일선 요원으로 나섰다가 일제당국에 체포되고만 청년 독립투사들의 신상을 가장 정확히 밝혀줄 원본 희귀자료임. 동시에 한인애국단의 국내외 연속 광역거사 계획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조명함에 진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줄 귀중자료이기도 함.

ㅇ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나.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ㅇ 이 이력서와 봉투는 1932년 초부터 봄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한인애국단이 김구의 기획으로 창건되고부터 거기 입단하여 대일 의열투쟁 거사 추동의 최일선 요원으로 나섰다가 일제당국에 체포되고만 청년 독립투사들의 신상을 가장 정확히 밝혀줄 원본 희귀자료임. 동시에 한인애국단의 국내외 연속 광역거사 계획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조명함에 진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줄 귀중자료이기도 함.

ㅇ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 한인애국단원 이덕주 편지 및 봉투

ㅇ 이 편지와 봉투는 1932년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특무조직으로 비밀리에 창립된 한인애국단의 국내거사 추진 실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문서이고 유일본으로서 희귀자료임. 밀파된 단원은 거사실행 의지가 충만했는데 상해(김구)와의 연락이 원활치 못했거나 發各이 지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도 해주니,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상당 정도 기여하는 바 있을 것임.

ㅇ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라. 한인애국단원 최흥식 편지 및 봉투

ㅇ 이 편지와 봉투는 1932년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특무조직으로 비밀리에 창립된 한인애국단의 만주의거 추진 실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문서이고 유일본으로서 희귀자료임. 밀파된 단원들이 대련 현지에서 준비를 잘 진행시키고 있었음과

적어도 5월 28일까지는 활동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기왕의 독립운동사 연구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고 보충도 할 수 있게끔 해줄 자료임.

ㅇ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

ㅇ 이 편지와 봉투는 1932년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특무조직으로 비밀리에 창립된 한인애국단의 만주의거 추진 실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문서이고 유일본으로서 희귀자료임. 밀파된 단원이 대련 현지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으면서 자금부족으로 곤란에 처해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여, 독립운동사 연구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보충도 할 수 있게 해줄 귀중자료가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 사항

가.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ㅇ 두 이력서는 독립투사 유상근과 이덕주의 상세 신원내역과 한인애국단원이 되기 이전의 경력 등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어서, 등록 후 공개하여 독립운동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좋겠음.

나.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ㅇ 이 이력서는 독립투사 유진식의 상세 신원내역과 한인애국단원이 되기 이전의 경력 등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어서, 등록 후 공개하여 독립운동사 연구의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좋겠음.

<OOO 서강대학교 교수(2019.7.31.)>

1) 현상 : 보관을 위한 보수처리 요망
2) 내용 및 특징
가. 유상근, 이덕주 이력서 및 봉투
(유상근 이력서 : 17. 8 cm x 28 cm, 이덕주 이력서 : 24. 9 cm x 16.2 cm, 봉투 : 10.3 cm x 14.7 cm)
○ 유상근 이력서와 이덕주 이력서는 같은 봉투에 들어있는데, 봉투에 김구의 필적으로 '柳相根 李德柱 履歷'이라고 적혀 있음. 한인애국단에 참가한 뒤 작성한 이력서로 생각됨.
- 유상근의 이력서는 붉은색으로 인쇄된 상해 소재 '金陵公寓用箋(금릉공우용전)'에 국한문 혼용의 반흘림체로 이력과 가계를 연필로 적었음. 강원도 통천 출신인 유상근의 학력과 이주, 활동 및 가족관계를 2장에 걸쳐 기재함. 특히 그가 한인애국단의 특명으로 2월 24일 '某處'로 향한다고 밝힘.
- 이덕주의 이력서는 백지에 연필로 국한문 혼용의 흘림체로 학력과 가계를 간략하게 적었음.

나.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이력서 : 17. 8 cm x 26.1 cm, 봉투 : 10.3 cm x 14.7 cm)
○ 유진식(兪鎭軾)의 이력서로, 붉은 색 줄이 있는 백지에 검은 잉크로 국한문 흘림체로 세로쓰기되어 있음. 유진식의 학력, 활동경력이 4장의 용지에 자세히 적음. 봉투에 쓰여진 '兪鎭軾 履歷'은 김구의 글씨로, 유진식이 한인애국단에 참여하고 1932년 3월 18일에 작성한 이력서임.

다. 김영구(유상근 ?) 편지 및 봉투(편지 : 25.2 cm x 20.3 cm, 봉투 : 9.7 cm x 15 cm)
○ 대련에 있던 김영구(金永九)가 상해의 곽윤(郭閏)에게 보낸 편지. 흰 편지지에 검은 잉크로 반흘림체의 국한문 혼용 편지인데, 세로로 2장이 작성되었음. 김영구는 필적으로 미루어 유상근으로 추정됨. 편지가 작성된 날은 1932년 5월 5일 저녁이며, 학교입학과 경비문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곽윤은 김구(金九)의 변성명이며, 대련에서의 한인애국단 활동과 관련된 공작을 상의하는 암호 비밀 편지로 생각됨. 유상근은 한인애국단원이었고, 이미 4월 29일 윤봉길 의거가 있었으며, 대련에서 일제의 요인 처단이 준비 중이었음.

라. 이덕주 편지 및 봉투(편지 : 18 cm x 26 cm, 봉투 : 8.5 cm x 20.1 cm)
○ 황해도 신천에서 이덕주(李德柱)가 상해의 김정애(金貞愛)에게 보낸 편지. '朝鮮 黃海道 信川邑 李商店用箋'에 검은 잉크로 국한문 혼용의 흘림체 세로쓰기. 1932년 3월 31일자 소인이 찍혀 있고, 상해에는 4월 10일 접수되었음. 이덕주가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한 회신이 없어 궁금하고 현재는 속수무책이라는 내용임. 김정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김구 혹은 관련자로 짐작됨.

마. 최홍식 편지 및 봉투(편지 : 26 cm x 24.4 cm, 봉투 : 8.9 cm x 18 cm)
○ 최홍식(崔興植)이 대련에서 상해의 곽윤에게 1932년 5월 28일자로 보낸 편지. 백지에 붉은 줄이 있는 얇은 종이에 검은 잉크로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함. 곽윤은 김구의 변성명이고, 수신처인 프랑스조계 패륵로(貝勒路) 신천상리(新天祥里) 20호는 안공근(安恭根)의 집 주소였음. 송금액은 영수하였고 뱃사람을 교섭하였으며 물품과 사람을 보내도 좋으니 속히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대련에서의 한인애국단 활동에 관련된 편지임.

3) 기타(참고자료)
○ 김구(도진순 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 愼鏞廈, 「白凡 金九와 韓人愛國團의 獨立運動」, 『韓國民族運動史硏究』(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 나남, 1997
○ 한시준, 「백범 김구와 한인애국단」,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0, 2013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한인애국단 관련자료는 한인애국단원의 이력서와 편지, 봉투로 5점임.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초 한국독립운동이 침체되고 만보산사건 등으로 한중갈등이 증대되자, 김구가 주도하여 한중우의(韓中友誼)와 일본 수뇌암살을 목적으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였음.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가 바로 한인애국단이 주도한 대표적인 항일 의열투쟁이었음. 이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편지, 봉투는 김구가 소장하였다가 해방 후 환국시 국내에 가지고 왔음. 1949년 김구가 암살되자 측근이던 김덕은이 보관하였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구가 소장하던 다른 자료들과 함께 기증함.
○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은 한국독립운동사의 한 전환을 이룬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큼. 특히 의열투쟁은 비밀스럽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음. 그러한 면에서 이들 자료는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사료이며 등록문화재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 명칭은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편지, 봉투'로 하고, 1. 유상근, 이덕주 이력서 및 봉투, 2.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3. 김영구(유상근 ?) 편지 및 봉투, 4. 이덕주 편지 및 봉투, 5. 최홍식 편지 및 봉투를 각호에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안건번호 근대 2019-11-15

15.「이교재 임시정부 문건」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민국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자문회의('19. 1. 21.)에서 문화재 등록검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19.9.24) 등록 검토 : 보류(추가적인 조사 및 보완 완료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명

문화재명	수량	규 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 재 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2점	22.8×50.3 cm	1931년	OOO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창원시립마산박물관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2점	20.8×16.0cm 등	1931년	OOO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 3길 16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명함	5점	18.6×13.9cm 등	1931년 등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 추진경과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6~10월)
- A등급 34건('문영박 유품: 특발' 등 포함), B등급 104건('대한민국임시정부 특명 및 편지, 추조장', '문영박 유품: 추조' 등 포함), C등급 1,215건
○ 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19. 1. 21.)
- 우선 검토 대상 조사대상 '문영박 추조장' 등 11건 선정

○ 이교재 후손·창원시립박물관에서 '이교재임명장' 1건 등록 검토 요청('19.5.21)
○ 창원시청-근대문화재과 '이교재임명장' 1건 등록 검토 관련 논의 ('19.6.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1차('**19.7.11.**) : OOO, OOO, OOO, 유장근
- 2차('**19.8.21.**) : OOO, OOO, OOO
○ 문화재위원회(9차) 등록 검토('19.9.24) : **보류(**추가적인 조사 및 보완 완료 후 재검토)
○ 성낙문 관련 검토의견서 작성(OOO 위원, '19.9.25.)
○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이교재임명장' 습식 재배접 보존처리 수행('19.9.11.~9.30.)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등록번호(가지번호) 및 명칭 검토의견 】
○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시 문화재 성격, 소재지 등 고려, 3가지 분류로 명칭 및 가지번호 부여
-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명함(또는 봉투)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OOO 문화재위원 (2019.7.11. / 2019.8.21.)
- 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임. 더욱이 현재까지 이와 동일한 형식의 위임장이나 격발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돋보임.
-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경북 달성의 문원만에게 보낸 추조와 특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중인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이동녕 봉투, 조완구·김구가 국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내는 편지 등 5점을 포함한 문서 9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필요한 상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또 국내의 유지와는 어떻게 접선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귀한 문서임.
- 1931년 말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국내 조직의 운영과 방식을 살필 수 있는 희귀하고도 소중한 유물임
- 다만 명칭, 분류, 가지번호 부여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OOO 서강대학교 교수 (2019.7.11. / 2019.8.21.)

- 해당 문서들은 독립운동가 이교재가 상해 임시정부에 방문 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서,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
- 이교재 임명장과 임시정부 격발문은 국내와의 연결을 통해 조직과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가 되는 자료임. 문영박 후손 격발문 등은 임시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며, 문영박·황상규에 대한 추조문은 국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임시정부의 관심과 감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교재 임시정부 관련 문서들은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OOO 대구대학교 교수 (2019.7.11. / 2019.8.21.)

-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은 임시정부에서 국내 및 일본 각지의 특파원 운용 상황에 대하여 추찰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료임. 또한 문장지 추조문과 문대효 앞 특발문, 황상규 추조문 등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 후 국제정세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과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임. 이들 모두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등록명칭은
  - · 000-1호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 000-2호 문영박 추조 및 문원반 특발
  - · 000-3호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1>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 세부목록

	발신자	지역	수신자	문서 종류	작성일	원본 소장처	사진	세로 ×가로
①	임시정부 조완구 김구	창원	이교재李敎載	임명장	1931. 11. 20.	창원 이교재 후손	이중광→ ←이교재 ※ 2종 문서를 1건으로 장황	22.8 ×50.3 cm
②	임시정부		이중광李中光	격발	1931. 10. 3.			
③	임시정부	달성	문영박 (유족)	추조	1931. 10. 3.	대구 달성군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20.8 ×16.0 cm
④	임시정부	달성	문영박 (유족)	특발	1931. 10. 3.			18.7 ×22.3 cm
⑤	임시정부	밀양	황상규黃尙圭 (유족)	추조	1931. 10. 3.	부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18.6 ×13.9 cm
⑥	임시정부	창녕	성낙문成洛文	특발	1931. 10. 3.			16.2 ×24.6 cm
⑦	이시영	고성	김관제金觀濟	편지	1931. 11. 17.			25.3 ×20.2 cm
⑧	내무장 조완구 재무상 김구	고성 달성	대단大端 김관제金觀濟 윤상태尹相泰	편지	1931. 11. 20.			26.7 ×37.9 cm
⑨	이동녕		알수없음	명함	알수 없음			9.9 ×4.3cm

<붙임2>

성낙문 관련 의견서

2019.9.25.

OOO(OOO 연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13년, 즉 1931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보낸 특발(特發)의 수신자 '성낙문'이라는 인물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중국 상해 대한임국임시정부에서 경남 창녕(昌寧)의 성낙문(成洛文)에게 보낸 독립운동 자금 지원 요청 공문. 이 문건은 1931년 10월 3일 건국기원절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성낙문에게 보낸 순 한문으로 쓴 공문이다. 이에 대한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특발(特發)

본 정부는 정성이 없고 덕이 부족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탓에 창립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사회의 정성에 보답하지 못하였으며, 한낱 환영(幻影)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우리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적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일중(日中) 대사변이 거세게 일어나 암암리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으니,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는 것을 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으로 조선의 혼을 환기시키고 밖으로 중국·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난폭하고 의리 없는 일본 제국주의를 영원히 타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무궁한 동양(東洋)의 평화와 유신(維新)의 책략을 가지고 4264년 기원절(紀元節) 날에 의기를 떨쳐 건의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파견하여 격문을 통해 건의의 대강을 고하는 것은 의리로써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명(天命)이 시키는 것이요 인도(人道)가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고립된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요사이 국내외에서 공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올해 조선에 도래한 수많은 사건과 일중(日中)의 큰 문제가 겹쳐서 발생한 이후로는 여러 방면의 지출이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 잔액이 고갈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닥뜨린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특파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 출발하도록 명했으나 활동자금과 상비금의 경우에 1동원(銅元)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형세상 의롭지 못하기는 하지만 최후의 방도로 생각해 낸 것은 오직 귀하께서 고상한 의리로서 이 상비금을 능히 찬조함으로써 힘없는 정부를 도와주고 특파원의 임무 완수를 거들어주어 끝없는 국권(國權)을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특별히 바라고 특별히 명하는 바입니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

본국 경남(慶南) 창녕(昌寧) 성낙문(成洛文) 선생 귀하

이동녕(李東寧)

○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13년(1931) 10월 3일 경남 창녕의 성낙문(成洛文)에게 보낸 '특발(特發)'이다. 이 문서는 국내에 유지인 '성낙문'에게 독립운동 자금 제공을 요청하는 한문으로 된 독립운동자금 요청서라고 할 수 있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기 위해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임시정부와 연결된 비밀결사가 직접 자금을 수합하였다. 즉, 전자인 임시정부에서 국내 특파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고, 후자인 임시정부와 연결된 단체에서 대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동아대에 소장된 이 문서는 임시정부에서 직접 특파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유지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요청할 때 제시된 문건이다.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19년 성립 초기부터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하였다. 국내에 파견된 특파원들은 국내의 독립운동에 뜻이 있는 인사들을 찾아가 독립운동자금을 수합하거나, 혹은 부호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염출하였다.

○ 임시정부에서 '특발'이라는 형식의 공문을 통해 국내 유지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 '특발'을 발행하기 직전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관동군 장교들이 유조호(柳條湖) 부근에서 일본이 운영하는 남만주철도 노선을 일부러 폭파하고는 장학량의 병사들과 무장한 비적들에게 그 죄를 덮어씌웠다. 이 사건을 조작한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는 봉천시내에 주둔한 동북변방군 병영을 공격하라고 독립수비대와 보병 제29연대에 명령을 내렸다. 관동군은 남만주철도 노선상의 전략 거점들을 장악하는 만주사변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국제적으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었으나, 임시정부는 계속된 침체와 위기에 처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발'을 통해 국내의 유지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31년 당시 백범은 미주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24]

○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자금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경남 창녕에 사는 '성낙문'이다. 이 '성낙문'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 **창녕성씨 대종회 홈페이지 「인터넷 족보」상에서 검색한 바에 의하면 '成洛文'이라는 인명은 없다.** 그렇지만 '成樂文'이라는 인명은 여러 명이 나온다. 인터넷 족보상에서 인명이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문서에 나오는 '성낙문'의 '洛'자는 '樂'자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문서의 '成洛文'이 '成樂文'이라면, 1931년 당시 생존했던 인물은, 1890년 음력 12월 22일 태어나 1964년 음력 11월 18일 사망한 초명(初名)이 인출(仁出), 자(字)가 경수(景壽)인 인물이 일 것이다.**[25]

24) 김구 지음, 도진순 탈초·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396-397쪽.

○ 경남 창녕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인 '창녕 성씨'들은 지역의 유지로서 부호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성낙문'도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부호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발급한 '특발'이 '성낙문'에게 전달되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 '특발'을 전달받았다고 하면, 임시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자금 요청을 받은 '성낙문'이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성낙문의 친일 활동

- 성낙문은 경남 창녕의 대지주로서, 1931년 4월 부산지방법원 창녕출장소 청사로서 건물 1동 및 부속건물과 설비를 기부하였다. 그래서 1939년 12월 21일 포상(褒狀)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성낙문 관련 자료

-『매일신보』 1930년 5월 26일자, 「成樂文氏 特志」.
창녕군 대지면 관내는 수년내 旱災로 인하야 농촌의 困憊는 말할 수 없는 형세에 있음은 일반이 주지하는 바, 더욱 직접 구제를 요하는 수백호 가족은 바야흐로 餓死에 당면하얐었는데, 이 참상을 들은 창녕군 성낙문씨는 자발적으로 私財 3백여원을 投하여 大麥 30여석을 매입하여 백여호 窮民에게 분급하얐는데, 배급 당일은 면장 이상열씨의 의미 심장한 취지 전달과 함께 麥嶺중에 生路를 얻은 窮民은 感淚에 넘치며 일반의 稱頌이 藉藉하다.

-『朝鮮新聞』 1928년 12월 4일자, 「慶南昌寧郡小作慣行의 改善」.
창녕군 대지면 성낙문 의뢰토지필수 300, 소작인수 340명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1월 12일자, 「휘보」, 67쪽.
"소화 6년(1931) 4월 부산지방법원 창녕출장소 청사로서 건물 1동 및 부속건물과 설비를 기부"하였다고 하여, 소화 14년(1939) 12월 21일 포상(褒狀)을 받았다.

25) 창녕성씨 대종회 홈페이지, 「인터넷 족보」 참조.

<붙임3>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창원시립마산박물관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 3길 1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3. 소 유 자 : OOO / 남평문씨세거지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위원(2019.7.11./8.21.)>

1) 조성연대
○ 1931년 등

2) 현상
○ 대체로 온전하나 일부 문서는 보존처리가 필요함

3) 내용 및 특징

가.「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이교재(李敎載, 1887~1933)는 1931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경상남북도 상주(常駐)대표로 임명되었음. 이후 상해에서 자금 모금을 위하여 여러 문서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였으나 문건을 전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고 함.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음.

○ 처음 그가 가지고 온 문서는 몇 점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망 후 부인이 몰래 보관한 문서는 모두 9점이었음. 이교재와 관련된 2점 외의 문서들은 1963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영박 후손들의 요청으로 2점은 남평문씨 세가에 전해졌고, 나머지 5점은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이중에서 이교재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는 <사진1>과 같이 이교재를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이중광을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상해격발 등 2점임. 이교재 위임장의 내용을 국역하면 다음과 같음.

이 교 재

오른쪽에 기록한 사람을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하며, 왼쪽에 기록한 사항을 위임함.
하나, 뜻있는 사람(有志者)의 연락에 관한 일
하나, 독립운동에 대한 비밀적 지방조직을 행할 일,
하나, 정부에 대한 특수한 헌성(獻誠, 정성을 다해 바침)을 권장하고 행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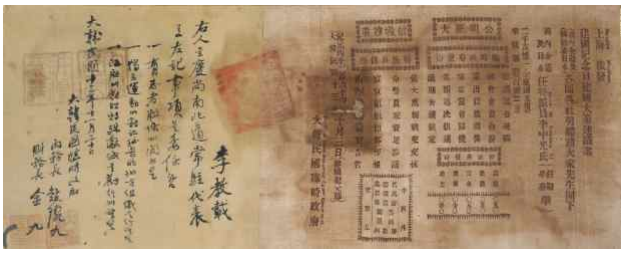
대한민국 13년(1931) 11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장 조완구[인] 재무장 김구[인]

○ 이 위임장은 1931년 11월 20일에 이교재에게 발급된 것으로 비단에 필사되어 있음. 발급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장 조완구과 재무장 김구임. 「內務長印」, 「財務長印」이라는 관인(3.6×3.6㎝)이 조완구와 김구의 인명아래에 각각 찍혀있음. 그리고 문서의 왼쪽 윗부분에는 「內務部印」, 「財務部印」(4.7×4.7㎝)이라는 정방형의 관인이 찍혀 있음.

○ 그리고 이중광을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상해 격발』(上海 檄發, Shanghai Manifesto)은 이교재위임장보다 한 달 이상 빠른 1931년 10월 3일(건국기원절)에 작성된 것임. 이 문서는 분홍색 비단에 인쇄되었으며, 발급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The Great Korea Democracy Casual Government)임. 『상해 격발』이라는 문서명의 다음 행에는 "建國記念日建國大策建議案"이라는 제명아래 "(國內全道及)(韓僑旅日本)各團各社男婦諸大家先生閣下"와 같이 국내외 우리 동포에게 보내는 문서임. 주요내용은 "국내전도 및 일본의 특파원으로 이중광씨를 임명한다.(國內全道 及日本 任特派員 李中光氏)는 것임. 다음 행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천만 동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타도하기 위하여 중국와 러시아와 연맹하자"[二千萬惟一心(祖國光復), 華俄聯盟(打倒日本)]는 글이 찍혀 있음. 그런데 "타도일본" 중의 "日"자는 옆으로 뉘어 놓았고, "本"자는 위아래를 거꾸로 식자해 놓았는데, 아마 일본을 붕괴시켜 독립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임시정부의 사명 "建國策定衆議(건국책정중의)" 등 6가지의 임시정부와 사명과 "使命宣傳(사명선전)" 등 8가지의 특파원임무도 찍혀 있음.

○ 이 상해 격문에 보이는 이중광은 별도의 인물로 보이기도 하나 각 지역의 특파원을 대표하는 대표명 또는 가명(假名)으로 보이기도 함.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두 문서가 붙어 있었다고 하고, 이어 붙인 부분에 정방형의 관인이 찍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서에 관한한 이중광은 이교재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추정됨.

그렇다면 1931년 10월 3일에 이중광을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격발을 인쇄한 뒤 이어 각 지역별로 대표를 위임한 것이 아닌가 함.



<사진1>『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이와 같이 이 두 문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임. 더욱이 현재까지 이와 동일한 형식의 위임장이나 격발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돋보임.

○ 그리고 이 두 문서는 별개의 문서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서로 보이므로 『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또는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나.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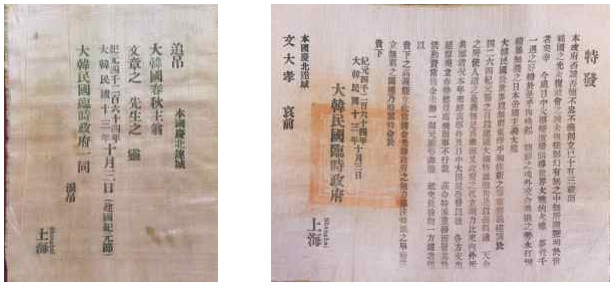
○ <사진2>에 보이는 문영박 추조(追吊) 및 문원만 특발(特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1년에 경북 달성에 거주하다 사망한 문영박(文永樸, 1880~1930)의 아들에게 보낸 추조와 특발 등 두 종류의 문서임. 이 문서들은 이교재가 가져왔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그대로 이교재의 집안에 비장되어 있었음. 이교재의 독립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인 마산일보(1954년 4월 15, 17일)에 일찍이 소개되었음. 해방이후 동아일보(1963년 3월 16일, 「32년만에 주인 찾는 감사장」)에서 이 문서에 대해 소개가 되자 문영박의 후손이 연락을 했고, 이에 이교재 부인인 홍태출(洪泰出) 여사와 양자 이정순(李正淳)이 문영박의 아들인 문원만(文元萬)에게 기증함으로써 오늘에 전하게 된 것임.

○ 추조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3년(1931) 10월 3일에 발급한 것으로 전해에 사망한 문영박의 유족에게 늦게나마 조의를 표명한 것임. 분홍색 비단에 인쇄되었으며, 관인은 없음.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국 경북 달성
>
> 대한국 역사의 주인이 되는 어른 文章之("장지"는 문영박의 자) 선생의 혼령에 늦게나마 조의를 표합니다.
>
>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건국기원절)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일동은 조문(을 위해 사람을) 파견합니다.
>
> 상해 Shanghai

○ 특발은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3년(1931) 10월 3일에 추조와 함께 본국 경북 달성에 거주하던 文大孝(대효란 부친상을 당한 사람에게 편지에서 높이 이르는 용어이며, 여기에서는 문영박의 아들 문원만을 일컬음)에게 보낸 것임. 이 특발은 분홍색 비단에 신활자로 인쇄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위에는 정방형의 임시정부 관인이 찍혀 있음.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정부는 정성과 덕이 부족한데다 불충(不忠) 불의(不義)하여, 창립한 지 13년이 되었으나 조국의 빛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회의 정성에도 보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갓 환영(幻影)에 있으면서 세상에 우리의 의견을 낸 적도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 日中대사변이 거세게 일어나 암암리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으니, 꿈에서도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는 조선의 혼을 일으키고, 밖으로는 중국·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난폭하고 의리가 없는 일본 제국주의를 영원히 타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크게 세워야 합니다.
>
> 이에 무궁한 동양의 평화와 유신의 책략을 가지고 (단기) 4264년 기원절(紀元節, 현재 개천절)에 의로움을 떨치면서 의견을 밝힙니다. 대개 특별히 격문을 보내어 의견을 밝히고 의리로써 함께 의논합니다. 이것이 천명(天命)이며 사람의 도리라는 생각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고립된 상태이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요즈음 국내외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올해 수많은 사건과 日中의 큰 문제가 겹쳐 발생한 이후로는 여러 방면의 지출이 예산을 초과하여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특별히 바라고 알리는 바입니다.
>
>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Shanghai
>
> 본국경북달성 문대효 애전(本國慶北達城 文大孝 哀前)



<사진2> 문영박 추조(좌) 및 문원만 특발(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경북 달성의 문원만에게 추조와 특발을 보낸 이유는 한 해전인 1930년에 사망한 문영박의 혼령에 늦게나마 조의를 표하면서, 당시 활동을 위한 상비금이 부족한 임시정부가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음. 이렇게 이 두 문서를 통해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필요한 상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또 국내의 유지와는 어떻게 접선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귀한 문서임. 그런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하겠음.

다.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대한민국임시정부 편지 및 봉투』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중인 이 유물은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이동녕 봉투, 조완구·김구가 국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내는 편지 등 5점이다. 현재 이 유물 5점은 함께 표구되어 하나의 액자에 보존되고 있음. 박물관 측의 옛 사진을 검토한 결과, 입수 때부터 이렇게 표구가 된 사실을 <사진3>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음. 이 유물들은 모두 이교재 집안에서 유출된 것으로 동아대학교에서는 1963년 2월 1일에 이 유물을 입수 등록하였음. 5점의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사진3>『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대한민국임시정부 편지 및 봉투』(좌: 1963년, 우: 현재)

○ 다-1. 성낙문 특발

- 이 특발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창녕의 성낙문에게 보낸 것임. 문영박 특발과 같이 1931년 10월 3일에 보낸 것으로 내용은 거의 동일함. 마지막 수급자 표시는 "本國慶南昌寧 成洛文先生 貴下"라고 되어 있음. 이 특발도 분홍색 비단에 인쇄되었으며, 「大韓民國臨時政府印」이라는 정방형의 관인이 찍혀있음.

<사진4> 성낙문 특발

○ 다-2. 황상규 추조

- 추조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3년(1931) 10월 3일에 발급한 것으로 그 해에 사망한 경남 밀양 출신의 대한국 의사(義士)인 백민(白民) 황상규(黃尙圭, 1891~1931)의 혼령에 늦게나마 조의를 표명한 것임. 분홍색 비단에 인쇄되었으며, 관인은 없음. 형식과 내용은 문영박의 것과 거의 동일함.

<사진5> 황상규 추조

○ 다-3. 이동녕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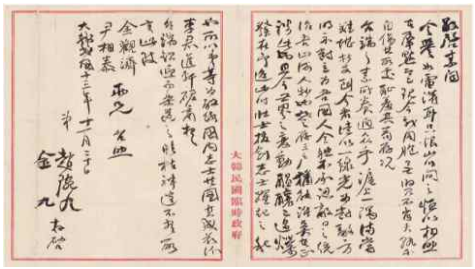
- 전면에 이동녕이라는 이름이 인쇄된 소형 봉투로 이름 아래에는 「李東寧」이라는 원형의 작은 도장이 찍혀 있음. 봉투는 크기로 보아 편지봉투의 용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사진5> 이동녕 봉투

○ 다-4. 조완구, 김구가 국내의 개인(台端)에게 보낸 편지

- 붉은 색의 「大韓民國臨時政府」가 가운데 찍혀져 있는 임시정부의 전용 용지에 필사된 편지로, 1931년 11월 20일에 조완구(趙琬九)와 김구(金九)가 국내의 개인에게 보낸 것임. 여기에서 태단은 귀하 또는 댁의 의미로 기관이나 단체가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에 사용하는 용어임. 이 개인은 본국 내에 거주하던 항일 인사로 추정됨. 내용은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하자며 이군(李君)을 파견하니 협의하자는 것임. 이 편지는 이교재가 전달하려던 것이므로 이군은 이교재가 아닌가 함. 또한 말미에는 김관제(金觀濟)와 윤상태(尹相泰, 1882~1942)를 살펴볼 것을 주문하고 있음. 국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경히 아룁니다. 훌륭한 명성이 우레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것을 평소에 익히 들었습니다만 산천에 가로막힌 탓에 항상 마음으로만 서로 통하는 것이 그저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동포 가운데 어진 자나 불초한 자를 따질 것이 없이 그 누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상심하지 않겠으며 구차히 존재하는 우리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大端(대단)처럼 평소 함양한 바가 보통 사람에 비해 월등한 분일 경우에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상해의 한 모퉁이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두루 겪으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오직 한 줄기 빛으로 적국을 상대하기 위해서이고, 대항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적국 일본이 우리 산하와 인물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나라에 남겨진 세 집이 오히려 오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세계는 변동의 기미가 충분히 무르익어 폭발이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만났으니 썩썩한 선비라면 칼을 뽑아들고 의로운 선비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난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국내의 의로운 선비와 연합하여 그 성취를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군(李君)을 헌하(軒下)에 파견하여 협의토록 하는 것이니, 대단께서 이군을 환영하여 기꺼이 말씀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편지를 마주하고 있노라니 그리운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할 말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김관제, 윤상태 두 형에게도 전해주십시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13년 11월 20일
> 아우 조완구, 김구는 삼가 아룁니다.



<사진6> 조완구, 김구가 국내의 개인(台端)에게 보낸 편지

○ 다-5.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내는 편지

- 왼쪽 아래 부분에 검은색의 「臨時政府」가 찍혀져 있는 임시정부의 전용 용지(10행)에 필사된 편지로, 1931년 11월 17일에 이시영(1869~1953)이 김관제에게 보낸 것이다. 3행 아래의 이시영 왼쪽에는 「李始榮」이라는 타원형의 소형 도장이 찍혀 있음. 이시영이 김관제를 "仁兄(인형)"이라고 하고, 자신을 "弟(제)"라고 하고 있음. 내용은 이단 논설이나 내외의 사상이 3.1운동정신과 다르므로 민족관념이 투철한 사람이 단체를 결성하여 서로 호응토록 해야 한다는 것임. 말미에는 心山(심산, 金昌淑: 1879~1962)의 안부를 묻고 있음. 국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김관제 인형께서 보십시오. 형세가 막히고 금지되어 편지로 안부를 여쭙는 것이 편하지 않으나 애틋한 이 마음이 한 번도 편지와 더불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에 李友를 통해 제 속내를 간략히 터놓습니다. 바라건대 묵묵히 도모하시고 나날이 복되시기를 송축합니다.
> 아우 이시영 올림. 11월 17일.
>
> 오늘날 바람과 구름이 사납게 몰아칠 때 한밤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모두 그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단의 사악한 논설이 청년들을 유혹한 나머지, 안 밖의 사상이 삼일운동 정신과 괴리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족관념을 중시하는 사람이 △△ 비밀리에 단체를 굳게 결성하여 안팎으로 하여금 서로 호응하게 함으로써 커다란 사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일입니다. 국내에 있는 마흔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의 권위가 오히려 없어서, 소리 지르며 이끌고 나갈 수 없으니 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심산(김창숙의 호)형은 근자에 어떤 상황입니까. 연로하고 병이 많아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듯합니다. 매향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 마다 진정치 못하겠습니다.

<사진7>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내는 편지

4) 문헌자료
- ○ 남평문씨인흥세거지, 대구 달성, 남평문씨인흥세거지, 2014.
- ○ 근대: 그 새로운 시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18.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 1931년에 창원에 거주하던 이교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자신의 위임장을 포함한 여러 점의 문건을 수령한 뒤 이 문서들을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전달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고, 그 문서들은 이교재의 부인이 가내(家內)에 비장함으로써 보존이 잘 되게 되었음. 이중에서 『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 등 2점을 제외하고는 해방이후에 이교재 집안에서 유출되었음. 곧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2점)은 달성의 문원만에게 전달되었고,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대한민국임시정부 편지 및 봉투』 등 나머지 5점은 1963년에 동아대학교에서 수집 보관하게 되었음. 그래서 이 문서 9점들은 이교재 집안에 그대로 전하는 2점, 문원만에게 전해진 2점 그리고 동아대학교에 전하는 5점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문서유전의 역사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됨.
- ○ 이 문서 9점은 1931년 말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국내조직의 운영과 방식을 살필 수 있는 희귀하고도 소중한 유물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항구히 보전할 필요가 있음. 다만 명칭, 분류, 가지번호 부여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OOO 서강대학교 교수(2019.7.11/8.21)>

1) 조성연대
- ○ 1931년 10월 3일, 11월 20일

2) 현상
- ○ 보관 또는 표구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수리 보완이 요망됨

3) 내용 및 특징

가. 남평문씨세거지 소장 문영박 추조 및 특발

- ○ 대구 달성 남평문씨세거지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다 1930년 사망한 달성의 문영박(文永樸, 1880~1930)에 대한 임시정부의 추조문과 특발문이 소장되어 있음. 임시정부에서는 이교재를 통하여 문영박 후손에게 조문을 전달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는 특발문을 전달하고자 하였음.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일동'의 명의로 발행된 이 두 문건은 1931년 10월 3일 건국기원절에 작성되었으며, 비단에 활자로 인쇄되어 있음. 다만 이 두 문건은 이교재가 일제에 체포되었다가 사망하여 일제강점기에 전달되지 못하였다가, 1960년대 이교재 후손이 집을 수리하던 중 천장에서 발견되어 남평 문씨 종중에 전달되었음. '추조'는 임시정부 명의의 조문이고, '특발'은 임시정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있음. 따라서 추조는 문장지(文章之) 선생에 대한 조문인데, '장지'는 문영박의 자였음. 특발은 문대효(文大孝) 앞으로 되어 있는데, 문대효는 문영박 자손들을 지칭한 것임. 임시정부에서는 이와 동일한 형식의 인쇄문건을 이교재 편에 전달하고자, 황상규에 대한 추조문과 성낙문에 대한 특발문을 발행하였음.

사진 1 문영박 추조

사진 2 문영박 특발

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임시정부 관련 문서 5건

○ 석당박물관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문건으로 ① 황상규 추조문 ②성낙문 특발문 ③조완구·김구가 김관제·윤상태에게 보낸 편지④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낸 편지 ⑤ 이동녕 명함이 수장되어 있음. 이 문건은 모두 이교재가 임시정부에서 전달을 부탁받아 가져온 문건이나, 이교재가 일제에 체포되어 해당 인사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음. 황상규 추조문과 성낙문 특발문은 대구 남평문씨세거지 소장의 문영박 추조문 및 특발문과 같은 성격의 문서로, 역시 비단에 활판인쇄로 작성되었음. 황상규(黃尙圭, 1891~1931)는 밀양 출신의 의열단원으로 국내 잠입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고 신간회 등에서 활동하다가 1931년 9월 사망하였음. 임시정부에서는 황상규의 조문을 1931년 10월 3일 건국기원절 일자로 만들어 조의를 표하였는데, 문영박과 같은 형식의 추조문임. 성낙문 특발문 역시 문영박 후손에게 보낸 특발문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인데, 성낙문은 후에 일제협력의 혐의가 있어서 논의가 요망됨.

○ 조완구와 김구 명의의 편지는 김관제와 윤상태에게 보내는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문 용지에 모필로 작성되었으며, 1931년 11월 20일자로 되어 있음. 이교재를 소개하며 임시정부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임.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낸 편지는 임시정부 용지에 작성되었는데, 안부를 겸한 지원 부탁의 내용으로 1931년 11월 17일에 작성되었음. 역시 이교재의 편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교재의 체포로 전달되지 못하였음. 그리고 임시정부의 원로인 이동녕의 인장이 찍힌 명함이 있음.

○ 이들 문건은 모두 이교재 사후 미망인이 어렵게 보관하다가 후손이 동아대학에 기증하였다고 함.

追吊
大韓國義士
白民黃尙圭君之靈
紀元節千一百六十四年
大韓民國十三年十月三日
大韓民國臨時政府一同
振吊
上海

사진 3 황상규 추조

特發
大韓民國臨時政府
上海

사진 4 성낙문 특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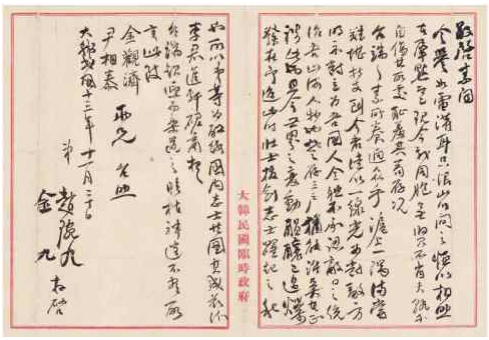

大韓民國臨時政府

사진 5 조완구·김구가 김관제·윤상태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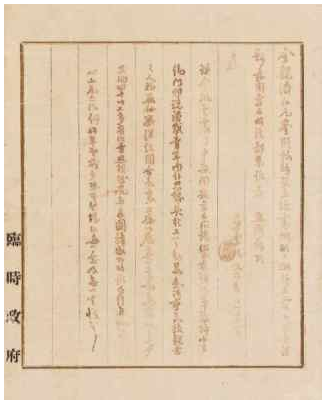

臨時政府

사진 6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낸 편지

李東寧

사진 7 이동녕 명함

다.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소장 임시정부 격발문 및 이교재 특파원 임명장

○ 임시정부의 격발문는 비단에 인쇄된 것으로 임시정부의 사명과 건국대책 등을 기재하였는데, 그 대상은 국내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었음. 임시정부의

사명은 건국과 관련되어 의회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격발문은 1931년 10월 3일자로 국내와 일본의 특파원으로 이중광(李中光)을 임명하는 내용이며, 특파원의 임무로 '사명선전(使命宣傳), 대세선전(大勢宣傳), 당원조직(黨員組織), 별대조직(別隊組織), 전자예약(戰資豫約), 교통부립(交通部立), 교섭보고(交涉報告), 항의보고(抗議報告)'를 제시하였음. 특히 임시정부 지원금의 모집과 관련하여 고미술품의 기부 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됨. 문서에는 임시정부 국쇄를 찍음. 현재 격발문에 기재된 이중광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이교재 특파원 임명장과 관련지어 보면 특정 개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됨.

○ 이교재 특파원 임명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장 조완구와 재무장 김구의 명의로 1931년 11월 20일 이교재를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한다는 내용임. 임시정부에서는 1) 유지자 연락에 관한 일, 2) 독립운동에 대한 비밀적 지방조직을 행할 일, 3) 정부에 대한 특수헌성을 권행케 할 일 등 세 가지 임무를 이교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음. 이는 독립운동가 간의 연락과 조직 운영 및 군자금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곧 이것이 임시정부 특파원의 임무임을 알 수 있음. 문서에는 비단에 수기로 되어 있으며, 내무장과 재무장의 직인이 찍혀 있음.

○ 임시정부 격발문과 이교재 특파원 임명장은 별도의 문서인데, 이 두 문서를 교부하고 함께 놓고 가운데에 임시정부 국쇄를 찍어 두 문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임시정부 격발문은 인쇄된 문서인 것으로 미루어 이중광은 특정한 개인이기보다 특파원이 겸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나, 이 문서가 유일하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음. 현재 이 두 문서는 함께 배접되어 표구되어 있는데, 특히 격발문의 훼손이 크기 때문에 분리 수선이 요망됨.

李東寧

사진 8 임시정부 격발문 및 이교재 특파원 임명장

4) 문헌자료

○ 유장근,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9, 2019

○ H생, 「三鎭紀行」 1-9, 『마산일보』 1954년 4월 14일자-4월 23일자
○ 『근대-그 새로운 시대』, 석당박물관, 2018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문서들은 모두 독립운동에 진력해 오던 이교재가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하여 받아서 국내에 들여온 것임. 특히 1930년 전후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연계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이교재와 같은 지사를 통한 국내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매우 귀한 자료임. 그 가운데 임시정부 격발문과 이교재 특파원 임명장은 임시정부가 국내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하여, 조직과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구체적인 증거임. 문영박과 황상규의 추조문 역시 임시정부를 지원한 국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임시정부의 관심과 감사를 확인할 수 있음. 문영박 후손과 성낙문에 대한 임시정부의 격발문은 국내에서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임. 조완구와 김구 또 이시영의 편지는 사신의 형태이지만 국내 지인들에게 임시정부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임시정부의 용지를 사용하였음. 이들 문건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적 중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등록문화재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문서의 명칭은 '이교재 임시정부 관련 문서'을 제의함. 전체 문서를 각 호별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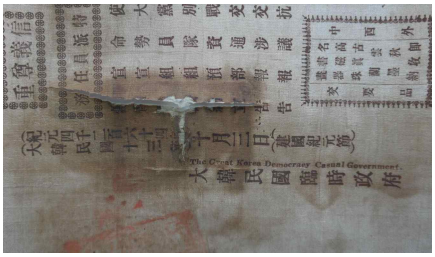
- 제1호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소장(2건)
  1. 대한민국임시정부 격발
  2. 이교재 대한민국임시정부 특파원 임명장
- 제2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5건)
  1. 황상규 추조, 성낙문 격발
  2. 조완구·김구가 김관제·윤상태에게 보낸 편지,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낸 편지
  3. 이동녕 명함
- 제3호는 대구 남평문씨세거지 소장(2건)
  1. 문영박 추조, 문영박 격발

○ 단 성낙문 특발은 성낙문의 친일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요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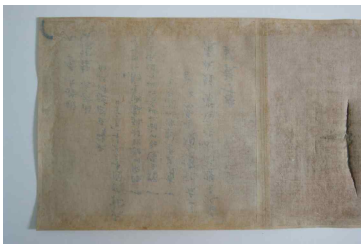
<OOO 대구대학교 교수(2019.7.11/8.21)>

1) 조성연대
○ 1931년

2) 현상
○ **문장지 추조문, 문대효 앞 특발문** :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문면은 전문 판독이 가능함
○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격문의 좌측에서 4분의 1 지점에 세로 9.0cm, 그 중간에 가로 3.3cm 가량이 반십자(半十字) 모양으로 찢어지고 뜯겨져 공백이 생겼음. 그로 인해 2자가 완전 파훼되어 판독 불능이고, 4자는 부분 파훼로 겨우 판독됨. 나머지 부분은 보존 상태가 좋고 전문 판독이 가능함



<사진 1. 이교재 문서의 훼손 부위와 상태>



<사진 2. 이교재 문서의 배면과 띠지>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보존 상태 양호하고, 문면은 전문 판독이 가능함

3) 내용 및 특징

가. 문장지 추조문, 문대효 앞 특발문
○ 문건 1의 제목으로 쓰인 '追弔'란 고인의 생전 업적을 되새기며 조상(弔喪)한다는 뜻임. 본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본국 경북 달성의 대한국 어르신인 아버님 文章之선생의 영혼에 추조하나이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건국기원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원 일동이 사람을 보내 조문함. 상해(Shanghai)"임.
○ '特發'로 제목이 적힌 문건 2도 문건 1과 같은 날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본국 경북 달성의 文大孝"로 수신인을 특정하였음. '대효'란 부친상을 당한 이를 편지에서 높여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문장지의 아들인 문원만(文元萬)을 일컫는 것임. 내용은 임시정부가 그동안 무실 무력했다고 겸손하게 반성하고 그럼에도 이번에 만주사변 발발의 호기를 맞아 일제타도의 대업을 재추진하려 하는데 정부재정이 고갈된 형편인지라 특파원을 보내어 찬조를 요청하니 도와줄 것을 특별히 바라고 또한 명한다는 것임.
○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음.
- "특발
본 정부는 정성이 없고 덕이 부족하고 충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탓에, 창립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조국광복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사회의 정성에 보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환영(幻影) 속에만 안주하면서 세상에 우리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아본 적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중·일 간의 대사변이 거세게 일어나 암암리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으니,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는 것을 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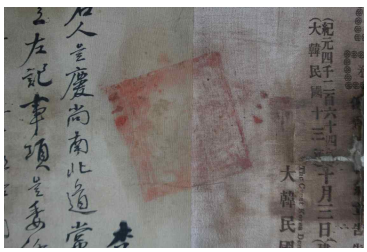
< 사진 1. 문장지 추조문>

<사진 2. 문대효 앞 특발문>

그러니 안으로 조선의 혼을 환기시키고 밖으로 중국·러시아와 힘을 합쳐 난폭하고도 신 의 없는 일본제국주의를 영원히 타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야 합니다. 이에 무궁한 동양의 평화와 유신의 책략을 갖고서 4264년 기원절 날에 의기를 떨쳐 건의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파견하여 격문을 통해 건의의 대강을 고하는 것은 의리로써 함께 의논하는 것이오니, 이는 천명이 시키는 것이요 인도로써 의롭다고 여겨짐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나마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국내외에서 공히 인정되는 바입니다. 하물며 올해 조선에 도래한 수많은 사건과 중일간의 큰 문제가 겹쳐 발생한 후로는 여러 방면의 지출이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 잔액이 고갈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까? 이에 중요 임무를 수행토록 명하여 특파원을 보냈으나, 활동자금과 상비금을 1원도 마련치 못했습니다. 형세상 떳떳하지 못하긴 하지만 최후의 방도로 생각해 낸 것은 오직 귀하께서 고상한 의리로 이 상비금을 찬조해주심으로써 힘없는 정부를 도와주고 특파원의 임무 완수를 거들어주어 끝없는 국권을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특별히 바라고 특별히 명하는 바입니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
본국 경북 달성 문대효 哀前" (* 밑줄은 인용자)

○ '文章之'는 1880년 경북 달성군 화원면 태생인 유학자 수봉(壽峯) 문영박(文永撲)의 자(字)였음. 그는 청판본(淸版本)의 한서(漢書) 1만여 권을 자비로 들여와 개인 서고인 만권당(萬卷堂)에 비치하고 거유(巨儒)들과 교유하였음. 1919년 이후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군자금을 수집하고 자기 재산도 처분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주면서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하다 1930년 12월 18일에 별세하였음. 그 공적으로 1980년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음(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훈격 상향).
○ 만주사변 발발 직후인 1931년 10월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의 재흥자금 조달을 담당할 특파원을 국내 및 일본 각지로 보내기로 하고, 경상남북도 대표로는 이교재를 11월에 임명하여 밀파하였음. 그때 임시정부에서 문장지의 사망 소식을 이미 접해 알고 있었기에 특발문과 추조문을 같이 작성하여 이교재에게 주어 문원만에게 전하도록 한 것임.

나.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2장 문건의 좌·우 접선을 중심으로 큰 관인을 찍어놓아서, 분리된 상태에서는 반쪽씩만 나오지만 잇댄 상태에서는 하나의 관인인 것이 확인됨. 날인 상태가 선명치 못하고 인주가 번져 판독이 어렵긴 하나, 인장은 세로·가로 각 3자로 '大韓民國臨時政府印'이라고 인각된 것으로 보임.



<사진 3. 이교재 문서의 임시정부 직인(추정)>

○ 문건 1(우측)은 '상해에서 격문을 냄'을 먼저 밝히고, '건국기념일 건국대책 건의안'이라는 제목을 달았음. 앞의 기념되는 '건국'은 고조선 건국을 말하고, 뒤의 '건국'은 나라를 되찾은 후 새 나라를 세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됨.
○ 격문이면서도 전체가 서술문이 아닌 개조 식으로 작성되었음. '국내 全道 및 일본에 韓僑로 있는' '각 단체, 각계 사회의 남녀 여러 大家 先生'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호명하는데, 그 다음 행은 구문(構文)이 모호하여 해석이 어려움. 국내 전도 및 일본에서 이 격문을 받아보는 이들 각인(즉, 앞의 '대가 선생')을 '이중광'이라는 이름의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 격문을 내보여주는 이가 국내 전도 및 일본 담당 특파원으로 임명된 이중광씨라는 뜻일 수도 있음. 특파원의 임기는 '임무를 다할 때까지'로 부기해 놓았음.

<사진 4. 이교재 문서의 상해발 격문(우측)과 임명장(좌측)>

○ 어느 경우든 '이중광'(Zungkang Li)이란 특정인의 실명이 아니라 임시정부 특파원 전원에게 공통으로 부여하는 대명사로 쓰인 것이라고 생각됨. 그래서 특파원 각자(Detail)를 (남녀 불문하고) 'Mr.'로 표기한 것이기도 할 터임. '중광'은 대종교(大倧敎) 계통의 상용 표현이던 '重光'을 격문 수신자 중의 다른 종교 신자도 감안하여 '中光'으로 바꿔놓은 것으로 보임. 이로 미루어 이 격문의 기초자는 문서 2(좌측) 말미의 서명자 2인 중에서 대종교 신도이던 내무장 조완구였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독립운동 노선의 기조 및 방략으로 '2천만이 한 마음 되어 조국을 광복'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 연맹하여 일본을 타도'할 것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공명정대'를 모토로 하는 '임시정부의 사명'을 6자씩의 한자성구로 5개를 제시했고, 그 아래에는 5백 원 상당의 금전 기부로써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원조하고 그 '상비금'을 보충해주는 식으로 '특파원을 우대'해주기를 요청해 놓았음. 다음으로 '특파원의 임무'를 4자씩의 한자어로 된 8개 항으로 명기했으며, 중국 및 서양과의 외교에 필요한 다섯 종류의 물품을 열거하여 '즉시 수납'한다고 적어놓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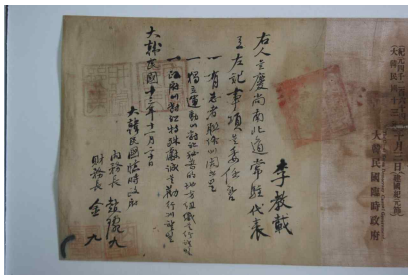
○ 발행일은 '기원 4264년'과 '대한민국 13년'(즉, 1931년)을 병기한 후 10월 3일을 적었으며 그 날이 '건국 기원절'임을 부기하였음. 마지막 행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입하고 작은 글씨로 The Great Korean Democracy Casual Government를 병기하였음. 이 영어 표기는 통상적인 표기방법과는 달라서 다소 어색하고 의아한 바 있기는 하나, 영어에 능숙치 않던 조완구가 비밀유지를 위해 직접 기안하다보니 그랬을 수 있음.

<사진 5. 이교재 문서의 상해발 격문 부분>

○ 문건 2(좌측)는 '대한민국 13년 11월 20일'자로 이교재(李敎載)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한다는 것임. '상주대표'란 문건 1에서

언급된 각지 '특파원'들을 일정 지역 범위에서 대표하고 모집·연락·관리 임무도 띠는 직책을 함의한 것으로 보임. 상주대표(이교재)에게 위임된 임무는 "유지자 연락에 관한 일", "독립운동에 대한 비밀적 지방조직을 행할 일", "정부에 대한 특수 헌성을 권행케 할 일"의 3가지로 적기되어 있음.

○ 임명장 말미에 '내무장 조완구'와 '재무장 김구' 2인의 직명 및 실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놓았음. 이 직인보다 가로·세로 각 2배 정도로 더 큰 '내무부인'·'재무부인'의 인장을 그 위쪽에 병렬로 찍어놓아, 개인발급 문서가 아닌 정부발행 문서임을 확증해주었음.



<사진 6. 이교재 문서의 임명장 부분>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문건 1(황상규 추조문)의 제목으로 쓰인 '追弔'란 고인의 생전 업적을 되새기며 조상(弔喪)한다는 뜻임. 본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본국 경남 밀양의 대한국 의사인 백민 황상규님의 영혼에 추조하나이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건국기원절) 대한민국임시정부원 일동이 사람을 보내 조문함. 상해(Shanghai)"로, 경북 달성의 문장지에 대한 추조문과 동일한 형식임.

○ 1890년생인 황상규(黃尙奎)는 1919년 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 39인 연명자 중 1인, 의열단 창립 기획자 및 창단 주역, 길림군정서 재무부장, 의열단의 제1차 대일거사를 위해 밀입국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8년형 수형 등의 이력을 갖고 신간회 본부의 중앙집행위원 및 서기장 등으로 활약하다 신병으로 1931년 9월에 작고한 저명 독립운동가였음.

○ 문건 2(성낙문 앞 특발문)도 문건 1과 같은 날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작성되었고, "본국 경남 창녕의 성낙문선생 귀하"라고 수신인을 특정하였음. 내용은 임시정부가 그동안 무실 무력했다고 겸허히 반성하고 그럼에도 이번에

만주사변 발발의 호기를 맞아 일제타도의 대업을 재추진하려 하는데 정부재정이 고갈된 형편인지라 특파원을 보내어 활동자금과 상비금의 찬조를 요청하니 도와줄 것을 특별히 바라고 또한 명한다는 것임.

<사진 1. 동아대 소장 이교재 문서>

<사진 2. 황상규 추조문>

○ 번역문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음.

- "특발

본 정부는 정성이 없고 덕이 부족하고 충실하지 못하며 의롭지 못한 탓에, 창립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조국광복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사회의 정성에 보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환영(幻影) 속에만 안주하면서 세상에 우리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아본 적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중·일 간의 대사변이 거세게 일어나 암암리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으니,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는 것을 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으로 조선의 혼을 환기시키고 밖으로 중국·러시아와 힘을 합쳐 난폭하고도 신의 없는 일본제국주의를 영원히 타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야 합니다. 이에 무궁한 동양의 평화와 유신의 책략을 갖고서 4264년 기원절 날에 의기를 떨쳐 건의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파견하여 격문을 통해 건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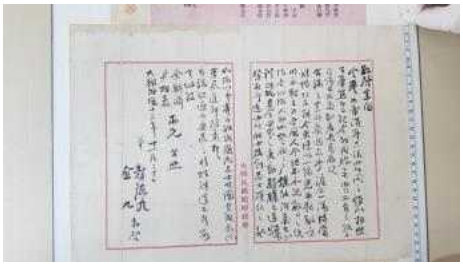
대강을 고하는 것은 의리로써 함께 의논하는 것이오니, 이는 천명이 시키는 것이요 인도로써 의롭다고 여겨짐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나마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국내외에서 공히 인정되는 바입니다. 하물며 올해 조선에 도래한 수많은 사건과 중일간의 큰 문제가 겹쳐 발생한 후로는 여러 방면의 지출이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 잔액이 고갈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까? 이에 중요 임무를 수행토록 명하여 특파원을 보냈으나, 활동자금과 상비금을 1원도 마련치 못했습니다. 형세상 떳떳하지 못하긴 하지만 최후의 방도로 생각해 낸 것은 오직 귀하께서 고상한 의리로 이 상비금을 찬조해주심으로써 힘없는 정부를 도와주고 특파원의 임무 완수를 거들어주어 끝없는 국권을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특별히 바라고 특별히 명하는 바입니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특발
본국 경남 창녕 성낙문선생 귀하" (* 밑줄은 인용자)

<사진 3. 성낙문 앞 특발문>

○ 성낙문(成洛文/成樂文)은 만석꾼 가문 출신으로 1921년에 창녕자동차주식회사의 대주주 중 1인이었을 정도로 재력가였고, 1932년에는 친일단체인 조선유교회에 참여하여 경남지역 의정으로 활동한 지역유지이기도 했음. 만주사변 발발 직후인 1931년 10월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의 재흥자금 조달을 담당할 특파원을 국내 및 일본 각지로 보내기로 하고, 경상남북도 대표로는 경남 창원 출신의 이교재를 11월에 임명하여 밀파하면서 이 특발문을 주어 전하도록 한 것인데, 아마도 성낙문이 예전에 임시정부 군자금을 비밀리에 헌성한 적이 있어서 믿고 보낸 것일지 모름.

○ 문건 3(조완구·김구 편지)은 대한민국 12년(1931년) 11월 20일에 상해의 조완구와 김구의 공동 명의로 '김관제·윤상태 兩兄 台照'라고 하여 공동 수신인에게 써 보낸 사신임. 조완구와 김구가 각기 임시정부 내무장과 재무장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찍힌 편지지와 그 내용으로 보면 사신 형식의 공문이기도 함.



<사진 4. 조완구·김구 편지>

○ 번역문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음.

– "공경히 아룁니다. 훌륭한 명성이 우레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것을 평소에 익히 들었습니다만 산천에 가로막힌 탓에 항상 마음으로만 서로 통하는 것이 그저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동포 가운데 어진 자나 불초한 자를 따질 것이 없이 그 누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상심하지 않겠으며 구차히 존재하는 우리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태단(台端; '댁'·'귀하'라는 뜻의 중국어임)처럼 평소 함양한 바가 보통 사람에 비해 월등한 분일 경우에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해의 한 모퉁이에서 건디기 어려운 고초를 두루 겪으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오직 한 줄기 빛으로 적국을 상대하기 위해서이고, 대항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적국 일본이 우리 산하와 인물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楚)나라에 남겨진 세 집이 오히려 오(吳)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세계는 변화의 기미가 충분히 무르익어 폭발이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만났으니 썩썩한 선비라면 칼을 뽑아들고 의로운 선비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국내의 의로운 선비와 연합하여 그 성취를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군(李君)을 헌하(軒下)에 파견하여 협의토록 하는 것이니, 귀하께서 이군을 환영하여 기꺼이 말씀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편지를 마주하고 있노라니 그리운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할 말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집단의 권위가 없어서 소리 높이 이끌고 나갈 수가 없으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심산(心山) 형은 근자에 어떤 상황입니까. 연로하고 병이 많아 감당할 수 없을 듯하니, 매양 생각이 거기에 미칠 때 마다 진정치를 못하겠습니다."

<사진 5. 이시영 편지 (아래)>

<사진 6. 이동녕 명함>

○ 본문에서 '이우'로 일컬어진 이는 이 편지를 갖고 갈 창원 출신 이교재였을 것임이 분명함.

○ 문서 5(이동녕 명함)는 작은 크기의 백지에 임시정부 국무총리 및 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지도적 독립운동가 '이동녕'의 성함이 한자로 박히고 그 밑에 인장이 찍힌 것이며 뒷면은 백지 상태임. 아마도 임시정부에서 성낙문에게 보내는 특발문(위의 문건 1)에 정부 직인이 없는 대신 이 명함을 일종의 보증 신표로 같이 내보이게끔 교부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함. 그렇다고 이것을 '부전지'로 칭할 수는 없음.

4) 문헌자료

○ 「문영박」,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5권, 1988.
○ 남평 문씨 후은공파, 『남평 문씨 인흥 세거지』, 2014.
○ 권대웅, 『달성의 독립운동가 열전』, 민속원, 2017.
○ 문화재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 보고서』, 2019.
○ 유장근,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9집, 2019
「김관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권, 1986.
○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명 및 편지, 추조장」,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편, 『근대, 그 새로운 시대』, 2018.
○ 김영범, 「독립운동가 백민 황상규의 생애와 초상」, 『지역과 역사』 제40호, 2017.

김관제·윤상태 두 형께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3년 11월 20일
아우 조완구, 김구 올림" (* 밑줄은 인용자)

○ 1886년 경남 고성 태생인 김관제(金觀濟)는 1909년 결성된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1911년 남만주로 망명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귀국 후 1920년에는 의열단의 제1차 폭탄거사 기획이던 '진영사건' 연루자로 체포된 바 있으며 그 후 대구로 이주하여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지원하던 인물임.

○ 1882년 경북 달성 태생인 윤상태(尹相泰)는 1905년 을사늑약에 항의하여 거제군수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여 교육구국운동에 종사하다 1915년 대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이 결성될 때 통령으로 선임되었고, 1917년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1919년 경남 해안지역의 독립만세 시위를 막후에서 지도하는 한편 파리장서운동에도 자금지원 등으로 참여하였고, 이 일로 피체되어 옥고를 겪고나온 후 향리에서 항일민족교육운동을 계속한 지도적 독립운동가였음.

○ 편지 본문에서 '헌하에 파견'한다는 '이군'은 이 편지 작성과 같은 날에 임시정부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되어 국내 밀파된 독립운동가 이교재를 지칭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함.

○ 문건 4(이시영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이 1931년 11월 17일에 '임시정부'라고 크게 박힌 용지에 친필로 쓰고 사인(私印)을 찍어 보낸 것임. 내용은 김관제의 안부를 물은 후 독립운동의 포부와 실제 형세가 괴리됨을 개탄하는 속내를 털어놓고 심산 김창숙(金昌淑)의 안부를 걱정하여 묻는 것임. 번역문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음.

○ "김관제 인형, 보십시오. 형세가 막히고 금지되어 편지로 안부를 여쭙는 것이 편하질 않으나 애틋한 이 마음은 한 번도 끊어진 바 없습니다. 이에 이우(李友)를 통해 제 속내를 간략히 적어놓습니다. 바라건대 묵묵히 도모하시고 나날이 복되시기를 송축합니다.

○ 아우 이시영 (날인) 올림. 11월 17일.

○ 오늘날 바람과 구름이 사납게 몰아칠 때 한밤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먼데서와 가까운 데서 모두 그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놓은 것이 없는지라 갑자기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단의 사악한 논설이 청년들을 유혹한 나머지, 안팎의 사상이 3.1운동 정신과 괴리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족관념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단체를 결성하여 안팎으로 상응함으로써 큰 사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일입니다. 국내의 마흔

5) 기타

가. 문장지 추조문, 문대효 앞 특발문

○ 이교재는 밀입국 후 이 2건의 문서를 문원만에게 전해주지 못한 채 1933년 2월에 병사하였음. 그의 사후 이 문서를 숨겨 보관해오던 부인 홍태출이 1963년 3월 이교재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됨에 즈음하여 공개하였음. 동시에 당사자나 후손이 찾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동아일보』 3월 16일자 기사를 통해 밝혔음. 그 직후 문원만이 찾아와 이교재의 양자인 이정순(李正淳)에게 유족임을 증빙하고 받아갔고, 그 장자인 문태갑이 대를 이어 원본 상태로 보관해 온 것임.

○ 추조문의 명칭을 후손은 고인의 본명인 '문영박'을 선호할 듯하나, 문건 자체의 표기를 따라 '문장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나.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유장근의 논문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한국민족운동사연구』 99, 2019)에 의하면, 이교재는 1887년 경상도 진해현 서면 대곡리(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태생으로, 3.1운동 때의 격문 살포와 1923년 통영 군자금 모금 사건으로 피체 후 각 2년 6개월과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겪은 독립운동가임. 2차 출옥(1927년 12월) 후의 어느 때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투신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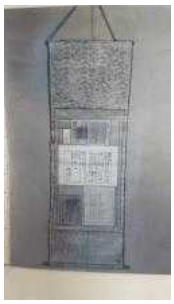
○ 본 문서에 의하면, 이교재는 향후의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려는 임시정부의 계획에 따라 1931년 11월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되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됨. 귀국 후 이교재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신병으로 1933년 2월 14일 47세로 별세하였음. 1946년 김구가 그의 향리와 유택을 방문했으며, 1963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국민장(1990년 '독립장'으로 명칭 변경)이 추서되었음.

○ 그의 사후에 이 문서를 집 천장에 숨겨 보관해오던 부인 홍태출이 1954년 4월 『마산일보』 사장 김형윤에게 처음 공개하여 「이교재선생 묘지 전배기」라는 기사로 보도되었음. 그 후 이 문서는 이교재·홍태출의 양자 이정순(李正淳)이 장인(匠人)의 손을 빌려 띠지로 배첩하고 액자에 넣어 보관하다 아들 이상화에게로 상속 전승된 것이라 함. 이번의 조사를 계기로 액자에서 탈리해놓은 상태임.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이교재는 밀입국 후 이 5건 문서 중 그 어느 것도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전해주지를 못한 채 1933년 2월에 병사하였음. 그의 사후 이 문서를 꼭꼭 숨겨 보관해오던 부인

홍태출이 1963년 3월 이교재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됨에 즈음하여 비로소 공개하면서 당사자나 후손이 찾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동아일보』 3월 16일자 기사(「32년 만에 주인 찾는 감사장」)를 통해 공표하였음. 그러나 문장지의 아들인 문원만의 경우와는 달리 이 문서들은 찾아가는 이가 없었음. 이에 이교재의 양자인 이정순(李正淳)이 이 5건 문서를 족자 형태로 장황해두었는데, 동아대학교 총장이 기증을 요청하자 응하여 기증하니 동년 2월 1일자로 소급된 유물카드가 작성되었고 현재까지 동 대학의 박물관 소장 유물로 보관되어 온 것임.



<사진 7. 기증 당시의 장황 족자> <사진 8. 이교재 문서의 동아대 소장품 카드>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가. 문장지 추조문, 문대효 앞 특발문

○ 이 문서는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국제정세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실행방법을 추찰해볼 수 있는 중요자료임. 그런데 추조문과 특발문은 이것이 유일본이 아니라 이번에 같이 문화재 등록 여부가 심의될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도 있음. 그 점을 같이 감안하여 이들 문서를 문화재로 등록하고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나.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이 문서와 같은 형식 및 내용의 문건은 현재까지 국내외 어디서도 발견된 바 없어서 희귀본임. 또한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에 따른 국제정세의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에서 국내 및 일본 각지의 특파원을 운용하려던 상황과 특파원 밀파 절차를 추찰해볼 수 있게끔 해줄 중요 자료가 됨.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이들 문서는 모두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국제정세의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의 절실해진 독립운동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실행방법을 추찰해볼 수 있는 중요자료임. 다만 추조문과 특발문은 이것이 유일본이 아니라 이번에 같이 문화재 등록 여부가 심의될 남평 문씨가 소장본도 있음. 그 점을 두루 감안하여 이들 5건 문서를 일괄 문화재로 등록하고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가. 문장지 추조문, 문대효 앞 특발문

○ 원본은 문화재 등록 후 보존처리하여 남평 문씨 세거지의 인수문고에 계속 소장 보관토록 하되, 복제본을 만들어 독립기념관에 전시하고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면 이봉창·윤봉길 등의 한인애국단 의거를 준비해간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지식 확산을 통하여 차세대 교육에 기여하는바 적지 않을 것임.

<사진 3. 추조문 및 특발문 보관처인 인수문고>

나.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이교재의 후손인 이상화의 사가에 현재처럼 계속 보관하면 보존부실로 훼손부위가 커져서 귀중자료의 가치가 상당히 저락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문화재로 등록 후 창원시립마산박물관에 위탁하여 보존처리하고 상설 전시토록 함이 좋겠음. 그리하면 임시정부의 활동과 이교재의 공적에 대한 차세대 교육 효과가 상당히 클 것임.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문화재 등록 후 보존처리하여 현재처럼 동아대 박물관에서 계속 소장하되 상설 전시토록 하면 이봉창·윤봉길 등 한인애국단 의거를 준비해간 임시정부 활동과 이교재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차세대 교육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안건번호 근대 2019-11-16

16. 「동덕여고 교복」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동덕여고 교복」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된('18.10.23) 「동덕여고 교복」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8.2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동덕여고 교복	1건 7점	저고리 길이 23cm, 화장 49cm 치마길이 60cm 등	면, 무명 등	미상	동덕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길 123-5

(2) 추진경과

○ 「동덕여고 교복」 문화재 등록 신청(18.10.2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9.8.20.)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OOO 문화재전문위원 (2019.8.20.)

- 조사된 동덕여자고등학교 소장 교복은 당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옷의 형태와 옷감, 그리고 바느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대의 것으로 짐작됨. 또한 입수경위와 착용시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임. 그리고 해당 유물들은 1990년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과 사진 등을 참고하여 동창회에서 재현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음.

○ OOO 안동대학교 교수(2019.8.20.)

- 동덕여고 교복은 1920년대 최초 교복, 1921~25년 교복, 1939년 춘추복 및 동복으로, 교복의 변화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임. 다만, 일부 소장처에서 제시한 연대와 맞지 않는 점, 입수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당시 실제 착용되었던 교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은 어렵다고 판단됨.

○ OOO OOO박물관 학예연구사(2019.8.20.)

- 동덕여고 교복은 패션의 변화과정 등을 추정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음. 하지만 1920년대 최초 교복 등에서 1950년대 이후의 특징이 확인 되는 등 당시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의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는 점, 전체적으로 입수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는 없다고 판단됨.

마. 세부목록

순번	유물명	수량	비고
1	1920년대 최초 교복	블라우스 1 치마 1	
2	1921년~25년 교복	블라우스 1 치마 1	
3	1939년 춘추복	블라우스 1 치마 1	
4	1939년 동복(상의)	블라우스 1 *치마는 춘추복과 겸용 추정	

마. 의결사항

○ **부 결**

- 당대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화재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1>

근대문화유산 의생활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회의

1. 일 시 : 2013. 5. 31(금) 14:00
2. 회의내용
   ○ 근대의생활분야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및 등록기준안 검토
   ○ 근대의생활분야 문화재 등록대상 선정

검 토 결 과
○이도재 예복, 민철훈 대례복 일습, 민철훈 오버코트, 박기준 대례복 일습 -등록가치 있음 ○박한수 결혼예복과 베일, 박한수 드레스 -보류(추후 관련자료 정밀조사 후 재검토) ○개성지방 원삼 : 등록가치 있음 -김선희 혼례복으로 명칭 변경 ○이해상 상복 일습 : 등록가치 있음 -이해상 내외 상복으로 명칭변경 ○백선엽 군복 : 등록가치 있음 ○동덕여자고등학교 교복 : 등록가치 미흡 -1990년대 이후 재현품 ○판사. 검사. 변호사 법복 : 1953년 판사법복, 1956년 검사법복, 1961년. 1956년 변호사 법복은 등록가치 있음. -1981년, 1995년 판사법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법복이므로 등록 부적절 ○윤봉길 의사 유물 -등록가치 있음. 대한국 공훈회의 저장은 별도분리하여 등록

<붙임2>

「동덕여고 교복」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동덕여고 교복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길 123-5 동덕여자고등학교

3. 소 유 자 : 동덕여자고등학교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전문위원(2019.8.20.)>

1) 현상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 재현품으로 치마는 접어놓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탈색이 됨.
나. 1921~1925년 교복 : 저고리 우측 고대 찢어진 상태.
다. 1939년 춘추복 : 상태 양호. 점퍼스커트는 부분 탈색
라. 1939년 동복 : 부분 탈색

2) 내용 및 특징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 상의는 소색 광목 홑저고리이고, 하의는 검정색 면에 풀을 먹여 다듬이질하여 윤이 나게 만든 통치마 한복 1벌임. 소색 저고리는 광목으로 만들었고, 매듭단추로 여몄음. 저고리 길이 23cm, 고대 13cm, 화장 49cm 이다. 저고리와 치마는 모두 재봉틀로 제작하였음. 검정 치마는 면으로 만든 앞트임 조끼허리가 달려있음. 조끼허리 길이는 24.5cm, 옆선은 7.7cm이며, 여밈을 위한 단추나 고름은 달려있지 않음. 치마 길이 60cm, 치마통은 69cm 폭 옷감을 2폭 반을 이었음. 치마 주름은 2.5cm임. 치마는 접어 전시한 흔적으로 부분부분 탈색이 심함.

나. 1921~1925년 교복

○ 상하의 모두 같은 검정색 능직으로 만들었고 안감은 청색임. 풀을 먹여 다듬이질하여 윤이 나게 만든 저고리와 통치마 한복 1벌임. 겉감은 매우 고운 능직, 안감은 거친 남색 생사(生絲) 주로 만들었음. 저고리와 치마는 모두 재봉틀로 제작하였음. 1920년대 최초교복으로 알려져 있는 소색매듭 단추저고리와 검정 통치마와 치수는 동일하나 옷감이 다르고, 저고리에는 매듭단추대신 저고리와 같은 감의 고름이 달려있음. 고름의 길이는 긴고름 65.5cm, 짧은 고름 50cm, 고름 너비 5.7cm임. 검정 치마는 광목으로 만든 앞트임 조끼허리가 달려있음. 검정 치마는 흰색의 조끼허리가 달려있는 통치마로 재봉틀로 제작하였음. 조끼허리 길이는 25.5cm, 품(1/2) 37.5cm이며, 앞트임임. 새로 제작한 옷인 까닭에 여밈을 위한 단추나 고름은 달려있지 않음. 치마 길이 60cm, 치마통은 178cm, 치마 주름은 2.5cm,

주름 방향은 착용자가 입으면 오른쪽임. 치마의 아래 단 6.2cm 위에는 지그재그 형태의 얇은 흰색 브레이드(braid) 장식이 있음.

다. 1939년 춘추복

○ 동덕여자고등학교 졸업앨범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교복은 1939년 이후에 착용한 것으로 추정함. 검정색 개버딘으로 만든 점퍼스커트 형의 치마 위에 흰색 옥양목으로 만든 홑 블라우스(미드리프 midriff형)를 입는 것이 춘추용 교복임.

○ 블라우스는 흰색 옥양목에 파란색 얇고 긴 폴리에스테르 리본이 달려있음. 블라우스 밑단에는 5cm 너비의 밴드가 있음. 칼라(collar)는 플랫(flat) 칼라이고, 앞중심과 커프스, 허리 여밈에는 스냅단추가 있음. 이 옷과 치수와 형태는 거의 동일한 동복 교복 자켓 1벌이 있음.

○ 점퍼스커트는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이 연결된 것으로 상의는 가슴둘레 82cm, 길이 20.5cm임. 상의의 앞은 깊이 13.5cm로 둥글게 팠음. 좌측 어깨너비는 8cm로 스냅 2개가 달려있어, 옷을 입을 때 여유가 있으며, 입고 벗기 편리하게 좌측 겨드랑이 아래 13cm를 3개의 스냅으로 여몄음. 이와 연결된 치마는 길이 11.5cm의 트임이 있음. 상의에는 안감이 있지만, 치마부분에는 안감이 없음. 치마는 허리둘레 78cm, 치마아래둘레 245cm임. 치마는 너비 6cm의 맞주름 12개가 있음. 치마의 안단은 6cm임.

라. 1939년 동복

○ 동덕여자고등학교 졸업앨범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교복은 1939년 이후에 착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검정색 개버딘으로 만든 점퍼스커트 형의 치마 위에 같은 감으로 만든 검정색 자켓을 입는 것이 동복 교복임. 형태는 1930년대 춘추용 교복으로 알려진 것과 동일하나, 블라우스 대신 치마와 같은 감으로 만든 자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수도 춘추복과 거의 같음.

○ 자켓은 검정색 개버딘에 너비 1.3cm의 얇고 약 70cm의 긴 폴리에스터 푸른색 리본이 달려있음. 자켓 밑단에는 5cm 너비의 밴드가 있다. 칼라(collar)는 플랫(flat) 칼라이고, 앞 중심과 커프스, 허리 여밈에는 스냅단추가 있음. 편하게 착용하기 위하여 좌측 겨드랑이 아래 7cm 이하 5.5cm의 트임이 있음.

3) 기타

○ 동덕여자고등학교는 1908년 4월 조동식 선생이 동원여자의숙을 설립하고, 1910년 4월 동덕여자의숙을 인수, 합병하여 교명을 '동덕'으로 변경하여 여성교육을 위해 헌신한 학교임.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는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여성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임.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 현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복은 1920년대 첫 교복으로 알려져 있으나, 옷의 형태와 옷감 그리고 바느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대의 것으로

짐작되며 2013년 3월 문화재청 조사 당시, 실사를 해 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을 더듬어 재현을 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음.

나. 1921~1925년 교복

○ 현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복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교복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사를 해 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을 더듬어 재현을 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음.

다. 1939년 춘추복

○ 현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복은 1930년대 교복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장경위는 확실하지 않음. 2013년 3월 문화재청 조사 당시, 실사를 해 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을 더듬어 재현을 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음.

라. 1939년 동복

○ 현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복은 1930년대 교복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장 경위는 알 수 없음. 옷감과 바느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대의 것으로 짐작되며 2013년 3월 문화재청 조사 당시, 실사를 해 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을 더듬어 재현을 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음.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교복은 1920년대 첫 교복으로 알려져 있으나, 옷의 형태와 옷감 그리고 바느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대의 것으로 짐작되며 2013년 3월 문화재청 조사 당시, 실사를 해 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과 사진 등을 참고하여 재현을 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음.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함.

나. 1921~1925년 교복

○ 동덕여자고등학교 교복은 1990년대 이후, 졸업생의 기억과 사진 등을 더듬어 동창회에서 재현 한 것이라고 함. 그러므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는 없다고 생각함.

다. 1939년 춘추복

○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교복은 1930년대 교복으로 알려져 있으나, 옷감(블라우스에 달린 폴리에스터 리본, 점퍼스커트에 사용된 개버딘 등)과 바느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됨. 폴리에스테르는 1941년에 발명되었으므로, 이 교복이 1930년대 후반의 것이라면 폴리에스테르가 일반화 되지 않았을 것임. 입수경위와 착용시점이 확실하지 않으며, 2013년 3월 문화재청 조사 당시, 실사를 해 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과 사진 등을 참고하여 재현을 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음.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함.

라. 1939년 동복

○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교복은 1930년대 교복으로 알려져 있으나,

옷감과 바느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후대의 것으로 짐작되며 2013년 3월 문화재청 조사 당시, 실사를 해 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과 사진 등을 참고하여 재현을 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음.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함.

<OOO 안동대학교 교수(2019.8.20.)>

1) 현상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ㅇ 치마 색상이 부분적으로 바랜 상태

나. 1921~1925년 교복

ㅇ 저고리 고대 부분 손상

다. 1939년 춘추복

ㅇ 상태 양호함

라. 1939년 동복

ㅇ 상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① 저고리

- 소재와 구성 : 소색 면직물(20×20/㎝). 재봉틀 바느질한 홑저고리
- 치수와 형태 : 저고리 길이 23㎝. 화장 49㎝. 깃너비·길이 4.5×48㎝. 동정너비·길이 2×39.5㎝. 깃머리에서 4.7㎝ 올라가 끝을 사선으로 정리한 동정을 달았음. 5㎝ 너비의 등바대. 암수 매듭단추 여밈(9㎝ 간격). 안섶은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5㎝, 도련에서 4.8㎝ 정도 들어가 있음. 뒤중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둠.

【그림 1】"1920년대 최초 교복"이라고 하는 저고리(동덕여자고등학교 소장)

【그림 2】1950년대 전후 저고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그림 3】 ❶소재 면 ❷겉섶 쪽(안) 바느질 ❸깃

【그림 4】1924년 高等科 제1회 졸업생 (1924. 3. 27)

【그림 5】1920년대 초기 저고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6】1920년대 적삼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② 치마

- 소재·구성 : 검정색 면직물(55×19/㎝), 재봉틀 바느질과 손바느질 혼용한 홑치마. 접어놓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탈색됨.
- 치수·형태 : 검정 치마에 흰색 조끼허리가 달려있는 앞트임 통치마. 별도의 여밈 장치는 없는 앞트임 상태(어깨말기 앞중심 길이 13㎝, 치마 상단의 앞중심 트임 15.5㎝) 어깨말기 옆선 7.5, 어깨선 3.5㎝임. 치마 길이는 60㎝, 치마 전체 너비는 159㎝(19+70+70). 약 2.5㎝ 간격의 주름잡음. 주름 수 총 32개. 허리둘레 총80.4㎝. 치마 앞중심은 시접을 19㎝를 주어 입어 오른쪽으로 넘기고 밑단은 시접 6.3㎝로 접어 공그르기함. 치마 하단 부분의 탈색 심함

【그림 7 치마】

【그림 8 치마소재】

나. 1921~1925년 교복

① 검정 저고리

- 검정 능직물을 사용한 겹저고리. 재봉틀 바느질로 제작.

- 깃너비·길이(5×49.8cm)
- 동정(너비2×41.5cm), 깃머리에서 5.8cm 올라간 위치에 예각 동정 달았음.
- 긴 고름(길이65.2×너비5.7cm), 짧은 고름 길이 49.5×5.7cm.
-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1.5cm 정도 더 김.
- 옆선8㎝, 진동16cm, 수구10.5cm, 섶상6cm, 섶하7cm.
- 우측 고대부분이 찢어진 상태

② 검정 통치마

- 검정 능직 면 치마에 흰색의 조끼허리를 단 통치마.
- 홑으로 재봉틀 바느질.
- 좌임 여밈 : 여밈장치는 없이 앞중심 트임(허리선 아래 13.5㎝까지)
- 총길이 84cm(어깨말기24+치마60), 품 37.5cm, 치마폭 180㎝(109+28.1+51㎝)
- 어깨말기 : 길이 24㎝, 뒤중심길이 15㎝, 앞중심 길이 13cm. 허리안단 너비 4.5cm. 옆선 6.8, 어깨선 너비 4cm.
- 치마주름 약 2.5cm 간격으로 총 37개를 잡아 어깨말기 허리선에 달았음.
- 치마의 아래 단 6.2cm 위에 릭래(지그재그 모양) 브레이드(braid) 장식
- 밑단은 시접 6.3cm로 접어 새발뜨기로 고정.

【그림 9】교복 저고리

【그림 10】통치마

【그림 11】저고리·치마 소재(능직 면)

【그림 12】조끼허리(평직 면)

【그림 13】 앞트임

【그림 14】 브레이드(0.5×0.5㎝)

【그림 15】 밑단 새발뜨기

다. 1939년 춘추복

① 흰색 블라우스

- 플랫칼라(너비 8~8.5㎝)의 흰색 춘추용 교복 상의(총길이 37㎝). 평직 면직물.
- 동절기 상의와 동일한 치수와 형태.
- 소매길이 46㎝, 옆선 12.5㎝, 상의 도련에 5㎝ 너비의 밴드 달고 왼쪽에 트임 둠.
- 앞트임에 4쌍의 스냅을 달고 옆트임과 소매단에도 스냅을 달아 여미도록 함.
- 앞 중심에 너비 1.3㎝, 길이 100㎝ 정도의 청색 끈으로 묶은 리본 장식을 달았음.

② 검정 원피스

- 치마와 동일한 소재(검정 평직 면)의 어깨말기를 단 맞주름 치마.
- 치마길이 86㎝. 주름너비 6㎝.
- 여밈은 스냅단추로 어깨 2쌍, 왼쪽 옆선 허리쪽에 3쌍이 있음.

【그림 16】 춘추용 교복 상의

【그림 17】 춘추용 교복 하의

【그림 18】 상의 앞부분

【그림 19】 상의 앞트임

【그림 20】 소매 커프스 스냅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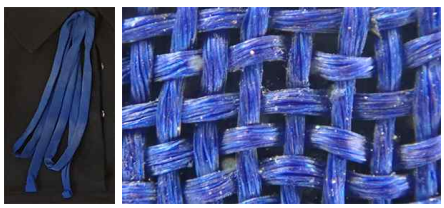
【그림 21】 상의 소재(평직 면)

【그림 22】치마 소재(평직 면)

라. 1939년 동복

- 플랫칼라(너비 8~8.5㎝)를 단 허리선 길이(총길이 37㎝)의 검정색 동절기 교복.
- 소매길이 46㎝, 옆선 12.5㎝, 상의 도련에 5㎝ 너비의 밴드를 달고 왼쪽에 트임을 둠.
- 앞트임에 4쌍의 스냅을 달고 옆트임과 소매단에도 스냅을 달아 여미도록 함.
- 앞 중심에 너비 1.3㎝, 길이 100㎝ 정도의 청색 끈으로 묶은 리본 장식을 달았음.

【그림 23】 동복 앞면·뒷면


【그림 24】 상의에 사용된 청색 리본과 조직도

3) 기타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 1908년 4월 조동식 선생이 동원여자의숙을 설립한 후, 1910년 4월 동덕여자의숙을 인수, 합병하여 교명을 '동덕'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름.

○ 2013년 등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을 더듬어 동창회에서 재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함.

○ 이번 조사자 역시 신청자가 제시한 연대와 복식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소매너비, 배래 모양, 옆선 모양 등이 1920년대로 보기 어려움

나. 1921~1925년 교복

○ 1924년 高等科 제1회 졸업생(1924. 3. 27) 사진에는 흰색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있음. 사진에서 치마 하단의 흰 브레이드는 확인되지 않음.

○ 2013년 등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을 더듬어 동창회에서 재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함.

【그림 25】 1924년 高等科 제1회 졸업생 (1924. 3. 27)

【그림 26】 1929년 주산수업 사진

다. 1939년 춘추복

○ 1941년 졸업앨범에서 동일 형태의 동절기 교복 착용 확인되었음. 그러나 언제까지 착용한스타일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유물의 연도, 착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2013년 등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을 더듬어 동창회에서 재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함.

라. 1939년 동복

○ 1941년 졸업앨범에서 동일 형태의 교복 착용 확인되었음. 그러나 언제까지 착용한 스타일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유물의 연도, 착용 여부, 입수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 등록가치 미흡 : ❶저고리 소매너비, 배래 모양, 옆선 모양이 1950년대 전후의 특징이 확인되므로 소장처에서 제시한 연대와는 맞지 않음. ❷또한 이 자료에 대한 입수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

나. 1921~1925년 교복

○ 1924년 고등과 졸업기념 사진에는 흰 치마·저고리의 교복차림이 확인되고 1929년 수업 사진에서 검정 치마·저고리 확인됨. 유물 명칭으로 제시된 "1921~1925 교복"이 맞는지 확인 불가. 저고리 길이나 소매배래 등의 형태가 1950년 이후의 특징으로 보이므로 시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입수 경위도 명확하지 않기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움.

다. 1939년 춘추복

○ 교복의 변화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 보아 당시 실제 착용되었던 교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문화재 지정은 불가함.

라. 1939년 동복

○ 교복의 변화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하의 없이 상의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1990년대 이후 졸업생이 기억을 더듬어 재현해 놓은 것"이라는 2013년 조사보고서 기록으로 보아 당시 실제 착용되었던 교복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등록문화재 지정은 불가.

<OOO OOO박물관 학예연구사(2019.8.20.)>

1) 내용 및 특징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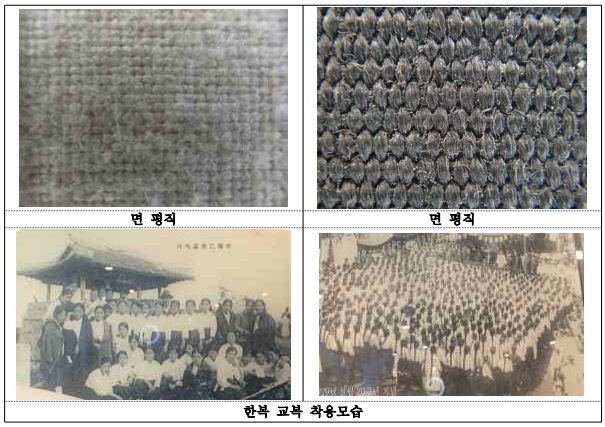
○ **저고리**는 광목(면)을 사용하여 홑으로 재봉틀바느질 되었음. 깃은 너비4.5×길이 48cm, 동정은 너비2×39.5cm로 깃머리에서 4.7cm 올라간 자리에 끝을 사선으로 하여 달았음, 깃에는 5cm너비의 등바대가 있음. 여밈은 깃머리 중심에 숫 매듭 단추와 안길에 고리가 달린 형태임, 뒤 중심은 꼬집어 박아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 안섶은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5cm 도련에서 4.8cm 정도 들어가 있음

○ **치마**는 면을 사용하여 홑으로 재봉틀바느질 되었음.
검정 치마에 흰색 조끼허리가 달려있는 통치마로 앞 여임이며 여임 장치는 따로 없음. 트임은 앞 중심에 있으며 앞중심 길이는 13cm에서 치마 쪽으로 15.5cm 아래까지 트여 있음. 옆선 7.5, 어깨선은 3.5cm임. 치마 길이는 60cm, 치마 전체 폭은 너비159(19+70+70)로 주름을 약2.5cm 간격으로 잡아 허리에 달았음. 주름 수는 총 32개임. 허리둘레는 총80.4cm임. 치마 앞중심은 시접을 19cm를 주어 입어 오른쪽으로 넘기고 밑단은 시접6.3cm로 접어 공그르기함. 오랜 기간 빛에 노출되어 부분적으로 탈색이 심함

<1920년대 (최초교복)**조사 사진 자료**>

저고리 | 치마

재봉틀 바느질 | 재봉틀 및 손바느질



면 평직 | 면 평직

한복 교복 착용모습

나. 1921~1925년 교복

○ **저고리는** 검정 능직 명주를 사용하여 겹으로 재봉틀바느질 되었음. 깃은 너비5×길이 49.8cm, 동정은 너비2×41.5cm로 깃머리에서 5.8cm 올라간 자리에 끝을 사선으로 하여 달았음. 여밈은 고름으로 긴 것 길이65.2×너비5.7cm, 짧은 것 길이 49.5×5.7cm임, 앞섶이 뒷도련보다 1.5cm 정도 더 김, 옆선8cm, 진동16cm, 수구 10.5cm, 섶상6cm, 섶하7cm임

○ **치마는** 저고리가 소색 평직 면, 치마가 능직의 검은색 면을 사용하여 홑으로 재봉틀바느질 되었음.
검정 치마에 흰색의 조끼허리가 달려있는 통치마로 앞 여임이며 여임 장치는 따로 없음. 트임은 앞 중심에 있으며 치마 쪽으로 허리에서 13.5cm 아래까지 트여 있음. 저고리품 37.5cm, 앞중심 길이 13cm임. 치마폭은 너비180(109+28.1+51)이며, 주름은 약2.5cm 간격으로 총 37개를 잡아 허리에 달았음. 허리 안단은 너비 4.5cm임. 저고리를 포함한 총 길이는 85.5cm, 허리둘레 77cm임, 옆선 6.8, 어깨선 4cm임. 치마의 아래 단 6.2cm 위로 지그재그 모양의 브레이드(braid) 장식이 있으며, 밑단은 시접6.3cm로 접어 세발뜨기로 고정함.

<1921~1925 교복 **조사 사진 자료**>

저고리 | 치마

저고리 치마 능직 면 | 조끼허리 평직 면

저고리 왼쪽 고대 부분 훼손 부위 | 저고리 안감

조끼허기 앞트임 | 저고리 안감 평직 생명주

치마 장식 브레이드 | 치마단 세발뜨기

1929년 졸업앨범과 교복착용 모습

다. 1939년 춘추복

○ **블라우스**는 앞 중심 목에 파란색 폴리에스터로 만든 리본이 달려 있음, 길이가 허리선 정도인 미드리프스타일로 홑으로 제작됨. 앞여밈 단은 너비 3cm로 4쌍의 스냅을 달았고, 블라우스 밑단에 폭 5cm의 단을 달아 옆트임을 줌, 옆트임 단 5cm와 소매단 3cm의 여밈은 역시 스냅임. 칼라는 플랫칼라로 목둘레 36cm, 옆선 12.5cm임

○ **원피스**는 상의에만 안감이 있고, 치마에는 안감이 없음. 치마는 맞주름으로 주름너비는 6cm. 여밈은 스냅단추로 어깨 2쌍, 옆선 허리쪽에 3쌍이 있음.

<조사 사진 자료 1939년1월~(춘추복)>

저고리 | 치마

평직 면 | 평직 면

목선의 오염 | 앞 여임

허리단의 옆선 여임부분 | 소매 여밈 스냅의 녹

황기2601년(1941) 졸업앨범 교복사진

황기2601년(1941) 졸업앨범 교복사진

라. 1939년 동복

○ 검정 블라우스에는 앞 중심 목에 파란색 폴리에스터로 만든 리본이 달려있음, 길이가 허리에 맞추어진 미드리프스타일로 홑으로 제작됨. 앞여밈 단에 4쌍의 스냅을 달았고, 블라우스 밑단에 단을 달아 옆트임을 줌, 옆트임 단과 소매단에 여밈은 스냅임. 칼라는 플랫칼라임.

<1939년~ 상의(동복) 조사 사진 자료>

저고리 | 치마

황기2601년(1941) 졸업앨범 교복사진

황기2601년(1941) 졸업앨범 교복사진

2) 기타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및 1921~1925년 교복

○ 이번에 조사한 1920년대 치마저고리 교복은 실물 확인 결과 저고리 길이와 배래 등에서 1950~60년 특징이 확인됨에 따라 일단 소장처에서 제시한 연대와는 맞지 않음. 소장처에서 정확한 연대를 모른다 할 지라도 치마저고리 형태의 교복이 1950~60년대까지 착용되었다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1930년대 이후 현대식 교복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사대상의 한복 교복은 의미가 없음

다. 1939년 춘추복

○ 본 자료는 실사 결과 1941년 졸업앨범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동복 교복 착용이 확인됨, 이와 비교 대상유물이 없으므로 이것이 당시의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본 자료로만 보았을 때 형태는 앨범사진에서 본 것과 거의 일치하나 당시 착용했다고 보기엔 상태가 너무 양호하며, 목의 얼룩, 스냅의 녹 등에서 침수의 흔적이 확인됨. 이 자료에 대한 입수 경위가 명확해야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라. 1939년 동복

○ 본 자료는 실사 결과 1941년 졸업앨범에 이와 같은 교복 착용이 확인됨, 그러나 이에 대한 비교 자료가 없으므로 이것이 당시의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본 자료로만 보았을 때 당시 착용했다고 보기엔 상태가 너무 양호하며, 목의 얼룩, 스냅의 녹 등에서 침수의 흔적이 확인됨. 이 자료에 대한 입수 경위가 명확해야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가. 1920년대 최초 교복

○ 이 교복은 실사 결과 1929년 졸업앨범에 한복차림의 교복이 확인되나 당시의 사진과 비교해 저고리 길이, 소매배래 등에 차이를 보여 당시의 것이 아닐 것으로 추정됨.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입수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등록문화재의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나. 1921~1925년 교복

○ 이 교복은 실사 결과 1929년 졸업앨범에 검정 한복차림의 교복이 확인되나 당시의 사진과 비교해 보아도 조사한 저고리와 치마는 길이, 소매배래 등에서 1950년대 이후의 특징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등록문화재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됨.

다. 1939년 춘추복 및 1939년 동복

○ 현 자료로만 보았을 때 당시의 패션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성이 충분하여 당시의 교복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는 분명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2013년 조사 보고서에 "1990년대 이후에 졸업생의 기억을 더듬어 재현을 해 놓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입수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당시의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적 가치를 논할 수 없음.